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마지막 대칸 릭단(재위 1604~1634)의 몽골 통일 시도와 그 유산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최 주 봉

마지막 대칸 릭단(재위 1604~1634)의 몽골 통일 시도와 그 유산

지도교수 金 石 煥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최 주 봉

최주봉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국문초록

릭단은 몽골의 중시조로 평가받는 다얀 칸의 7대손으로, 17세기 초 몽골 통일을 추진하였던 마지막 대칸이다. 비록 대칸을 정점으로 하는 몽골 제국기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의 위업은 미완에 그쳤으나, 릭단이 추구한 全몽골에 대한 종주권은 후대 만주와 몽골 지배층에게 커다란 유산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릭단을 다룬 선행연구는 대부분 만주와 겔룩파 측의 입장에서 릭단을 후금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폭군이나 겔룩파를 박해하려다 죽음을 맞이한 원흉으로 단정지어 왔다. 릭단을 몽골 통일을 지향한 진취적 인물로 평가한 연구라 할지라도 주로 명이나 후금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몽골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세력과 릭단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이에 본고는 만주와 겔룩파 측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칸의 입장에서 릭단의 몽골 통일 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6세기 초 다얀 칸은 몽골을 여섯 만호로 재편하고 칭기스 일족에 의한 지배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諸子分封을 통해 형성된 몽골의 '여섯 만호 체제'는 다얀 사후 각 만호에서 정권의 독립성을 표방하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각 만호의 수장들이 티베트 불교의 권위에 가탁하여 '칸'을 참칭하면서 여섯 만호의 종주로서 대칸의 위상은 크게 하락하였다. 17세기에 접어들어 후금이 요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함에 따라 몽골 내부에서는 이탈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었다.

1604년 대칸으로 즉위한 릭단은 칸위 계승 과정에서 분쟁을 일으킨 세력을 제압하고 대칸의 직속 세력을 중심으로 차하르 만호

내부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요동 일대의 명 변경을 공략하여 명으로부터 교역권과 공물을 얻어냄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호르친과 다섯 오톡 할하를 비롯한 좌익 몽골에서 후금과 통교하고 대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릭단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병탄하여 중앙집권화를 도모하였다. 릭단은 자신의 왕통이 칭기스 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천명하고 몽골 제국기 帝師를 배출해오던 사꺄파의 고승 샤르빠 후툭투를 초청함으로써 쿠빌라이와 팍빠가 맺었던 施主-應供僧 관계를 재현하였다.

릭단은 1627년 우익 몽골을 상대로 정복 전쟁을 전개하여 알탄 가문의 중심지인 후흐호트를 점령하였다. 1628년에는 挨不哈에서 우익 연합군을 격파한 뒤 투메드와 오르도스를 복속시킴으로써 릭단은 알탄 이래 우익으로 기울었던 주도권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 그 뒤로 릭단은 명으로부터 새로운 공물을 획득하였을 뿐 아니라 우익의 각 만호에 지급하던 공물까지 독점하였다. 한편, 후흐호트를 점령하고 銀佛寺를 장악한 릭단은 1629년 113권의 몽골문 황금 간주르를 자신의 명의로 완성하여 알탄 가문을 능가하는 티베트 불교 시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1630년부터 1632년까지 릭단은 興安嶺 이북으로 수차례 원정하여 아루 몽골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아루 몽골인이 후금과 호르친, 할하 등지로 투항함에 따라 릭단은 아루 몽골을 복속시키지 못한 채 원정에서 귀환하였다. 1632년 후금 측에 가담한 몽골군을 소집한 홍타이지는 릭단이 아루 원정을 떠난 사이 후흐호트를 노략하고 명 변경을 위협하여 릭단 몫의 공물을 거두어 돌아갔다. 이후 오르도스 군대를 동원하여 河西 일대를 침범하던 릭단은 1634년 촉투를 비롯한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青海 방면으로 이동하던 도중 시라탈라에서 천연두로 사망하였다.

릭단 사후 구심점을 상실한 휘하의 몽골인들이 사분오열하면서 차하르 진영은 급속히 와해되었다. 홍타이지는 릭단의 아들 에제이의 항복을 받고 '傳國璽'와 마하칼라像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몽골의 정권 인수를 선언한 반면, 할하의 수장들은 칭기스 혈통을 근거로 대칸의 정통성 계승을 주장하였다. 양측 모두 궁극적으로 全몽골에 대한 지배권을 쟁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후금과 할하의 대결은 몽골 통일을 추구하였던 릭단이 남긴 유산을 상속하기 위한 경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릭단, 홍타이지, 촉투, 샤르빠 후툭투, 시주-응공승 관계, 몽골문 간주르, 마하칼라, 전국새
학 번 : 2017-27242

목 차

머 리 말 ····· 1

Ⅰ. 다얀 사후 몽골의 정국과 대칸의 위상 ····· 10

Ⅱ. 릭단의 대칸 즉위와 중앙집권화 ····· 20

Ⅲ. 릭단의 몽골 통일 추진 ····· 38

Ⅳ. 릭단의 아루 원정과 그 결과 ····· 53

Ⅴ. 릭단의 유산을 둘러싼 경쟁 ····· 70

맺 음 말 ····· 81

참고문헌 ····· 85
부 록 ····· 102
Abstract ····· 104

그 림 목 차

[그림 1] ‘傳國璽’ ····· 72
[그림 2] 마하칼라像 ····· 76

머 리 말

왕조의 마지막 군주는 亡國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최후의 군주는 그를 타도하고 새로이 패권을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폄훼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몽골의 마지막 대칸, 릭단 후툭투 칸[1](재위 1604~1634)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떠할까? 릭단 사후 淸朝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후에 릭단은 不道한 짓을 많이 행하여 친족을 노략하고 죽이며 그 부하를 모질게 박해하였다. 또한 때때로 諸部를 침범하여 소요를 일으키니, 사람들이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원망하며 배반하였다. …… [몽골 諸部의 수령들이] 각자 屬下를 이끌고 잇따라 [淸에] 來歸하였다.
> 天聰 6년(1632) 太宗文皇帝가 친히 六師를 거느리고 그를 정벌하러 가자, 릭단은 크게 두려워하여 옛 駐牧地를 떠나 서쪽으로 달아났다. 大兵이 歸化城을 겨냥하기에 이르러, 릭단은 인심이 진동하는 것을 보고 國勢를 지탱할 수 없어 무리를 이끌고 黃河를 건너 티베트로 달아나고자 하였다. 국인은 평소 그 잔혹함에 고통받아 따라가지 않고 머무른 자가 열에 일고여덟이었다. 가난과 굶주림으로 서로 겁탈하고 사람을 죽여 먹이로 삼기에 이르니, 무리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 歸降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 릭단은 打草灘 지방에 이르러 병사하고, 그의 妻子가 마침내 傳國璽를 바치고 모든 무리가 內附했다.[2]

---

1) 릭단은 본명이고 후툭투 칸은 칸號이다. 릭단의 표기는 문헌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제5대 달라이 라마 자서전』을 비롯한 티베트 문헌에서 legs ldan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티베트어로 '善을 갖춘'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릭단'으로 한글 표기를 통일하도록 하겠다.

2) 勒德洪 撰,『平定察哈爾方略』卷之上 (江寧 點校,「《平定察哈爾方略》」,『淸史硏究通訊』, 1986-3, p. 46), "是後林丹多行不道, 鈔戮親族, 虐害其下, 又時侵擾諸部, 人不堪命, 皆怨畔. …… 各領所屬相率來歸. 天聰六年, 太宗文皇帝親御六師往征之, 林丹大懼, 去其故駐牧地西走, 洎大兵指歸化城, 林丹見人心震動, 國勢不支, 欲率衆渡河奔土白特. 國人素苦其殘酷, 莫肯從行, 留居者十之七八, 以饑困互相劫奪, 至殺人爲食, 衆潰亂, 歸降者絡繹不絶. 林丹走至打草灘地方病死, 其妻子遂獻傳國璽, 悉衆內附."

위 기록은 청조에서 1675년 릭단의 손자 부르니가 일으킨 反淸 반란을 진압한 뒤 康熙帝의 명으로 편찬한 『平定察哈爾方略』의 첫 단락에 해당한다. 비록 이 方略은 간행되지는 않았으나, 릭단에 대하여 『淸實錄』과 『皇淸開國方略』 등으로 대표되는 청조의 관찬사서와 동일한 논조를 띠면서도 그에 대한 청조의 관점을 보다 간명하게 드러낸다.[3] 즉, 릭단의 暴虐無道함을 견디지 못한 몽골인들이 잇따라 청에 歸附하였으며, 릭단은 청 태종의 親征을 두려워한 나머지 티베트로 달아나던 도중 병사하였고, 그 후 릭단의 妻子가 傳國璽를 바치고 청에 투항했다는 것이 릭단에 대한 청조의 공식 입장이다.

청조의 서술대로 릭단이 몽골인들에게서 민심을 잃고 청군에 쫓겨 티베트로 달아났다고 한다면, 티베트 문헌에서는 릭단에 대해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 18세기 靑海 출신의 티베트 學僧 숨빠캔뽀 예셰뺄조르[4]는 그의 저서 『靑海史』(1786)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또한 그 때에 몽골 여섯 大部에 잘 알려진 法典에 [따르면] 戰時와 같은 때에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부락에서 내전이나 손에 붙든 사람(포로)을 양처럼 도살하는 따위의 악습이 없었는데, 릭단 왕과 촉투 首魁, 두 사람의 때에 그것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게다가 열한 번째 랍중[5] 흙-용해(戊辰年, 1628)부터 릭단 왕은 칭기스 칸 내부의 법전을 파괴하여 차하르에서 내전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을 죽이고 위쪽(서쪽)의 겔룩派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도우러 오는 길에 투메드와 오르도스의 몇 部를 정복하였다. 그 뒤 나무-개해(甲戌年, 1634)에 티베트의 땅 샤라탈라(시라탈라)라고 하는

3) 方略은 군사 원정사를 기록하기 위한 청대의 새로운 역사 서술 양식이다. 康熙 연간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방략은 황제의 군사상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만큼 찬술 과정에서 원자료를 고도로 취사선택하여 청조의 관점에 맞게 재구성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피터 C. 퍼듀, 『중국의 서진: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공원국 옮김, 서울: 길, 2012, 제13장 참조.

4) 숨빠캔뽀 예셰뺄조르(1704~1788)의 생애에 관해서는 Hanung Kim, “Renaissance Man From Amdo: The Life and Scholarship of the Eighteenth-Century Amdo Scholar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1704-1788),” PhD diss., Harvard University, 2018, chap. 2 참조.

5) 랍중(rab byung)은 티베트 역법에서 60년 주기를 지칭한다. 첫 번째 해는 불-토끼해(me yos)로 六十甲子의 丁卯年, 서력으로 1027년에 해당한다.

곳에 이르렀을 때, 세 法王[6]에 의하여 다섯 번째 길(冥途)로 보내졌다. 그의 두 后妃는 두 아들과 귀중한 옥새를 만주 順治[7] 대왕에게 바치고 투항했다.[8]

위 인용문에 따르면 릭단은 칭기스 일족의 법도를 무너뜨린 폭군이자 同族相殘을 자행하여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도살자, 겔룩파를 박해하려다 죽음을 맞은 원흉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겔룩파의 한 轉生 라마가 남긴 기록이기는 하지만, 인용문의 첫 문장이 겔룩파의 영수인 제5대 달라이 라마(1617～1682)의 자서전 내용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으로부터 릭단에 대한 겔룩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9] 앞서 살펴본 『平定察哈爾方略』의 기록과 비교해 보더라도 릭단이 몽골인을 함부로 죽이고 티베트로 향하던 중 시라탈라(打草灘)[10]에서 사망한 뒤, 그의 카툰과 아들이 옥새를 바치고 청에 투항했다는 대강의 줄거리는 일치한다. 다만, 릭단이 티베트로 이동한 동기와 그의 死因에 관하여 청 측에서는 청군을 두려워하여 티베트 방면으로 달아나다가 병사했다고 기록한 반면, 겔룩파 입장에서는 릭단이 겔룩파를 핍박하기 위해 티베트로 향하던 도중 佛法의 수호신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불교적 색채를 덧입혀 서술하고 있

---

6) 겔룩파의 세 수호신 dam can chos rgyal, mgon po phyag drug pa, dpal ldan dmag zor rgyal mo를 지칭한다.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The Annals of Kokonor*, trans. Ho-Chin Yang, 1969; repr., Richmond: Curzon, 1997, p. 67, n. 65.

7) 릭단의 카툰과 아들이 後金에 투항한 1635년 당시 후금의 한은 太宗 홍타이지(재위 1626～1643)로 順治帝(재위 1644～1661)는 저자의 오류이다.

8)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mtsho sngon gyi lo rgyus sogs bkod pa'i tshangs glu gsar snyan*, in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gyi gsung 'bum*, vol. 2,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1975, fol. 4a [p. 979]; Yang, *Annals of Kokonor*, pp. 13-14, 32-33.

9)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rgyal dbang lnga pa'i rang rnam du kU la'i gos bzang*, vol. 1, Kawring, H. P.: Tobdan Tsering, 1979, fol. 77a [p. 153], "전에 몽골 여섯 大部의 수령은 모두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해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악행을 저지르는 법이 없었으나, 차하르의 릭단과 촉투 둘로부터 악습의 선례가 마련되었다"; 五世達賴喇嘛阿旺洛桑嘉措, 『五世達賴喇嘛傳』 上, 陳慶英, 馬連龍, 馬林 譯,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6, p. 101.

10) 시라탈라(Šir-a Tal-a)는 몽골어로 '노란 들판'을 의미하며, 漢籍에는 大草灘, 打草灘 등으로 나온다. 오늘날 甘肅省 張掖市 民樂縣 永固鎭 일대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서는 達力扎布, 「察哈爾林丹汗病逝之"大草灘"考」, 『民族研究』, 2018-5 참조.

다.

릭단에 대한 두 인용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부터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릭단이 몽골의 여러 세력을 상대로 취한 조치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일까? 청군이 릭단을 상대로 출정한 1632년부터 릭단이 시라탈라에서 사망하는 1634년까지 릭단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릭단 사후 대칸의 정통성은 몽골인과 만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릭단을 위시한 차하르 萬戶를 중심으로 17세기 초 몽골 · 만주 · 티베트를 둘러싼 정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릭단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다얀 칸 이후 차하르 만호의 기원과 성쇠에 관한 和田淸의 논저가 있다.[11] 그는 릭단이 '西遷'한 이후 우익 몽골과 '趙城'에서 벌인 전투에서 『淸太宗實錄』이 전하는 바와 달리 실제로는 릭단이 승리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릭단이 서천한 원인에 대해서는 동쪽에 이웃한 신흥 여진의 맹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萩原淳平는 릭단과 누르하치가 교환한 국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양자 간에 明을 대하는 가치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릭단이 몽골의 정치적 통일을 위해 주체적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西進'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12] 하기와라의 연구는 明 · 淸代 漢籍을 면밀히 검토하여 릭단을 17세기 초 漢人, 여진인에 이어 몽골인을 대표하는 "제3 세력"으로 간주하고 몽골 통일이라는 야심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명이나 후금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몽골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세력과 릭단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서구 학계에서는 블라디미르초프가 할하의 촉투 홍타이지(1581～1637)

---

11) 和田淸, 「土默特趙城の戰に就いて」, 『東洋學報』 8-2, 1918; 和田淸, 「察哈爾部の變遷(上)」, 『東洋學報』 41-1, 1958; 和田淸, 「察哈爾部の變遷(下)」, 『東洋學報』 41-2, 1958. 이상 세 편의 논문은 和田淸, 『東亞史硏究(蒙古篇)』, 東京: 東洋文庫, 1959에 재수록되었다.

12) Hagiwara Junpei, "The Political Ideas of Lindan Khan," in *Proceedings of the Third East Asian Altaistic Conference, August 17-24, 1969, Taipei, China*, ed. Ch'en Chieh-hsien and Sechin Jagchid, 臺北: 國立臺灣大學, 1969; 萩原淳平, 「リクダン · カーンの生涯とその時代」, 『明代蒙古史硏究』, 京都: 同明舍, 1980.

가 남긴 碑文에 관한 연구에서 촉투가 지지했던 몽골의 군주로서 릭단을 소개한 바 있다.[13] 그는 촉투가 겔룩파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종교적 동기에서 릭단과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 겔룩파 측의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 뒤로 릭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하이시히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몽골문 연대기부터 몽골문 간주르[14] 刊記에 이르는 몽골 문헌을 섭렵하여 "몽골 최후의 대칸"으로서 릭단의 면모를 부각하였다.[15] 하이시히의 연구는 특히 종교적 측면에서 릭단의 티베트 불교 후원을 조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릭단이 1627~1628년 진행한 간주르 譯經에 대해서는 알탄 가문의 공적을 가로챈 "의도적 사기"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이후 진행된 차하르 관련 연구는 논의의 초점이 대개 릭단 이전 차하르 만호의 기원과 구성, 분포에 맞추어져 있다.[16] 릭단 재위기와 관련해서는 차하르 만호가 서천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다.[17]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청과의 대결 구도 하에서 릭단을 패배자

---

13) Б. Я. Владимирцов, "Надписи на скалах халхаского Цокту-тай джи. Статья первая," *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6 серия* 20, no. 13-14, 1926; Б. Я. Владимирцов, "Надписи на скалах халхаского Цокту-тай джи. Статья вторая," *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6 серия* 21, no. 2, 1927.

14) Mong. γanǰuur < Tib. bka′ ′gyur. 티베트어로 '[부처님의] 말씀을 옮긴 것'을 뜻하며 티베트 大藏經 중에서 佛說部를 지칭한다.

15) Walther Heissig, "The Tragedy of the Last Great Khan," chap. 5 in *A Lost Civilization: The Mongols Rediscovered*, trans. D. J. S. Thoms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66; Walther Heissig, *Die Zeit des letzten mongolischen Großkhans Ligdan (1604 - 1634)*,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79.

16) 森川哲雄, 「チャハル · 八オトクとその分封について」, 『東洋學報』 58, 1976; Hidehiro Okada, "Origin of the Čaqar Mongols," *Mongolian Studies* 14, 1991; 達力扎布, 「察哈爾部的南遷及其分布」, 『明代漠南蒙古歷史研究』, 海拉爾爾: 內蒙古文化出版社, 1997; 薄音湖, 「關於察哈爾史的若干問題」, 『蒙古史研究』 5, 1997; 寶音德力根, 「15世紀前後蒙古政局、部落諸問題研究」, 內蒙古大學 博士學位論文, 1997; 김성수, 「몽골 제국 붕괴 이후 쿠빌라이계의 활동과 그 한계」, 『몽골학』 39, 2014; 寶音初古拉, 『察哈爾萬戶研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19.

17) 王雄, 「察哈爾西遷的有關問題」,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9-1; 達力扎布, 「有關察哈爾部西遷的若干問題」, 『淸史研究』, 1997-4; 希都日古, 「試論林丹汗西征的後果及其敗亡」, 『內蒙古社會科學』, 1999-2.

로 규정짓고, 차하르에 대한 청의 정복 과정이나 릭단의 패망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18]

릭단에 관한 논의가 주로 청조의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청조에서 릭단과 그로부터 이탈하여 청 측에 귀부한 몽골인에 관하여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7세기 초 後金의 기록은 청조 성립 이후 편수 과정에서 첨삭되거나 윤색된 부분이 적지 않은 데다 여러 차례에 걸쳐 改修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독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몽골문·만주문 檔案 원문을 대조하여 청조의 改竄에 의한 기록 조작을 폭로하거나 번역·전승 과정에서의 오류를 지적하여 역사적 실상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9] 또한 『明朝檔案』

---

18) 松村潤, 「天聰九年のチャハル征討をめぐる諸問題」, 『清朝と東アジア: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編纂委員會 編, 東京: 山川出版社, 1992; 戴鴻義, 「論林丹汗的敗亡」, 『社會科學輯刊』, 1992-5; 노기식, 「홍타이지의 反릭단 滿蒙聯盟 확대와 이용」, 『中國學論叢』 13, 2000; 노기식, 「만주의 몽골 차하르부 병합과 그 의미」, 『中國學論叢』 14, 2001; 조병학, 「後金의 察哈爾 복속 과정 연구」, 『몽골학』 12, 2002; Nicola Di Cosmo, "Military Aspects of the Manchu Wars against the Čaqars," in *Warfare in Inner Asian History (500-1800)*, ed. Nicola Di Cosmo, Leiden; Boston: Brill, 2002; Nicola Di Cosmo, "Competing strategies of Great Khan Legitimacy in the Context of the Chaqar-Manchu Wars (*c.* 1620-1634)," in *Imperial Statecraft: Political Forms and Techniques of Governance in Inner Asia, Sixth-Twentieth Centuries*, ed. David Sneath, Bellingham, WA: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for Mongolia and Inner Asia Studies Unit, University of Cambridge, 2006; 楊强, 「論林丹汗的敗亡」, 『大連民族學院學報』, 2010-2; 樊志强, 「林丹汗敗亡原因探析: 以林丹汗個人及蒙古內部因素爲中心」, 內蒙古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이선애, 「滿文史料를 통해 본 後金시기 滿·蒙 관계」, 『明淸史硏究』 49, 2018; 梅山直也, 「清初におけるホンタイジの對チャハル政策」, 『內陸アジア史硏究』 34, 2019.

19) 청조에서 편찬한 관찬사서 기록과 대조·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17세기 초 만주문·몽골문 檔案으로는 國立故宮博物院 編, 『舊滿洲檔』 (全10冊),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과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李保文 編, *Arban doluduγar ǰaγun-u emün-e qaγas-tu qolboγdaqu mongγol üsüg-ün bičig debter*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1600-1650』, 通遼: 內蒙古少年兒童出版社, 1997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가필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원문 복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를 활용하여 만주-몽골 관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Michael Weiers, "Das Verhältnis des Ligdan Khan zu seinen Völkerschaften," in *Serta Tibeto-Mongolica: Festschrift für Walther Heissig zum 60. Geburtstag am 5.12.1973*, ed. Rudolf Kaschewsky, Klaus Sagaster, and Michael Weier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3; 齊木德道爾吉, 「外喀爾喀車臣汗碩壘的兩封

가운데 宣府·大同 방면에서 몽골인의 동향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여 兵部에 보고한 공문서나, 러시아와 할하 간에 주고받은 외교 문서도 청조 관찬사서의 편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20] 여기에 실린 릭단 관련 정보 중에는 傳聞에 의거하여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두 자료 모두 청조 사서에 비해 왜곡의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청조에서 기록하지 않은 릭단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16세기 말 몽골에서 티베트 불교가 부흥함에 따라 佛經의 몽골어 번역과 더불어 몽골문 연대기도 새롭게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전하는 몽골문 연대기는 대다수가 차하르와 경쟁 관계에 있던 투메드·오르도스·할하 지배층의 입장에서 저술되었기 때문에 차하르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21] 18세기 몽골문 연대기 저자 가운데 곰보잡이 차하르계 우줌친 왕가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가 저술한 『恒河之流』

信及其流傳」,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4-4; 烏雲畢力格, 「史料的二分法及其意義: 以所謂的“趙城之戰”的相關史料爲例」, 『淸史硏究』, 2002-1; Nicola Di Cosmo and Dalizhabu Bao,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A Documentary History*, Leiden; Boston: Brill, 2003; 齊木德道爾吉, 「天聰六年愛新國大軍征略庫庫和屯史實解讀(一): 以《滿文原檔》爲中心」,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4; 齊木德道爾吉, 「天聰六年愛新國大軍征略庫庫和屯史實解讀(二): 以《滿文原檔》爲中心」,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5; 姑茹瑪, 「1620～30年代にハルハ・セツェン・ハーン部に服屬した漠南モンゴル諸部」, 『日本とモンゴル』 51-1, 2016 등이 있다. 淸初 관찬사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몽골문 당안에 대한 소개는 김성수, 「17世紀初 滿蒙 關係와 內陸 아시아: 만주-호르친·몽골 관계를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82, 2013, pp. 62-64 참조.

20) 中國第一歷史檔案館,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明朝檔案總匯』 (全101冊),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1;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編, 『明淸史料』 甲-丁編, 上海: 商務印書館, 1930-1951; Л. М. Гатауллина et al., eds., *Рус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1607-1636: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9. 이를 활용한 릭단 관련 연구로는 烏雲畢力格, 「明朝兵部檔案中有關林丹汗與察哈爾的史料」, 『十七世紀蒙古史論考』,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9; 姑茹瑪, 「17世紀20～30年代喀爾喀蒙古與沙俄的關系: 以林丹汗西遷爲中心」,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2019-4 등이 있다.

21) 김성수, 「17～18세기 몽골의 동아시아 인식과 대외정책」, 『중국 없는 중화』,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인천: 인하대학교출판부, 2009, pp. 60-61. 17세기를 대표하는 몽골문 연대기로는 『알탄 칸傳』(1607년경으로 추정, 투메드계), 『蒙古源流』(1662, 오르도스계), 『아사락치史』(1677, 할하계) 등이 있다.

(1725)는 칭기스 칸의 선조부터 릭단에 이르는 칸들의 계보와 몽골 諸部의 근원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어 릭단 시기 차하르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2] 한편, 티베트 문헌은 世俗史 서술이 비교적 소략한 데다 그마저도 불교의 緣起說이나 설화적 요소가 짙게 배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왕통을 명기한 부분에서 릭단의 재위기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만, 18세기 이후 티베트문으로 몽골사를 기록한 저자 중에는 릭단과 적대하였던 몽골 출신의 지식인이거나 호쇼드의 오이라드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암도 출신의 겔룩파 불교도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23]

본고는 상술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릭단에 대한 청조와 겔룩파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차하르 측에서 남긴 기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시 릭단이 주변 세력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24] 17세기 초만 하더라도 몽골 내에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명이나 후금뿐 아니라 티베트의 여러 종파와도 개별적으로 교류하였다. 당시 차하르와 그 주변 세력 간에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주와 몽골, 겔룩파와 非겔룩파라는 이분법적인 대

---

22) 곰보잡은 티베트문으로 저술한 『漢地佛教史』(1736)에서 칭기스 칸에서 릭단에 이르는 몽골의 왕통을 서술한 다음, 몽골의 왕족들이 康熙帝의 가없는 은혜 덕분에 각자 部를 이루어 번영과 행복을 누린다고 찬양하고 있다. mgon po skyabs, *rgya nag chos 'byung*, 羅桑旦增 譯,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5, pp. 37, 213-214. 이는 漠南 몽골 귀족에 대한 청조의 지배 구조가 정착된 18세기 이후로는 몽골인에 의한 역사 서술이라 하더라도 청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23) 티베트문으로 몽골의 역사를 기록한 17~19세기 저작에 관해서는 Sh. Bira, *Mongolian Historical Literature of the XVII-XIX Centuries Written in Tibetan*, ed. Ts. Damdinsüren, trans. Stanley N. Frye, Bloomington, Ind.: The Mongolia Society; The Tibet Society, 1970 참조.

24) 릭단의 재위기에 차하르에서 남긴 기록 가운데 이른바 '릭단 칸 碑文'(1626)과 몽골문 간주르의 刊記가 현재까지 전해진다. А. Позднеев, *Монголия и монголы: Результаты поездки в Монголию, исполненной в 1892-1893 гг.*, vol. 2, С.-Петербург: Типография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1898; З. К. Касьяненко, *Кат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рукописного "Ганджура"*, Москва: Наука, 1993.

립구도를 탈피하여 몽골 내부의 분열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선 Ⅰ장에서는 다얀 칸 이후 몽골의 좌·우익이 대립해 온 역사적 배경과 대칸의 위상이 실추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Ⅱ장에서는 릭단이 즉위 후 대칸으로서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종교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취하였는지를 분석하겠다. Ⅲ장에서는 릭단이 우익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후흐호트를 거점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했던 그의 의도를 파악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릭단의 興安嶺 이북 원정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1634년 릭단이 靑海 방면으로 이동한 동기를 할하의 촉투 홍타이지와의 관계 속에서 유추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릭단 사후 대칸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만주와 몽골의 경쟁 양상을 검토하여 릭단의 죽음이 후대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청조와 겔룩파 측의 관점에 따라 부정 일변도로 평가되어 온 릭단의 실체와 그의 정치적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 세력이 각축을 벌이던 17세기 초 동부유라시아의 역사를 몽골 제국 이후 대칸의 계보를 이어온 차하르를 중심에 두고 조망한다면, 만주-겔룩파 패권이 공고해지기 이전의 무질서한 과도기라는 결과론적 인식에서 벗어나 全몽골에 대한 통합의 움직임이 일어나던 이 시기의 역동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다얀 사후 몽골의 정국과 대칸의 위상

시해와 찬탈로 점철된 15세기 몽골의 혼란기를 종식시키고 칭기스 가문을 중흥시켰다고 평가받는 인물은 바투 뭉케 다얀 칸이다.[25] 9년간의 공위기를 거쳐 1475년 칸으로 추대된 만두굴이 재위 5년 만에 후사 없이 사망하자, 섭정을 맡은 만두하이 카툰은 칭기스 칸의 직계 혈통을 중시하는 몽골의 전통에 따라 만두굴의 從曾孫인 바투 뭉케와 혼인하여 그를 칸으로 옹립하였다. 『蒙古源流』에 따르면 만두하이는 바투 뭉케에게 "大元 울루스를 지배할지어다!"라고 하며 "다얀(大元)[26] 칸"이라 칭하게 하고 에시 카툰[27]의 사당 앞에서 그를 칸位에 앉혔다고 한다.[28]

다얀 칸은 즉위 후 만두굴이 관할하던 차하르 만호를 상속하여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았다. 다얀 칸은 만두하이와의 사이에서 일곱 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둘째 울루스 볼라드를 지농[29]으로 삼아 칭

---

25) 다얀 칸의 생몰년과 즉위년은 몽골문 연대기마다 상이하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설이 분분하다.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얀 칸이 7세에 즉위하여 붉은 소해(丁丑年, 1517)에 44세로 사망했다는 『알탄 칸傳』의 기록과 7세인 돼지해(己亥年으로 추정할 경우 1479)에 즉위하여 37년간 재위하고 44세에 사망했다는 롭상단진의 『黃金史』 기록에 근거하여 1474년 출생, 1480년 즉위, 1517년 사망한 것으로 잠정하겠다.

26) dayun～dayan과 大元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森川哲雄, 「大元の記憶」, 『比較社會文化』 14, 2008, pp. 68-71 참조.

27) 에시 카툰은 칭기스 칸의 며느리인 소르칵타니 베키를 가리킨다. 차하르에서는 쿠빌라이의 모친이기도 한 에시 카툰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다. Hidehiro Okada, "The Chakhar Shrine of Eshi Khatun," in *Aspects of Altaic Civilization III: Proceedings of the Thirtieth Meeting of the Permanent International Altaistic Conference,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diana, June 19-25, 1987*, ed. Denis Sinor, 1990; repr., Richmond: Curzon, 1997, pp. 176-186.

28) Erich Haenisch, ed., *Eine Urga-Handschrift des mongolischen Geschichtswerks von Secen Sagang (alias Sanang Secen)*, Berlin: Akademie-Verlag, 1955, fol. 62v.

29) 지농(jinong) 칭호의 기원에 대해서는 至元 29년(1292) 쿠빌라이가 손자 카말라를 '晉王'에 봉하여 칭기스 칸의 四大 오르도와 군마, 몽골 국토를 統領하게 한 데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岡田英弘, 「ダヤン・ハーンの六萬戶の起

기스 칸의 靈廟인 八白室에 제를 올리고 공물을 징수하는 역할을 위임해 오르도스 · 융시예부 · 투메드로 대별되는 우익 세 만호로 파견하였다. 그런데 다얀 칸의 영향력 확대에 반발한 우익의 일부 영주가 공모하여 울루스 볼라드를 살해하자, 다얀 칸은 1510년 차하르 · 할하 · 우량한으로 이루어진 좌익 세 만호와 아바가 · 호르친의 연합군을 이끌고 출정하여 달란 테리군[30]에서 우익 세 만호를 제압하고 칭기스 가문의 우위를 되찾았다.[31]

『黃金史』는 달란 테리군 전투에서 다얀 칸 편에 섰던 호르친의 옹[王]이 마치 후환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우익을 분할해서 하라친 · 융시예부를 호르친에, 오르도스를 차하르에, 투메드를 할하에 각각 합병시킬 것을 다얀 칸에게 제안하였다고 전한다.[32] 그러나 다얀 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셋째 아들 바르수 볼라드를 지농으로 삼아 우익 세 만호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다얀 칸은 다른 아들들에게도 좌 · 우익의 만호를 분봉함으로써 칭기스 가문인 "보르지긴의 황금 씨족"에 의한 몽골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33] 그러나 이후 벌어진 좌익과 우익의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면 다얀 칸이 세운 이른바 '여섯 만호 체제'는 대칸을 정점으로

源」, 『東洋史論叢: 榎博士還曆記念』, 榎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編纂委員會 編, 東京: 山川出版社, 1975, p. 134; Gombojab Hangin, "The Mongolian Titles ǰinong and Sigeǰi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0, no. 3, 1980, pp. 259-260.

30) 달란 테리군(Dalan Terigün)의 위치를 주룽가는 후흐호트 북쪽의 大青山으로 추정하였으나, 울란은 오늘날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市 오톡旗 동북쪽에 위치한 달란투루村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珠榮嘎 譯注, 『阿勒坦汗傳』,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0, p. 26, n. 2; 烏蘭, 『《蒙古源流》研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0, p. 384, n. 23.

31) 다얀 칸이 우익 세 만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달란 테리군 전투는 全몽골에 대한 칭기스 가문의 지배권 회복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알탄 칸傳』 · 『黃金史』 · 『蒙古源流』 등에서 모두 전하고 있으나, 그 배경 및 경과와 관련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Hidehiro Okada, "Dayan Khan in the Battle of Dalan Terigün," in *Gedanke und Wirkung: Festschrift zum 90. Geburtstag von Nikolaus Poppe*, ed. Walther Heissig and Klaus Sagaster,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9, pp. 262-270.

32) 저자 미상, 『역주 몽골 황금사』, 김장구 역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4, pp. 145-146.

33) 吉田順一 他 共譯注,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東京: 風間書房, 1998, p. 116.

하는 강력한 정치적 통일체라기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에 가까웠다.

좌·우익 간의 갈등은 다얀 칸 사후 칸위 계승을 둘러싸고 표면으로 불거져 나왔다. 『蒙古源流』에 의하면 다얀 칸은 우익 세 만호를 굴복시킨 뒤 칭기스 칸의 八白室 앞에서 새롭게 칸 칭호를 취한 다음, 칸위는 적장손인 보디가 잇도록 하고 지농에는 셋째 아들 바르수 볼라드를 임명하여 우익 세 만호의 통치를 맡겼다고 한다.[34] 그러나 『蒙古源流』를 제외한 다른 몽골문 연대기들은 다얀 칸이 세상을 떠난 뒤 칸의 자리가 곧바로 보디에게 돌아가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바르수 볼라드의 후손이 지배하던 우익 투메드 계열의 몽골문 연대기 『알탄 칸傳』은 주어를 생략한 채 다얀 칸 사후 "바르수 볼라드를 칸위에 앉혔다"라고 기록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만 서술하여 바르수 볼라드가 다얀 칸의 뒤를 이어 즉위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35] 반면에 『黃金史』는 보디가 어리다고 하여 숙부인 바르수 볼라드가 칸위에 올랐으며, 후에 보디가 좌익 세 만호를 이끌고 八白室 앞에서 바르수 볼라드를 굴복시키고 나서 칸으로 즉위하였다고 전하고 있다.[36] 차하르계 몽골문 연대기 『恒河之流』에서는 보디가 어리다는 이유로 바르수 볼라드가 칸으로 즉위하였으나 한 달 만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동생 아르수 볼라드가 집권을 획책하기에 이르자 좌익 세 만호가 출병하여 그를 몰아내고 나서야 마침내 보디가 칸으로 즉위하였다고 한다.[37] 위 세 편의 연대기와 달리 『蒙古源流』에는 바르수 볼라드가 칸으로 즉위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38] 하지만 보디가 칸으로 즉위한 뒤, 우익을 습격해서 분산시키자는 호르친의 바투르의 제안에 동의하였다고 전하고 있어 다얀 사후 칸위 계승 과정에서 좌·우익

---

34) 岡田英弘 譯注, 『蒙古源流』, 東京: 刀水書房, 2004, p. 236.
35)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 119.
36) 김장구, 『몽골 황금사』, pp. 146-147.
37) 鳳曉, 「《恒河之流》研究」, 內蒙古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p. 65.
38) 이에 대해 와다는 바르수 볼라드의 후손인 『蒙古源流』의 저자 사강 세첸이 선조의 칸위 찬탈을 은폐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았다. 和田淸, 『東亞史研究(蒙古篇)』, p. 524.

간의 알력이 극심하였음을 시사한다.[39]

『黃金史』와 『恒河之流』에 따르면 바르수 볼라드가 칸으로 즉위한 이유는 보디가 어리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다얀 칸의 아들 중에서 비교적 일찍 사망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제외할 경우, 바르수 볼라드가 가장 연장자였다는 점은 그의 칸위 계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다얀 이전에 지농이 칸위 계승을 주장하였던 선례를 감안했을 때, 후계 구도에서 바르수 볼라드 지농이 유력한 후보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40]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보디 이후 다얀의 宗家에서 칸위를 계승함에 따라 바르수 볼라드의 칸 등극은 후대에 찬탈로 간주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칸으로 즉위한 보디는 우량한의 노얀들이 자신의 속민과 게르를 약탈하자 1538년 좌·우익을 동원하여 이들을 굴복시킨 뒤, 우량한 만호를 해체하여 나머지 다섯 만호에 분속시켰다.[41] 이때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보디는 칭기스 칸의 八白室 앞에서 성대한 회맹을 개최하여 모든 국인들로부터 존호를 받고, 바르수 볼라드의 두 아들 군 빌릭과 알탄에게도 각각 봉호를 내려 우익의 공로를 치하하였다.[42] 『蒙古

---

39) 보디의 우익 병탄 계획은 그의 모친이 다얀 칸의 遺旨를 상기시키며 만류한 끝에 중단되었다고 한다. 岡田英弘, 『蒙古源流』, pp. 240-241. 호르친의 바투르의 우익 병탄 제안은 『黃金史』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보디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장구, 『몽골 황금사』, p. 147.

40) 오카다는 다얀 칸의 증조부인 악바르지 지농과 다얀 칸의 부친인 바얀 뭉케 볼후 지농이 각각 칸위에 올랐다고 보고, 『蒙古源流』에서는 이를 도리에 어긋난 행위로 기록하거나 숨겼다고 판단하였으며 저자인 사강 세첸이 지농의 칸 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Hidehiro Okada, "The Ordos Jinong in Erdeni-yin Tobči,"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27, 1984, pp. 158-161. 김성수는 1323년 晉王 이순 테무르가 泰定帝로 즉위한 사례를 들어 지농이 칸위 후계 구도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김성수, 「쿠빌라이계의 활동과 그 한계」, pp. 50-51.

41)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p. 123-124. 좌·우익의 우량한 정벌을 『蒙古源流』에서는 다얀 칸 때의 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부얀쿠는 『알탄 칸傳』의 기록과 『萬曆武功錄』 및 『譯語』의 기록을 대조하여 이 사건이 보디 재위기인 1538년에 이루어졌음을 논증하였다. 薄音湖, 「俺答汗征兀良哈史實」, 『紀念校慶二十五周年學術論文集: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專利』, 1982, pp. 102-103.

42)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p. 124-125. 『알탄 칸傳』은 보디가 국인들에게서 받은 존호를 "쿠뎅 칸"으로, 보디가 군 빌릭과 알탄에게 하사한 칭호를 각각 "메르겐 지농"과 "수투(suu-tu, '洪福을 지닌'이란 뜻)"라고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몽골문 연대기에서는 '쿠뎅 칸'을 보디의 맏아들 다라이순의

源流』에 따르면 알탄에 대한 칭호 수여는 알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때 알탄은 대칸을 “玉座의 主”로 칭하며 자신에게 “小칸들의 칭호”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다고 한다.[43] 비록 명목상의 칭호라고 하더라도 대칸과 알탄 사이에는 명확한 위계질서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알탄은 1542년 자신의 형인 군 빌릭 메르겐 지농이 사망한 뒤로도 활발한 정복전을 전개하여 다얀 일족의 숙적이었던 부라하이 타이시를 굴복시키고 青海·甘肅 일대를 평정하였다. 『알탄 칸傳』에 따르면 알탄이 개선하여 보디에게 승전을 고하자 보디는 여섯 만호가 八白室 앞에 모인 자리에서 그에게 “투시예투 세첸 칸”의 칭호를 하사하였다고 한다.[44] 이 사건은 메르겐 지농 사후 우익 몽골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행세하던 알탄이 西征에서 세운 공적을 명분으로 보디에게 지농보다 서열이 높은 칸 칭호를 요구하여 관철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때 알탄이 받은 칸號는 보디를 비롯한 여섯 만호에 의해 내려진 것이었던 만큼 대칸의 권위를 뛰어넘는 칭호는 아니었다.[45] 이처럼 보디는 좌·우익을 소집한 자리에서 칭기스 칸의 권위를 빌려 알탄에게 칭호를 수여함으로써 그가 우익의 실력자임을 인정하는 한편, 황금 씨족에 의한 여섯 만호 지배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46]

칸號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보디의 칸호였던 ‘쿠뎅 칸’을 다라이순이 그대로 계승했을 가능성도 있는 데다, 다라이순 시기에 이미 좌·우익 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보디 때의 일로 전한 『알탄 칸傳』의 기록이 당시 몽골의 실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薄音湖, 「俺答汗征兀良哈史實」, p. 104.

43) 『蒙古源流』에서는 이 사건을 보디가 아니라 다라이순 때의 일로 전하고 있으며, 알탄이 받은 칭호도 Urga本에서는 šitau qan, 武英殿本에서는 sutu qaɣan 등으로 기록하여 諸本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Haenisch, *Urga-Handschrift*, fol. 67v; Erich Haenisch, ed., *Der Kienlung-Druck des mongolischen Geschichtswerkes Erdeni yin Tobci von Saǵang Secen*,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1959, fol. Ⅵ, 15b [p. 178].

44)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 127. 이 기록은 한문사료는 물론이고 『알탄 칸傳』 이외의 몽골문 연대기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메르겐 지농 사후 알탄이 주도하는 우익 몽골의 세력 확장을 고려하였을 때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永井匠, 「アルタン・ハーンのハーン号について」,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別冊: 哲學·史學編』 18, 1991, p. 130.

45) 永井匠, 「アルタン・ハーンのハーン号について」, p. 131.

하지만 알탄의 위세는 날로 강성해져 우익을 대표하는 지농은 물론이고 여섯 만호의 宗主인 대칸의 권위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6세기 중엽 알탄을 위시한 우익의 세력 팽창에 밀려나 좌익의 차하르 만호와 할하 만호의 일부[47]는 牧營地를 시라무렌 방면으로 옮겼다.[48] 『蒙古源流』는 보디 사후에 그의 맏아들 다라이순이 八白室 앞에서 칸 칭호를 취하고 우익 세 만호와 화의를 맺었다고 전하고 있다.[49] 그러나 차하르 만호가 시라무렌 방면으로 쫓겨난 상황을 고려한다면, 『蒙古源流』의 기술은 여섯 만호의 종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익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대칸의 처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차하르를 중심으로 한 좌익과 투메드를 중심으로 한 우익 간의 첨예한 대립은 다라이순의 맏아들 투멘이 칸으로 즉위한 뒤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1571년 알탄이 明과의 오랜 대치 끝에 通貢互市를 재개하고 明朝로부터 順義王 칭호를 획득한 이래로 對明 관계에서도 우익이 이권을 선점하였다.[50] 차하르에서는 시라무렌 방면으로 근거지를 옮긴 뒤로 다라이

---

46) 김성수, 「17세기 '할하(Qalq-a) 중심론'의 형성과 티벳불교」, 『中央아시아硏究』 7, 2002, pp. 32-33.

47) 할하 만호 가운데 다얀 칸의 아들 알추 볼라드가 이끄는 세력은 16세기 중엽 시라무렌 방면으로 이동한 뒤 그 후손들에 의해 나누어져 '다섯 오톡 할하'로 불리는데, 자루드 · 바린 · 홍기라드 · 바유드 · 우지예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Siregetü Guosi Dharma, *Altan kürdün mingyan gegesütü bičig: eine mongolische Chronik*, ed. Walther Heissig, Kopenhagen: Ejnar Munksgaard, 1958, fol. Ⅳ, 9v [p. 61]. 한편, 할하 만호 가운데 다얀 칸의 아들 게레센제가 이끄는 세력은 漠北의 몽골고원을 근거지로 삼아 후에 '일곱 오톡(또는 호쇼) 할하' 또는 '아루(北)의 할하'라고 불렸는데, 앞으로 이에 한해서는 편의상 할하로 지칭하겠다.

48) 차하르 만호의 이동 시기에 대하여 달리잡은 대략 嘉靖(1522~1566) 중기에 시작해서 嘉靖 말년에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達力扎布, 『明代漠南蒙古歷史硏究』, pp. 108-118.

49) 다라이순의 즉위 연도에 대해서 『蒙古源流』는 戊申年(1548)이라고 기록한 반면, 『黃金史』는 돼지해(1551)로 기록하고 있다. 岡田英弘, 『蒙古源流』, pp. 243-244; Ш. Чой маа, *Хаадын үндсэн хураангуй Алтан товч*, ed. М. Баярсай хан,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 н үсэг, 2011, fol. 80b-81a [pp. 293-294]..

50) 1551년 宣大督撫 蘇祐는 알탄이 명에 '求貢'하는 네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명의 관작과 의복을 얻어 몽골 諸部에 뽐내고 자신보다 위에 있는 小王子, 즉 다라이순과 雄長을 겨루고 싶어 하는 알탄의 욕망을 꼽은 바 있다. 蘇祐, 「接報夷情疏」, 『明經世文編』(北京: 中華書局, 1962) 卷216, p. 2257, "虜中小王子者, 俺荅之姪也. 俺荅桀驁, 鈐制漠北諸部落, 漸不聽小王子約束. 然亦一部落之雄耳. 而猶有其姪壓于其上. 乃陰慕東夷朶顏等衛, 歸順內附, 官爵之顯榮, 衣服之華麗. 意望我皇上比例加

순 때부터 薊遼 일대를 공략하며 명에 교역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익과 달리 좌익에서는 명을 상대로 한 군사 전략이 통하지 않자, 투멘은 명조에 사신을 보내 알탄과 자신에 대한 처우가 다른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우익의 알탄을 견제하였다.[51]

『蒙古源流』에 따르면 투멘은 여섯 만호를 소집하여 차하르에 나무타이 홍타이지, 할하에 우이젱 수부하이, 오르도스에 후툭타이 세첸 홍타이지, 아수드에 놈다라 홀라치 노얀, 투메드에 나무타이 추루케 홍타이지가 각각 집정하도록 하고 大法令을 선포함으로써 "자삭투 칸"으로 알려졌다고 한다.[52] 투메드의 집정으로 알탄의 장손 추루케가 언급된 것으로 볼 때, 이는 알탄 사후 몽골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53] 하지만 투멘은 사실상 각 만호의 실권자를 추인한 것에 불과하여 알탄 사후 대칸이 곧바로 여섯 만호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다. 선대 칸들과 달리 투멘 때부터는 八白室 앞에서 칸으로 즉위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도 여섯 만호의 종주로서 대칸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54]

한편, 몽골 제국기 이후로 대칸이 티베트 불교에 귀의하였다고 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투멘의 재위기에 등장한다. 『蒙古源流』에 따르면 투멘은 1576년 "허리칼을 찬 가르마 라마"와 회견하고 佛法에 귀의하였다고 한다.[55] 단순히 사건 발생 연도만 놓고 본다면 1578년 알탄과 소남 갸초의 회견에 비해 2년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탄은 1571년 아싱 라마에게서 설법은 들은 뒤로 대뿡寺로 사절을 보내 소남 갸초와의 회견을 추진하고 있었다.[56] 따라서 차하르를 관할하던 대칸이 지리

授, 於焉誇耀于諸部落中, 而欲與小王子爭雄長. 此慕名者, 又其一也."

51) 瞿九思 撰, 『萬曆武功錄』 (臺北: 廣文書局, 1972) 卷10, 「土蠻列傳」 上, p. 120, "久之, 使夷使莽惠來告, 以爲安灘, 故阿蠻部夷, 今迺得王封, 佩金印大如斗, 他豈不漢子, 而土蠻老婆乎."

52) Sanang Sečen, *Qad-un ündüsün-ü Erdeni-yin tobči*,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62, fol. 68r [p. 135].

53) Okada, "Origin of the Čaqar Mongols," p. 166.

54) 김성수, 「쿠빌라이계의 활동과 그 한계」, p. 57.

55) 岡田英弘, 『蒙古源流』, p. 244.

56)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p. 142-143. 『제3대 달라이 라마傳』도 아셍 라마가 알탄을 찾아와 설법한 때를 쇠-양해(辛未年, 1571)로 기록하고

적으로도 티베트와 더 가까운 우익의 수장들에 비해 일찍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57]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투멘과 알탄이 불교에 귀의한 시기보다는 양자가 각각 관계를 맺었던 티베트 불교 종파이다. 우선, 투멘에게 佛法을 전해준 라마는 "가르마 라마"라는 명칭에서 보이듯이, 까르마파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 제국 시기 대칸과 까르마파 고승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투멘과 까르마파 라마의 만남은 그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58] 반면에 알탄이 초청한 소남 갸초는 몽골 제국 붕괴 후에 출현한 신흥 겔룩파의 고승이었다. 당시 중앙 티베트의 위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겔룩파는 짱 지방의 지배 세력과 결탁한 까르마파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세속 권력으로부터의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59] 따라서 알탄과 소남 갸초의 회견은 종교적 권위를 빌려 傍系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우익 몽골과 정치적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 했던 겔룩파 양측 간의 영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멘이 까르마파와 먼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결코 겔룩파에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다. 소남 갸초, 즉 제3대 달라이 라마가 1586년 후흐호트에 당도하자 투멘은 나무타이 홍타이지를 파견하여 달라이 라마에

있어 『알탄 칸傳』의 기록과 일치한다.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rje btsun thams cad mkhyen pa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dngos grub rgya mtsho'i shing rta*, Dolanji H.P.: Tashi Dorje, 1982, fol. 88b [p. 176]; 五世達賴喇嘛阿旺洛桑嘉措, 『一世-四世達賴喇嘛傳』, 陳慶英, 馬連龍 譯,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6, p. 225.

57) 『蒙古源流』는 군 빌릭 메르겐 지농의 손자이자 사강 세첸의 증조부이기도 한 후툭타이 세첸 홍타이지(1540~1586)가 1566년 동북 티베트에 원정하여 세 명의 라마를 데리고 돌아온 뒤로 佛法을 존숭하였다고 전한다. 岡田英弘, 『蒙古源流』, pp. 257-259.

58) 喬吉, 『蒙古佛教史: 北元時期(1368-1634)』,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8, pp. 177-178. 몽골 제국기 대칸과 까르마派 고승의 관계는 1256년 뭉케와 까르마 박시(제2대 까르마빠, 1204~1283)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쿠빌라이의 집권 이후 한동안 소원해진 양자의 관계는 1331년 툭 테무르가 까르마 박시의 전생자인 랑중 도르제(제3대 까르마빠, 1284~1339)에게 聖旨를 보내 초빙을 추진하면서 점차 회복되었고, 1360년 토곤 테무르와 뢸빼 도르제(제4대 까르마빠, 1340~1383)의 회견으로까지 이어졌다.

59) Giuseppe Tucci, *Tibetan Painted Scrolls*, vol. 1, Roma: Libreria dello Stato, 1949, p. 46.

게 각종 예물을 바치고 그를 차하르로 초청하였다.[60] 그러나 1588년 달라이 라마가 圓寂함에 따라 투멘과 달라이 라마의 회견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겔룩파의 本寺인 대뿡사에서는 우익 몽골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소남 갸초가 遷化한 이듬해 태어난 알탄의 증손을 그의 轉生으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투멘은 1592년 재차 사절단을 파견하여 투메드 출신의 제4대 달라이 라마를 알현하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였다.[61] 이처럼 투멘이 종파를 가리지 않고 티베트 고승들을 초청하고자 한 것은 몽골 제국 시기 대칸이 다양한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로부터 영적 축복을 받았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멘은 티베트 불교의 施主로서 알탄 가문을 능가하는 지위를 확립하지는 못하였다.

대칸이 티베트 불교를 후원하던 몽골 제국기의 전통을 부활시키고자 했던 투멘과 달리, 개별 만호의 수장들은 자신의 정권 독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티베트 불교를 활용하였다.[62] 1578년 青海 호반의 찹치얄에서 이루어진 회견에서 알탄이 소남 갸초에게 “달라이 라마 持金剛”이라는 존호를 바치고, 소남 갸초로부터 “法王大梵天”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래로 몽골의 수장들은 앞다투어 달라이 라마를 알현하고 그로부터 ‘칸’ 칭호를 받기 시작하였다.[63] 알탄 사후 그의 맏아들인 셍게 두렝은 달라이 라마를 후흐호트로 초청하였다.[64] 달라이 라마는 자신을 영접하러 온

---

60) 岡田英弘, 『蒙古源流』, p. 291;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fol. 104b [p. 208]; 五世達賴喇嘛, 『三世達賴喇嘛傳』, p. 247.

61)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jig rten dbang phyug thams cad mkhyen pa yon tan rgya mtsho dpal bzang po'i rnam par thar pa nor bu'i 'phreng ba*, Dolanji H.P.: Tashi Dorje, 1982, fol. 14a-14b [pp. 245-246]; 五世達賴喇嘛, 『四世達賴喇嘛傳』, pp. 269-270.

62) 투메드와 할하에서 이른바 ‘차하르 정통론’을 극복하기 위해 티베트 불교를 활용하였던 양상에 대해서는 김성수, 「17세기 ‘할하 중심론’의 형성」, pp. 39-43 참조.

63)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fol. 97a [p. 193]; 五世達賴喇嘛, 『三世達賴喇嘛傳』, p. 238. 소남 갸초가 알탄에게 준 칭호를 『알탄 칸傳』은 “梵天이자 커다란 힘의 바퀴를 굴리는 法王”으로, 『蒙古源流』는 “천 개의 金輪을 굴리는 轉輪王 세첸 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 165; Haenisch, *Urga- Handschrift*, fol. 77v.

64)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p. 182-183.

오르도스의 보쇽투 지농을 “몽골 40大部의 白室의 主 지농 칸”으로 칭하며 그에게 灌頂을 주었다.[65] 할하의 아바타이도 직접 후흐호트로 찾아가 달라이 라마를 배알하고 그에게서 “와치르(金剛) 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66] 『蒙古源流』는 달라이 라마의 말을 통해 이때 아바타이가 칸 칭호를 받는 것이 몽골 정권에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모종의 예언처럼 전하고 있다.[67] 훗날 “이 시기에 우리 몽골의 땅에는 칸이라 칭하는 많은 노얀들이 있었다”라고 한 『수정 거울』(1834~1837)의 저자 짐바도르지의 논평은 ‘칸’이 난립하는 당시 몽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68]

---

65)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fol. 103b [p. 206]; 五世達賴喇嘛, 『三世達賴喇嘛傳』, p. 246. 보쇽투 지농이 달라이 라마를 영접하고 灌頂을 받은 사건은 『蒙古源流』에서도 기록하고 있다. 岡田英弘, 『蒙古源流』, p. 285.

66)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 188.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fol. 104b [p. 208]; 五世達賴喇嘛, 『三世達賴喇嘛傳』, p. 247. 아바타이와 달라이 라마의 회견에 대해서는 할하계 몽골문 연대기인 『아사락치史』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烏雲畢力格, 『《阿薩喇克其史》研究』,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9, p. 133.

67) 岡田英弘, 『蒙古源流』, p. 289.

68) ǰimbadorǰi, *Bolur toli: Spiegel aus Bergkristal*, ed. Walther Heissig, Kopenhagen: Ejnar Munksgaard, 1962, MS. Mong. 350, fol. 54r.

Ⅱ. 릭단의 대칸 즉위와 중앙집권화

릭단은 투멘이 사망한 1592년 그의 증손으로 태어났다. 투멘의 맏아들로 칸위를 물려받았던 부얀이 1603년 세상을 떠나자, 릭단은 부얀 생전에 사망한 부친을 대신하여 이듬해 불과 열세 살의 나이에 칸으로 즉위하였다.[69] 부얀에서 릭단으로 이어지는 칸위 계승 과정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몽골문 연대기와 달리, 후금 측 기록은 이에 관해 좀 더 상세한 내막을 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625년 후금에 투항한 차하르 타이지들과 관련하여 이들이 부얀 사후 칸의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다가 호르친으로 망명했다고 한다.[70] 이로부터 릭단이 부얀의 적장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칸위 계승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초 차하르의 정세에 관해서도 몽골문 연대기의 기술은 명 측 기록과 상반된다. 부얀의 재위기에 대해서 "불교와 政道로 전반적인 大國人을 평안하게 하였다"라고 한 『蒙古源流』의 평가와는 대조적으로,[71]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이 폐사하고 식량이 부족했다고 하는 명 측의 기록은 당시 차하르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72] 1606년 명의 兵科都給事中 宋一韓이 邊事大略을 논한 상주문에서 릭단의 部衆에 대하여 "겉으로는 순종하는 체 하였으나 속으로는 거역하였다"라고 기술한 데 이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릭단을 "궁핍하고 굶주린 오랑캐"로 묘사한 대목은 부얀 사후 차하르의 혼란한 정국을 폭로한다.[73] 험난한 역경을 이겨내고 부얀의 뒤를 이어 칸위에 오른 릭단에게는 차하르 내부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

69) 岡田英弘, 『蒙古源流』, p. 245.
70) 『舊滿洲檔』 4, 天命十年 八月 十日, p. 1919.
71) 岡田英弘, 『蒙古源流』, p. 245.
72) 『萬曆武功錄』 卷10, 「卜言台周列傳」, p. 165, "先是, 雨雪久, 馬牛多瘦死, 乏食, 以故欲略糗糧甚急也."
73) 『明神宗實錄』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2) 卷426, 萬曆三十四年 十月 戊申, pp. 8042-8043, "獨凌丹憨新立, 衆虜煽惑, 都會、歹青等陽順陰逆, 安能不相率響應. …… 新憨、歹青窮餓之虜也."

가 놓여 있었다.

우선 릭단은 칸위 계승 과정에서 대립했던 叔祖 다이칭이 거느린 시네 밍간의 속민을 모두 빼앗아 취하였다.[74] 부얀의 맏아들이 요절한 상황에서 부얀의 동생인 다이칭이 아직 어린 從孫을 제치고 칸의 자리를 넘보다가 릭단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이칭은 자신의 여섯 아들을 비롯한 가솔을 데리고 호르친에 몸을 의탁하였고, 후에 그의 아들들은 릭단이 호르친을 공격하기에 이르자 결국 후금에 투항하였다. 다이칭과 그 일가가 축출된 뒤로도 릭단에게 친족과 그들이 거느린 집단은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있었다.[75]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릭단은 대칸의 직속 세력을 중심으로 차하르 내부 조직을 재편하고 인재를 중용하여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 릭단 후툭투는 아난다라고 하는 물-용해(壬辰年, 1592)에 태어나, 그의 나이 13세에 킬링투라고 하는 나무-용해(甲辰年, 1604), 그 해에 칸으로 즉위했다.[76] 여덟 오톡 차하르 만호를 좌·우 세 만호씩 되게 하여 다스리고, 아바가 하라라고 이름하는 산에 차간호트(白城)를 짓고, 6만의 강한 병사로 전권을 장악하여 힘을 다해 정치를 간추려 잡았다. …… 우익 세 만호를 초로스 타부낭, 좌익 세 만호를 시루구눅 두렝으로 하여금 맡아 관리하도록 하고, 노문 아르슬랑을 필두로 한 현명한 노얀들로 하여금 政事를 간추리게 하며, 두 소남을 비롯한 3백 용사로 하여금 朝政을 지키게 하고, 이데르 아르살란, 툴룬 치닥치 둘을 비롯한 정무 관료들로 하여금 집정하도록 하였다.[77]

---

74) 今西春秋 譯, 『滿洲實錄: 滿和蒙和對譯』(東京: 刀水書房, 1992) 卷8, 天命十年 八月, pp. 656-657.

75) 『明神宗實錄』 卷457, 萬曆三十七年 四月 己巳, p. 8624, "揷漢諸部, 雖歸命一虜主, 而酋首意未相一. 拱兎未許也. 乞靈於虎憝兎憨, 而打不亥、禿計等不願也." 이 가운데 拱兎는 투멘 칸의 동생이자 릭단에게는 叔曾祖에 해당하는 인물로, 『蒙古源流』에는 그 명칭이 종투 타이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Haenisch, *Urga-Handschrift*, fol. 67v.

76) 아난다(ānanda)와 킬링투(kilingtü)는 티베트 역법에서의 60년 주기 가운데 각각 48번째, 38번째 해에 대응하는 산스크리트어와 몽골어 명칭에 해당한다. 여기서 ānanda는 26번째 해에 대응하는 nandana의 誤記로 보아야 한다. Kaare Grønbech and John R. Krueger,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Literary) Mongolian: Introduction, Grammar, Reader, Glossary*,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55, pp. 102-106 참조.

77) Dharma, *Altan kürdün mingγan gegesütü*, fol. Ⅲ, 24r-25r [pp. 48-49]. 『수정

위 인용문은 『金輪千輻』(1739)에서 릭단의 재위 초기를 서술한 부분이다. 여기서 “여덟 오톡[78] 차하르”는 몽골문 연대기에서 차하르 만호를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에 해당하는데, 일부 18세기 몽골문 연대기에서는 여덟 오톡의 명칭을 전하고 있기도 하다.[79] 그러나 실제로 오톡의 개수가 여덟 개로 고정된 것은 아니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손들에게 분봉됨에 따라 변화하였기 때문에 릭단의 재위기 차하르 만호를 구성하는 오톡의 개수와 그 명칭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80] 다만, 차하르 여덟 오톡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6세기 중엽 子弟分封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차하르의 좌익은 보디의 동생의 자손들이, 우익은 보디의 자손들이 중심이 되었다.[81]

그렇다면 본래 만호를 구성하던 오톡을 좌·우 세 만호씩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모리카와는 대칸의 정치적 약체화로 인하여 16세기 후반부터 각 만호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된 현상을 “萬戶(tümen)의 울루스(ulus)化”라고 지칭한 바 있다.[82] 이는 곧 여섯 만호

염주』(1774~1775)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인명 표기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Rasipungsuɣ, *Bolor erike: Mongolian Chronicle*, ed. Francis Woodman Cleaves, pt. 3,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fol. 442b [p. 170].

78) 오톡(otoɣ)은 15세기 무렵 千戶(mingɣan)를 대체하여 등장한 유목 집단의 단위인데, 몽골 제국 시기와 달리 반드시 천 명의 병력을 제공해야 하는 단위는 아니었다. Б. Я. Владимирцов, 『몽골 사회 제도사』, 주채혁 역,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pp. 221-232.

79) 차하르를 구성하는 ‘여덟 오톡’을 『恒河之流』에서는 알추드·케식텐·오한·나이만·타타르·우줌친·호치드·케멕치드·할하로, 『金輪千輻』에서는 아오한·나이만·수니드·우줌친·주이드·부루드·알락·알락추드로 기록하고 있다. Гомбоджаб, *Ганга-й ин урусхал*, ed. Л. С. Пучковский ,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60, fol. 30b [p. 63]; Dharma, *Altan kürdün mingɣan gegesütü*, fol. Ⅵ, 2v [p. 94]. 전자의 경우 9개로 오톡의 개수가 맞지 않는 데다 명칭에 있어서 양자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森川哲雄, 「チャハル·八オトクとその分封について」, pp. 128-136 참조.

80) 薄音湖, 「關於察哈爾史的若干問題」, p. 203.

81) 寶音德力根, 「15世紀前後蒙古政局、部落諸問題研究」, pp. 61-67.

82) 森川哲雄, 「中期モンゴルのトゥメンについて: 特にウルスとの關係を通じて」, 『史學雜誌』 81, 1972, pp. 32-50.

몽골 울루스의 좌익을 차지했던 차하르 만호가 '차하르 울루스'라는 독립 집단으로 변모함에 따라 본래 차하르 만호를 구성했던 오톡들도 만호와 마찬가지로 좌·우익으로 분화한 것을 의미한다. 몽골의 각 만호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독립한 상황에서 릭단은 대칸이 관할하는 차하르 만호를 좌·우 세 만호씩으로 재편한 뒤, 자신이 신임하는 인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함으로써 대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릭단은 선대 칸들과 마찬가지로 명 변경에 군사적 압력을 가해 경제적 이권을 요구하는 전략을 이어나갔다.[83] 명 측의 기록에 따르면 릭단은 1609년부터 遼東 일대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84] 16세기 중엽 차하르와 더불어 시라무렌 방면으로 이동한 다섯 오톡 할하의 경우 명에 대한 집요한 압박 끝에 1611년경 명으로부터 '市賞'을 획득하였다.[85] 그러나 당시 명에서 대칸인 릭단에게 '賞'을 지급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86]

릭단은 1612년 3만여 騎를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요동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87] 1615년에는 윤팔월 한 달 사이에 廣寧·錦州·義州 등지를 연달아 약탈하며 명조를 압박하였다.[88] 그 결과, 1617년 薊遼總督 薛三才는 릭단을 "오랑캐 중의 名王"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릭단은 명으로부터 '市賞'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89] 릭단은 다라이순과 투멘 등 선대 칸들의 숙원이기도 하였던 명으로부터의 이권 획득을 실현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칸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였다.

1618년 후금이 명에 개전을 선포한 이래로 명의 동북변을 위협하기

---

83) 바필드는 초원의 유목민이 중원의 정주농경국가를 위협하여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전략을 '외부변경전략(outer frontier strategy)'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명대 유목민의 외부변경전략에 대해서는 토마스 바필드, 『위태로운 변경: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윤영인 옮김,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제6장 참조.

84) 『明神宗實錄』 卷456, 萬曆三十七年 三月 己丑, p. 8599.

85) 『明神宗實錄』 卷487, 萬曆三十九年 九月 丁酉, pp. 9165-9166.

86) 達力扎布, 「有關察哈爾部西遷的若干問題」, pp. 45-46.

87) 『明神宗實錄』 卷501, 萬曆四十年 十一月 辛卯, pp. 9478-9479.

88) 『明神宗實錄』 卷537, 萬曆四十三年 九月 戊寅, p. 10177.

89) 『明神宗實錄』 卷557, 萬曆四十五年 五月 辛未, p. 10499.

시작하자, 명조에서는 릭단이 후금의 공격에 대항해 줄 것을 기대하며 차하르에 지급하는 銀 액수를 해마다 늘려갔다. 1620년에는 차하르에 은 4천 냥을 주었고,[90]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箭賞' 1만 8천 냥에 '馬賞' 3만 냥을 더해 그 전에 비해 열 배가 넘는 액수를 릭단에게 지급하기로 책정하였다.[91] 1621년 후금군이 瀋陽을 점령하기에 이르자 遼東巡撫 王化貞은 帑金 백만 냥을 내어 山海關 밖의 몽골인에게 주고 여진인을 막는 방편을 명 조정에 제안하였다.[92] 이에 따라 명조에서는 다섯 오톡 할하를 초무한다는 명분으로 '撫賞銀' 백만 냥을 광녕으로 보내기도 하였다.[93] 이듬해에도 명조는 이른바 '乾粮銀'이라는 명목으로 차하르와 다섯 오톡 할하에 은을 지급하였다.[94] 차하르나 다섯 오톡 할하에서는 정작 후금이 광녕을 공격할 때 원병을 보내지는 않았으면서도, 같은 해 구월에는 전년 가을과 당해 봄·가을 총 3회분의 공물을 명에 요구하여 총 30만 냥을 얻어냈다.[95] 이처럼 명조의 기대와 달리 릭단은 명과 후금의 대결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명에서 '賞'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만을 챙길 뿐이었다.

한편, 누르하치는 1619년 사르후에서 명군을 격파한 데 이어 여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쟁 세력이었던 여허마저 굴복시키며 요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투멘 때만 하더라도 대칸에게 공물을 바치던 여진인이 점차 세력을 키워서는 대칸이 명으로부터 얻는 이권을 위협하기에 이르자, 1620년 릭단은 후금에 사자를 파견하여 견제에 나섰다. "40만 몽골국의 君主 바투르 칭기스 칸"의 명의로 보낸 국서에서 릭단은 누르하치를 "물가의 3만 여진의 군주"로 낮추어 부르며, 자신이 명으로부터 공물을 취하는 廣寧城을 침범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96]

---

90) 『明神宗實錄』 卷594, 萬曆四十八年 五月 戊戌, pp. 11400-11403.
91) 『明光宗實錄』 卷4, 泰昌元年 八月 壬子, pp. 104-105.
92) 『明熹宗實錄』 卷8, 天啓元年 三月 辛酉, p. 389.
93) 『明熹宗實錄』 卷10, 天啓元年 五月 癸亥, p. 533.
94) 王在晉, 『三朝遼事實錄』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卷7, 5下-6上 [pp. 596-597].
95) 王象乾, 「奏報撫賞錢糧疏」, 『明經世文編』 卷464, p. 5094, "西虜揷漢夷酋虎墩兎憨等八大營, 哈喇漢夷酋粁、暖、巴領等五大營, 一年春二季, 各該銀十萬兩, 天啓元年未領秋季賞銀十萬兩, 共三十萬兩."

이에 맞서 누르하치는 이듬해 정월 보낸 답신에서 몽골의 우익 세 만호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좌익 세 만호도 칸이 온전히 통솔하지 못하는 실정을 꼬집고는 릭단을 “차하르의 칸”으로 칭함으로써 “40만 몽골의 군주”를 운운하는 릭단의 자칭을 虛張聲勢로 일축해 버렸다. 누르하치는 광녕성을 침범하지 말라는 릭단의 경고에 대해서도, 릭단이 “말은 다르지만 옷과 머리 모양은 같은” 자신과 한편이 되어 명을 공격해 성을 함락시켜야 마땅하다고 맞받아쳤다.[97] 릭단과 누르하치는 서로 상대편의 사자를 억류하면서 대치하였으나, 결국 릭단의 사자는 누르하치에게 처형당한 반면 누르하치의 사자는 차하르를 탈출하여 후금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98]

릭단이 누르하치에게 경고의 의미를 담은 서신을 보내 견제에 나섰을 무렵, 쇼한 조릭투 홍바투르[99]를 위시한 다섯 오톡 할하의 노얀들은 누르하치의 사신과 만나 명을 상대로 후금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 天地에 맹세하였다.[100] 다섯 오톡 할하와 후금의 동맹은 1619년 칠월 후금군이 鐵嶺城을 함락시킨 사건과 관련이 있다. 명으로부터 “賞을 차지하는 城”이 후금의 손에 떨어지자, 자이사이를 비롯한 다섯 오톡 할하의 일부 수령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반발하여 후금군을 습격했다가 도리어 후금군에 사로잡히고 말았다.[101] 다섯 오톡 할하의 실력자였던 자이사이를 인질로 삼은 누르하치는 다섯 오톡 할하의 노얀들에게 對明

---

96) 『舊滿洲檔』 1, 天命四年 十月 二十二日, pp. 489-490. ‘40만 몽골’이라는 표현은 ‘4만 오이라드’와 더불어 실제 숫자와는 무관하게 몽골 제국 붕괴 이후로도 몽골과 오이라드를 수식하는 관용구처럼 쓰였다. Henry Serruys,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 (1368-1398)*,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80, pp. 47-50.

97) 『舊滿洲檔』 1, 天命五年 正月 十七日, pp. 507-511.

98) 『滿洲實錄』 卷6, 天命五年 正月 十七日, pp. 476-479. 『滿洲實錄』에서는 누르하치가 다섯 오톡 할하의 노얀들에게서 릭단이 누르하치의 사자를 죽여 纛에 제물로 바쳤다는 잘못된 소문을 전해 듣고 릭단의 사자를 죽였다고 기록하였다.

99) 다섯 오톡 할하 가운데 우지예드의 수장이자 다얀 칸의 증손으로 당시 다섯 오톡 할하에서 가장 연장자였다. 『明實錄』에는 粉花 또는 炒花로 기록되어 있다.

100) 『舊滿洲檔』 1, 天命四年 十一月 一日, pp. 491-494; 天命四年 十二月 二十三日, pp. 499-500.

101) 『舊滿洲檔』 1, 天命四年 七月 二十六日, pp. 569, 571-572. 岡田英弘, 『蒙古源流』, p. 319.

공수 동맹을 요구하여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다섯 오톡 할하의 노얀들은 자이사이의 구명에는 뜻을 같이 하였으나, 후금을 대하는 입장은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다섯 오톡 할하와 후금 간의 맹약은 그리 견고하지 않았다. 1621년 다섯 오톡 할하의 몽골인들은 후금이 점령한 瀋陽城을 약탈하거나 명에 후금군의 동향을 알리는 등 상황에 따라 명과 후금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였다.[102]

후금의 요동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1622년에는 차하르의 몽골인이 후금에 귀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후금이 광녕성을 점령하자 우루드의 노얀 열 명이 여자와 아이들, 장정을 데리고 후금 측에 투항한 것이다.[103] 『滿洲實錄』은 우루드의 뒤를 이어 다섯 오톡 할하의 1,200호도 후금에 귀부하였다고 전하고 있다.[104] 이처럼 몽골인들이 릭단을 배반하고 후금으로 귀부해 온 데 대해 누르하치는 "너희 몽골 나라는 서로 도적질을 함으로써 가축이 모두 없어지고 백성이 궁핍해진 것이다"라고 말하며 몽골 내에서의 분란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105]

차하르에서 이탈하는 무리가 발생하는 와중에 릭단은 가장 먼저 호르친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호르친의 경우 릭단 즉위 시 차하르 내에서 분란을 일으켰다가 도망친 다이칭 일가를 받아들여 처음부터 릭단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과의 교역 장소인 新安關을 두고 이권 다툼을 벌였기 때문에 다섯 오톡 할하와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106] 1623년 차하르와 다섯 오톡 할하가 호르친을 습격하자, 호르친의 오바는 누르하치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그 사유를 자신이 "다른 나라" 즉 후금과 함께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107] 여기에는 후금의 도

---

102) 楠木賢道, 『淸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硏究』, 東京: 汲古書院, 2009, pp. 26-28.
103) 『舊滿洲檔』 2, 天命七年 二月 十六日, p. 1020; 『滿洲實錄』 卷7, 天命七年 二月 十六日, pp. 576-577. 『舊滿洲檔』에서는 우루드의 노얀 10명이 여자와 아이들, 장정 천 명을 이끌고 왔다고 한 반면, 『滿洲實錄』에서는 우루드의 노얀 17명과 할하 곳곳의 타이지가 각자의 속민 3천여 戶와 가축을 이끌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양자가 차이를 보인다.
104) 『滿洲實錄』 卷7, 天命七年 二月 十六日, pp. 580-581.
105) 『舊滿洲檔』 2, 天命七年 三月 二十九日, pp. 1103-1105.
106) 達力扎布, 『明代漠南蒙古歷史硏究』, pp. 265-266.

움을 끌어내기 위한 오바의 의도도 있었겠지만, 일찍이 후금과 인척 관계를 맺어온 호르친에 대하여 릭단을 비롯한 일부 몽골인들 사이에서 후금과 내통한다는 반감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1624년 후금과 호르친은 서로 사신을 보내 차하르를 상대로 연합할 것을 天地에 맹세하였다.[108] 릭단의 입장에서 호르친이 후금과 對차하르 동맹을 맺은 사건은 대칸을 적으로 돌리는 명백한 배반 행위였다.[109]

릭단이 호르친을 압박해오자 오바는 1625년 누르하치에게 서신을 보내 릭단의 고압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호르친과 후금 간 화친의 당위성을 재차 확인하였다.[110] 릭단이 다섯 오톡 할하 가운데 홍기라드의 자이사이, 바가다르한과 함께 호르친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오바는 누르하치에게 砲手 천 명의 지원을 요청하였다.[111] 그런데 누르하치는 포수 8명만을 보내면서 오바에게 성에서 적을 맞아 싸우라고 권고할 뿐이었다.[112] 누르하치가 지원군 파병에 소극적이었던 데에는 호르친과 연합한다고 하더라도 차하르와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13]

릭단이 호르친을 공격하기에 앞서 초르지 라마가 양측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114] 그러나 교섭이 결렬되면서 릭단이 이끄는 차하르군은 호르친을 향해 출정하였다. 오바는 누르하치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하고 누르하치의 조언대로 차하르군을 맞아 농성전을 벌였다.[115] 후금 측의 기록에 따르면 릭단은 호르친의 格勒珠爾根城[116]을 포위하여 공

107) 『舊滿洲檔』 3, 天命八年 五月 二十日, pp. 1499-1500.
108) 『滿洲實錄』 卷7, 天命九年 二月 十六日, pp. 616-621.
109) 이선애, 「滿文史料를 통해 본 後金시기 滿·蒙 관계」, pp. 205-206.
110) 『舊滿洲檔』 4, 天命十年 五月 一日, pp. 1885-1886.
111) 『舊滿洲檔』 4, 天命十年 八月 九日, pp. 1909-1912.
112) 『舊滿洲檔』 4, 天命十年 八月 十日, pp. 1913-1917.
113) 이선애, 「滿文史料를 통해 본 後金시기 滿·蒙 관계」, p. 194.
114) 『舊滿洲檔』 4, 天命十年 十月 十九日, pp. 1941-1942.
115) 『舊滿洲檔』 4, 天命十年 十月 二十八日, pp. 1942-1944.
116) 阿桂 等 修, 『皇淸開國方略』 (『淸朝開國方略』, 臺北: 文海出版社, 1967) 卷8, 8上 [p. 199]. Man. geljurgen hoton. 『舊滿洲檔』 7, p. 3426에 나오는 몽골어 지명 kelčerkü와 동일한 곳으로, 오늘날 黑龍江省 두르베드 몽골족자치현 腰新鄉 興隆村 很吉日格 古城 터에 비정된다. 包金同, 「科爾沁部與後金第一次盟誓地考」, 『內蒙古民族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4, p. 15.

격하던 때 후금군이 農安塔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철군했다고 한다.[117] 결과만 놓고 본다면 릭단의 호르친 원정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후금 측의 기록에서는 이후에도 릭단과의 전쟁에 대해 대부분 릭단이 후금군의 위세에 눌려 싸워보지도 않고 달아났다는 식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118] 1625년 호르친을 원조하기 위한 후금군의 출병에 관한『舊滿洲檔』의 기사에도 “차하르의 군대가 호르친을 공격하여 [성을] 취하기 가까웠을 때, [後]金의 군대가 이르렀다고 듣고서 밤을 새워 가버렸다”라는 구절이 맨 끝에 삽입되어 있다.[119] 누르하치는 출병 당시 직접 군대를 통솔하다가 도중에 정예병 5천 명만 보내고 되돌아갔으며, 릭단이 포위한 호르친의 성까지 진격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도록 작전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후금 측 기록만으로 릭단이 포위를 풀고 물러난 정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누르하치가 릭단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섯 오톡 할하 가운데 홍기라드의 자이사이와 바가다르한 등은 릭단의 호르친 원정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우지예드의 쇼한을 비롯한 나머지 수장들은 호르친에 차하르군의 동태를 알리고, 후금에는 자이사이와 바가다르한 등이 차하르와 행동을 함께한 데 대해 해명하는 등 다섯 오톡 할하 내에서 릭단을 대하는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다.[120] 명과 후금 사이에서 叛服無常의 태도로 이익을 챙겨오던 다섯 오톡 할하는 1626년 사월 누르하치가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자 궁지에 몰렸다.[121] 후금군에 패하여 시라무렌 이북으로 달아난 다섯 오톡 할하의 원로 쇼한은 다섯 오톡 할

117)『舊滿洲檔』4, 天命十年 十一月 十日, pp. 1946-1949.
118) 노기식,「後金時期 만주와 몽골의 聯盟 관계」,『明淸史硏究』11, 1999, pp. 30-31.
119)『舊滿洲檔』4, p. 1949.『滿洲實錄』에서는 “차하르의 릭단 칸이 호르친의 오바 홍타이지가 거하는 성을 포위하고 며칠을 공격해도 얻지 못하고 있을 때”라고 당시 전황을『舊滿洲檔』과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滿洲實錄』卷8, 天命十年 十一月 十日, pp. 664-665.
120)『舊滿洲檔』4, 天命十年 十一月 十八日, pp. 1949-1952.
121)『滿洲實錄』卷8, 天命十一年 四月, pp. 678-681.

하의 각 수장들과 회동하고 누르하치에게 복수하기 위해 릭단에게 군사 원조를 청하였다.[122] 하지만 군대를 거느리고 온 릭단은 그동안 쇼한이 다섯 오톡 할하 내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하여 자신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후금과 내통하며 명을 상대로 재물을 騙取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그를 꾸짖었다.[123] 결국 릭단은 자신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해 오던 쇼한을 살해하였다.[124]

복종하는 자는 거두고 저항하는 자는 살해하면서 릭단이 다섯 오톡 할하를 병탄해 나가자 다섯 오톡 중 하나인 자루드의 몽골인은 호르친 방면으로 달아났다.[125] 일찍부터 후금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온 데다 릭단의 호르친 원정에 동참하기도 했던 홍기라드의 자이사이와 바가다르한은 릭단에게 몸을 의탁하였다.[126] 쇼한이 피살된 데 이어 자이사이까지 귀부함으로써 다섯 오톡 할하의 양대 세력은 릭단에 의해 궤멸되었다. 릭단은 다섯 오톡 할하를 攻破한 뒤 기존의 수장층을 대신하여 자기 부하를 다루가(監官)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 속민들을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다.[127]

다섯 오톡 할하를 둘러싸고 차하르와 후금의 군사 행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차하르 내에서 자기 세력을 유지해오던 몽골 수령들은 점차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차하르의 좌익을 구성하는 아오한과 나이만의 노얀들은 전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1627년 후금의 홍타이지에게 사신을 보내 화친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였다.[128] 아오한과 나이만의 노얀뿐 아니

---

122)『明熹宗實錄』卷73, 天啓六年 閏六月 乙卯, pp. 3545-3546.

123)『三朝遼事實錄』 卷16, 18下-19上 [pp. 1510-1511], 天啓六年 四月, “憨說炒花, 「你是五營之主. 當初宰賽被東奴拏去, 你不與我說. 宰賽女兒與了東奴抱去, 你又不與我說. 你又與奴酋兩家來往不斷. 囊路是你的侄子, 被奴殺死, 你也不顧. 把他的兒子歹安兒搶去, 你也不顧. 難道你不是漢子, 只好誆騙南朝賞物. 你送東奴駱駝馬匹, 東奴與你鞍子撒袋, 能直幾何」等語.”

124)『明朝檔案總匯』13, 崇禎五年 六月, pp. 123-125.

125)『舊滿洲檔』6, 天聰元年 正月 九日, p. 2569.

126) 楠木賢道,『淸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硏究』, pp. 30-31.

127)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 15;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32, 34;『舊滿洲檔』6, p. 2579.

128)『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11-16;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29-35;『舊滿洲檔』6, 天聰元年 二月 二日, pp. 2576-2580.

라 차하르의 지농도 여기에 뜻을 같이하여 릭단과 홍타이지 간의 화친을 주선하고자 하였다. 홍타이지는 그 진의를 의심하며 릭단의 사자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 한편, 후금과 호르친의 맹약에 따라 호르친도 함께 화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129]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오한과 나이만의 노얀들은 사신을 보내 "차하르의 칸이 형제를 알아보지 않고 道를 무너뜨렸다"라는 연유로 후금에 투항 의사를 밝혔다.[130] 후금 측 자료를 통해 아오한과 나이만이 후금에 투항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누르하치가 요구한 대로 릭단이 사자를 보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차하르와 후금 간의 화친은 릭단과의 협의 없이 아오한과 나이만의 일부 노얀들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임을 방증한다. 이후 차하르 내부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격변 과정을 보더라도 당시 릭단에게는 후금과 화친하여 현상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후금에 투항하는 사례는 차하르의 좌익에 해당하는 알락추드의 노얀들과 차하르 호쇼 내에서도 발생하였다.[131] 그러나 이러한 몇몇 사례들로부터 릭단이 후금의 위세에 밀려 국인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아오한과 나이만의 투항과 관련하여 후금 측에서는 노얀들과 국인 '전부'가 배반해 온다고 기록하였다.[132] 반면에 1627년 督師 王之臣의 보고에 따르면 아오한의 두렝과 나이만의 홍바투르 등이 후금에 투항할 때 그 部衆의 다수는 따르려 하지 않았으며, 후금에서도 의심하며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자 결국에는 태반이 릭단에게 투항했다고 한다.[133] 다시 말해 차하르에서의 이탈이 있었더라도 몇몇 수령과 그 속민에 한정된 것으로, 국인 전체가 릭단을 이반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차하르 내부의 동요 원인도 후금 측에서 강조하는 대로 단

---

129) 『舊滿洲檔』 6, 天聰元年 四月 二十九日, pp. 2656-2657.
130) 『舊滿洲檔』 6, 天聰元年 六月 二十一日, pp. 2682-2683.
131) 『舊滿洲檔』 6, 天聰元年 八月 十八日, pp. 2702-2703; 十一月 七日, p. 2710; 十二月 一日, p. 2712.
132) 『舊滿洲檔』 6, 天聰元年 六月 十二日, p. 2682.
133) 談遷, 『國榷』 (北京 : 中華書局, 1988) 卷88, 天啓七年 九月 戊子, p. 5389.

순히 릭단의 '포악한 성정' 때문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28년 督師 袁崇煥이 邊情을 보고한 상주문은 차하르 내부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134] 이에 따르면 릭단이 다섯 오톡 할하의 人畜을 겸병한 뒤로 차하르 내에서 동요가 일어나 릭단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일부 수령이 명에 항복하였고, 릭단은 다른 집단의 잇따른 이탈을 우려하여 나이만과 케식텐 등을 병탄하여 모조리 거두었다고 한다. 나이만과 케식텐은 차하르를 구성하는 오톡이었으나 분봉을 통해 세습 귀족들이 지배해오던 독립 세력에 가까웠다. 이들을 릭단이 "一概收之"하였다는 것은 곧 대칸의 직속 집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릭단은 자신의 叔曾祖인 종투 일가까지 공격하였다. 종투 타이지는 투멘의 동생으로 릭단과 비교적 가까운 친족이었으나, 릭단을 따르지 않고 독자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다.[135] 이 무렵에야 릭단은 종투 일가를 공격함으로써 대칸을 중심으로 집권화를 시도한 것이다.

다섯 오톡 할하와 차하르 내부를 향한 릭단의 직할 통치 시도는 몽골 세습 귀족들의 기득권을 위협하여 여기에 반발한 수령들이 후금이나 명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칸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동하던 좌익 몽골의 여러 집단을 복속시킴으로써 이후 우익 몽골을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릭단의 중앙집권화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릭단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티베트 불교를 활용한 양상을 검토하겠다. 몽골인들 사이에서 티베트 불교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릭단도 즉위 후 티베트 고승에게서 灌頂을 받았다. 『蒙古源流』에는 릭단에게 관정을 준 고승으로 마이다리 노문 칸과 조니 초르지라는 두 인물이 등장한다.[136] 마이다리 노문 칸은 1603년 제4대 달라이 라마가 후흐호트를 떠나 티베트로 향함에 따라 그를 대신하여 이듬해 후흐호트에 온 마이다리 후툭투를 지칭한다.[137] 조니 초르지는 洮河 상유역에

134) 汪楫 撰, 『崇禎長編』 (臺北: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 1962) 卷14, 崇禎元年 十月 壬辰, pp. 767-768.
135)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硏究』, p. 396, n. 6.
136) Sanang Sečen, *Erdeni-yin tobči*, fol. 68r [p. 135].
137) 岡田英弘, 『蒙古源流』, p. 298; 김장구, 『몽골 황금사』, p. 153.

있는 쪼네 大寺의 겔룩파 고승으로 일찍이 몽골 지방으로 두 차례 순행하였을 뿐 아니라, 투메드 노얀의 사자로 티베트를 오갔던 쪼네 최제 진빠 다르개(1574~1641)와 동일인으로 여겨진다.[138] 즉 두 인물 모두 우익 몽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겔룩파 출신의 고승이었다. 이로부터 즉위 초에는 릭단이 몽골 방면으로의 포교에 진력하던 겔룩파와 먼저 접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달라이 라마의 대리자로서 릭단에게 관정을 주었던 마이다리 후툭투는 1614년 오르도스의 보숙투 지농의 초청으로 석가모니 불상의 開眼 공양을 행하고 大慈法王의 존호를 받은 뒤, 그에게 "轉金輪王 세첸 지농칸"이라는 칭호를 주기도 하였다.[139] 대칸을 자임하는 릭단으로서는 몽골 각 만호의 수장들이 티베트 불교의 권위에 가탁하여 칸을 참칭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었다. 여섯 만호 몽골 울루스의 대칸의 위상이 '차하르의 칸'으로 격하되는 세태 속에서 릭단은 대칸을 정점으로 하는 옛 몽골 제국 질서를 회복하는 데 티베트 불교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몽골 제국 시기 몽골인 군주와 티베트 고승 간 施主-應供僧 관계의 典例를 투메드의 알탄과 겔룩파의 소남 갸초가 선점한 상황에서 릭단은 일종의 후발 주자로서 그들과는 차별화되는 노선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140] 이때 릭단이 선택한 종파는 16세기 후반부터 몽골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겔룩파가 아니라 몽골 제국 시기에 帝師를 배출해오던 사꺄파였다.[141]

릭단은 스물여섯 살이 되던 1617년 사꺄 닥첸 샤르빠 후툭투와 회견하고 재차 관정을 받았다.[142] 티베트어로 '大主'를 뜻하는 '닥첸'이 사꺄

---

138) 若松寛, 「明末內蒙古土默特人の青海進出: ホロチ-ノヤンの事跡」, 『京都府立大學學術報告: 人文』 37, 1985, pp. 90-91.

139) Haenisch, *Urga-Handschrift*, fol. 86r-86v; 岡田英弘, 『蒙古源流』, p. 299.

140) 『알탄 칸傳』에 따르면 알탄과 소남 갸초의 만남을 주선한 아싱 라마가 알탄에게 쿠빌라이와 팍빠 관계의 典範을 따를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p. 146-147.

141) 일찍이 투치는 릭단이 겔룩파에서 사꺄파로 전향한 동기를 릭단이 겔룩파의 추종자인 구시 칸의 성장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릭단 사후 촉투 홍타이지와 구시 칸 간에 벌어진 이른바 '紅帽派 對 黃帽派'의 대결 구도를 릭단의 재위 초까지 소급 적용한 무리한 해석이다. Tucci, *Tibetan Painted Scrolls*, vol. 1, p. 60.

파의 고승에게 붙는 敬稱이라는 사실로부터 그가 사꺄파에서도 지위가 높은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143] 릭단은 샤르빠 후툭투를 영접하면서 그에게 “持金剛 후툭투 라마”라고 하는 존호를 바쳐 경의를 표하였다.[144] 릭단의 칭호는 몽골문 연대기에 “릭단 후툭투 수투 칭기스 大明 세첸, [모든] 방면을 완전히 정복한 자, 전능한 轉輪王, 大太宗, 天中天, 전 세계의 帝釋天, 金輪을 굴리는 法王”[145]이라고 다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불교적 색채가 짙은 어구는 릭단이 샤르빠 후툭투에게서 받은 칭호였을 가능성이 높다.

샤르빠 후툭투는 사꺄에서 차하르로 올 때 쿠빌라이 재위기에 팍빠라마가 금으로 주조한 마하칼라像을 가져왔다.[146] 『漢地佛教史』에 따르면 이 마하칼라像은 度量부터 다라니 腹藏, 開光 의식까지 전부 팍빠가 직접 행하였다고 전해진다.[147] 마하칼라(大黑天)는 티베트 불교의 護法神이며, 특히 그 가운데 구르 마하칼라[148]는 사꺄파 五祖 중 첫 번째인 사첸 뀐가닝뽀(1092～1158) 이래로 사꺄파 쾬씨 가문의 수호신으로 모셔져 왔다.[149] 즉위 초 겔룩파로부터 관정을 받았던 릭단이 사꺄파의 라마를

---

142) 岡田英弘, 『蒙古源流』, p. 246.

143) 샤르빠(shar pa)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을 뜻하지만, 사꺄 빤디따의 세 명의 제자 가운데 샤르빠 셰랍중내(1198～1261)를 開祖로 삼는 東院(bla brang shar) 출신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시하마는 사꺄파 쾬氏 가문의 계보를 기술한 『사꺄世系史』와 『사꺄世系史續編』, 사꺄파 중에서 非쾬씨에 속하는 오르派 座主의 전기 등에서 샤르빠 후툭투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으려고 시도하였으나, 그와 정확히 일치하는 인물을 현재로서는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石濱裕美子, 「リンデン=ハーン碑文に見るチャハルのチベット佛教」, 『アジア · 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79, 2010, pp. 138-140.

144) Dharma, *Altan kürdün mingγan gegesütü*, fol. Ⅲ, 24v [p. 49].

145) 烏雲畢力格, 『《阿薩喇克其史》研究』, fol. 40r-40v [pp. 287-288]; А. Д. Цендина, *Желтая история (Шара туджи)*, Москва: Наука-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2017, fol. 108 [p. 336]; Lubsangdanǰin, *Erten-ü qad-un ündüsülegsen törü yosun-u ǰokiyal-i tobčilan quriyaγsan Altan tobči kemekü orusibai*, Ulaγanbaγatur: Ulus-un keblel-ün γaǰar, 1990, fol. 172b.

146) 清朝滿洲語檔案史料の總合的研究チーム,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本文』 (東京: 東洋文庫, 2009), 天聰八年 十二月 十五日, p. 390.

147) mgon po skyabs, *rgya nag chos 'byung*, pp. 39, 216.

148) Skt. pañjara-mahākāla; Tib. gur gyi mgon po. 구르(gur)는 티베트어로 帳幕을 의미한다.

149) g.yas ru stag tshang pa dpal 'byor bzang po, *rgya bod kyi yig tshang*

초빙하여 새롭게 관정을 받고 몽골 제국 시기에 만들어져 전해 내려오는 마하칼라像을 차하르에 모신 것은 쿠빌라이와 팍빠의 관계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행위였다.

사꺄파의 고승에게 새롭게 관정을 받은 릭단은 불교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아바가 하라 산기슭에 金剛白城[150]이라고 하는 대궁전을 세워 그 안에 여러 사원을 짓고 석가모니를 비롯한 불상을 모셨다.[151] 『金輪千輻』에서는 이때 릭단이 세운 사원을 "황금 지붕이 있는 흰 불당"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152] 이로부터 1613년 오르도스의 보숙투 지농이 완성한 "황금 지붕의 석가모니 사원"을 능가하려는 릭단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153]

1626년 릭단은 遼代의 慶州 白塔 근처에 자신의 증조부인 투멘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大神變塔을, 모친인 낭낭 태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天降塔을 짓고, 이를 기리기 위해 티베트문과 몽골문 두 가지 문자로 양각한 石碑를 세웠다. 현재 두 기의 탑은 남아 있지 않지만, 1893년 6월 바린旗 차간 소부르가(白塔)를 탐방한 러시아의 학자 포즈네예프가 석비를 발견하여 碑文을 자신의 답사기에 수록한 덕분에 탑의 건립 내력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154] 비문 가운데 릭단의 업적을 칭송하는 대목에

---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vol 2, Thimphu: Kunsang Topgyel and Mani Dorji, 1979, fol. 12b [p. 24]; 達倉宗巴 · 班覺桑布, 『漢藏史集: 賢者喜樂贍部洲明鑑』, 陳慶英 譯,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86, pp. 199-200.

150) Mong. včir-tu čaγan qota. 오늘날 내몽골자치구 赤峰市 아루호르친旗 한숨솜 白城子村 동북쪽, 아바가山 기슭의 성터에 비정된다.

151) 岡田英弘, 『蒙古源流』, p. 246.

152) Dharma, *Altan kürdün mingγan gegesütü*, fol. Ⅲ, 24v [p. 49].

153) Isibaldan, *Erdeni-yin erike: mongolische Chronik der lamaistischen Klosterbauten der Mongolei*, ed. Walther Heissig, Kopenhagen: Ejnar Munksgaard, 1961, fol. 36r [p. 73]. 하이시히는 릭단이 차간호트(白城)에 세운 석가모니 사원을 알탄이 건설한 후흐호트의 Yeke ǰuu(銀佛寺)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 Heissig, *Zeit des letzten mongolischen Großkhans*, p. 21. 오르도스와 투메드 둘 중 어느 쪽을 염두에 두었든 간에 릭단이 불교 사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찍부터 불교를 후원해오던 우익 몽골을 의식하였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154) Позднеев, *Монголия и Монголы*, vol. 2, pp. 369-397. 다만 포즈네예프도 언급하였듯이 발견 당시 석비는 두 동강난 상태였고 양각된 碑文도 마모가 심하

서는 릭단과 샤르빠 후툭투의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 그와 같이 북쪽의 이 땅에도 영원한 하늘의 힘에 기대어, 위대한 복덕의 위광에 의하여, 지고하신, 몽골의 칭기스 칸으로 일컬어지는, 그 분의 제36대 왕통에 보살의 化身, 힘의 바퀴를 굴리는 자, 大明 세첸 칭기스 칸, 이 분이 탄생하셨다. 摩訶支那[155] 등 언어가 같지 않은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정치를 널리 행하셨다. 특히 前世의 祈願에 힘입어, 선대 法王들의 上師가 되었던 자의 최고 혈통의 水藏(바다)으로부터 탄생하고, 지혜와 자비, 힘, 세 가지 만다라에서 깨달음의 千光을 지닌, 文殊의 화신 샤르빠 닥첸 아난다 슈리 바드라[156]라고 두루 일컬어지는, 허공의 寶珠(태양)와 같은 그 분을, 이 땅에 敬信의 빠르게 가는 것(馬)이 이끌어서 供施 관계를 맺으셨다. 이에 의하여 佛法이 아닌 어둠을 이름만 남게 하고, [부처의] 몸 · 말씀 · 마음의 의지처를 세우고, 僧伽를 새롭게 설립하는 등, 불교의 蓮華園을 더욱 크게 꽃피게 하셨다. 그 밖의 일은 殊勝三界殿의 석비에 적혀 있으므로 거기에 분명하다.[157]

위 인용문의 冒頭에서 릭단은 몽골 제국 시기 대칸만이 聖旨에 쓸 수 있는 정형구를 襲用하여 자신의 권위를 “위대한 英靈”으로부터 빌리고 있다.[158] 또한 鐵輪王을 의미하는 “힘의 바퀴를 굴리는 자”라는 표현은

여 원문을 그대로 복원했다고 보증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포즈네예프가 비문의 말미에 새겨진, 立石에 관여한 타부낭과 侍衛 등 약 스무 명의 이름을 “가치가 없다”라는 이유로 통째로 누락시킨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이시히는 1941년 차간 소부르가를 답사하였으나 석비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Heissig, *Lost Civilization*, p. 122.

155) Skt. Mahācīna. 산스크리트어로 Great China를 의미한다. 몽골문에는 kitad nanggiyad로 기록되었다. 몽골어 kitad와 nanggiyad는 각각 金 치하의 북중국과 南宋 치하의 남중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몽골인들이 중국을 통치하는 동안에도 북중국과 남중국을 구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摩訶支那는 북중국과 남중국을 모두 아우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 제국 시기 중국을 북중국과 남중국으로 구별한 非漢人의 ‘중국’ 인식에 대해서는 김호동, 「라시드 앗 딘(Rashīd al-Dīn, 1247-1318)의 『中國史』 속에 나타난 ‘中國’ 認識」, 『東洋史學硏究』 115, 2011, pp. 8-18 참조.

156) Skt. Ānanda-śrībhadra. 샤르빠 후툭투의 梵名.

157) Позднеев, *Монголия и Монголы*, vol. 2, pp. 374-375, 몽골문은 결락이 많을 뿐 아니라 티베트문의 축자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티베트문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전사 및 번역은 石濱裕美子, 「リンデン=ハーン碑文」, pp. 126, 133을 참조하였다.

팍빠가 저술한 『彰所知論』(1278)에서 칭기스 칸을 지칭하는 표현에 해당한다.[159] 더 나아가 릭단은 스스로를 “大明 세첸 칭기스 칸”이라고 칭함으로써 대칸의 정통성이 칭기스 칸의 직계 후손인 자신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몽골문 연대기에 기록된 “릭단 후툭투 수투 칭기스 大明 세첸”이라는 칭호와도 부합한다.

샤르빠 후툭투에 대해서는 그 혈통이 몽골 제국 시기에 帝師를 맡았던 사꺄파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문수보살의 化身이자 태양과 같은 존재로 추앙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를 통해 릭단은 자신과 샤르빠 후툭투의 만남에 과거 쿠빌라이와 팍빠가 맺은 이래로 이어져 온 몽골 대칸과 사꺄파 고승 간 施主-應供僧 관계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알탄과 소남 갸초의 회견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친 데 반해, 릭단은 샤르빠 후툭투를 자신의 곁에 두고 佛事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몽골 제국기 帝師 제도의 맥을 이었다.[160] 요컨대 릭단은 자신의 왕통이 칭기스 칸에게서 비롯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꺄파의 고승과 施主-

---

158) 몽골문의 해당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정확한 대응 어구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몽골 제국 시기 대칸의 聖旨 冒頭文에 나타나는 “영원한 하늘의 힘에 [기대어], 위대한 英靈의 가호에 [의하여]”를 티베트어로 직역한 것이 틀림없다. 대칸의 聖旨에 위와 같은 구절이 정형화된 것은 쿠빌라이 재위기로 추정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김석환, 「13~14세기 몽골제국 勅令制度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 129-140 참조.

159) 石濱裕美子, 「リンデン=ハーン碑文」, p. 137. 팍빠가 황태자 진김(眞金)의 요청에 따라 불교의 세계관과 法王의 계통 등을 간추려 설명하기 위해 1278년 저술한 *shes bya rab tu gsal ba*는 그의 제자 沙羅巴(1259~1314)에 의해 『彰所知論』이라는 제목으로 漢譯되었다. 이 책은 칭기스 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부처께서 열반하신지 3,250여 년이 지났을 때, 북쪽 몽골의 나라에 예전에 복덕을 쌓은 果가 무르익어 징기르 왕(칭기스 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는 북쪽에서 시작하여 언어가 같지 않은 여러 나라를 지배하에 두고서 힘으로 바퀴를 굴리는 자와 같게 되었다.” blo gros rgyal mtshan, *shes bya rab gsal*, in *sa skya bka′ ′bum*, vol. 13, *chos rgyal ′phags pa′i bka′ ′bum*, Dehra Dun: Sakya Center, 1993, fol. 19b [p. 38]; ′phags pa blos gros rgyal mtshan dpal bzang po, *Prince Jiṅ-Gim′s Textbook of Tibetan Buddhism: The Śes-bya rab-gsal (Jñeya-prakāśa)*, trans. and annot. Constance Hoog, Leiden: E. J. Brill, 1983, p. 42.

160) 實勝寺碑의 티베트문에서는 샤르빠 후툭투를 릭단의 zhabs drung(尊前, 足下의 의미)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그가 1617년 이래로 릭단의 곁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李勤璞, 「盛京嘛哈噶喇考證: 滿洲喇嘛教研究之一」, 『藏學研究論叢』 7, 《藏學研究論叢》編委會 編,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95, p. 101.

應供僧 관계를 맺음으로써 알탄과 소남 갸초에 비해 정통성 면에서 완전하게 쿠빌라이와 팍빠의 관계를 재현하였다.[161]

密敎 논서의 몽골어 번역본 刊記에서 "五明에 통달한 자, 끊임없이 法輪을 굴리는 자"[162]라고 일컬어지는 샤르빠 후툭투는 몽골 칸들의 계보를 저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蒙古源流』의 跋文에는 1662년 사강 세첸이 『蒙古源流』를 편찬하면서 참고한 일곱 종류의 저술 목록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로 "샤르빠 후툭투가 지은 『칸들의 근원 이야기』"라는 書名이 보인다.[163] 이 책은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제목으로 미루어 보건대 저자 미상의 『黃金史』를 비롯한 17세기 몽골문 연대기와 마찬가지로 몽골 칸의 계보를 인도와 티베트 왕통과 연결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64] 이처럼 샤르빠 후툭투는 칭기스 칸에서 릭단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계보를 확립함으로써 대칸으로서 릭단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그의 권위를 드높이는 데 기여하였다.[165]

---

161) 『제3대 달라이 라마傳』(1646)에서는 꿈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알탄과 소남 갸초가 각각 쿠빌라이와 팍빠의 轉生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fol. 95b [p. 190]; 五世達賴喇嘛, 『三世達賴喇嘛傳』, p. 236. 그러나 반 데어 카입이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기록은 훗날 달라이 라마의 전생 계통에 팍빠를 편입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제5대 달라이 라마에 의한 조작의 산물에 해당한다. Leonard W. J. van der Kuijp, "The Dalai Lamas and the Origins of Reincarnate Lamas," in *The Dalai Lamas: A Visual History*, ed. Martin Brauen, Chicago: Serindia Publications, 2005, pp. 16-18.

162) Walther Heissig and Charles Bawden, eds., *Catalogue of Mongol Books, Manuscripts and Xylographs*, Copenhagen: The Royal Library, 1971, Mong. 491, fol. 45r [pl. XXIII], p. 225.

163) Haenisch, *Urga-Handschrift*, fol. 97r.

164) 저자 미상의 『黃金史』의 저자를 샤르빠 후툭투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확증할 수 없다. 김장구, 『몽골 황금사』, pp. 22-23.

165) Walther Heissig, *Die Familien- und Kirchengeschichtsschreibung der Mongolen*, vol. 1,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59, pp. 48-50.

Ⅲ. 릭단의 몽골 통일 추진

다섯 오톡 할하를 비롯한 좌익 일부에 대한 병합을 마치자 릭단은 우익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16세기 중엽만 하더라도 대칸을 압도하던 투메드의 위세는 알탄 사후 對明 교역의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順義王 承襲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분으로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 우익 몽골 가운데 릭단의 첫 상대는 알탄의 동생 쿤둘렌 칸 일가가 지배하던 하라친이었다. 宣府 변외에서 駐牧하던 하라친은 우익 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朶顔 우량하이의 지배층과 인척관계를 맺음으로써 세력을 늘려 나갔다.[166]

릭단과 하라친의 갈등은 部衆의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즉 릭단이 하라친의 부얀 타이지에게 옛 차하르 人馬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군대를 일으켰다는 것이다.[167] 하지만 이후의 전개 과정을 보면 릭단이 투멘 때에 있었던 옛 일을 거론한 것은 하라친을 정벌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으며, 릭단의 하라친 공격은 우익을 상대로 대칸이 우위를 되찾기 위해 벌인 전쟁의 서막이었다. 1628년 督師 王之臣은 릭단의 하라친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주하고 있다.

> 후툭투 칸은 祖父 이래로 諸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본래] 諸部가 모두 納貢하였는데, 그 조부가 사망하고 후툭투 칸은 나이가 어렸으며 酒色에 빠졌다. 諸部가 각자 雄傑이라 일컫고 공물을 바치는 것이 마침내 끊어지자, 후툭투 칸이 마음으로 원망한 지 오래였다. 薊門과 遼東 각지에 후툭투 칸이 賞을 구하는 곳이 있고, 宣府와 張家口는 곧 후툭투 칸이 교역하는 땅이었다. 후툭투 칸이 사람을 보내 장가구를 왕래하며 말을 팔고 재화를 사게 하

166) 하라친과 朶顔 우량하이 간의 통혼에 대해서는 烏雲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5, pp. 54-57 참조.

167) 彭孫貽 撰, 『明史紀事本末補編』 卷3, 「西人封貢」 (谷應泰 撰, 『明史紀事本末』 第4冊, 北京: 中華書局, 1977), p. 1568; 『明熹宗實錄』 卷83, 天啓七年 四月 甲辰, pp. 4032-4024.

였는데, 하라친家가 이따금 가로막아 재화를 빼앗고 사자를 죽였다. 喜峰口에 가서 賞을 수령하고 교역하였는데, 36家가 가로막고 빼앗는 것이 또한 이와 같았다. 후툭투 칸이 사람을 시켜 講說하게 하였으나, 各部는 오만하여 아랑곳하지 않았다. 후툭투 칸은 매양 이르기를, "南朝에는 오직 大明 황제 하나뿐이고, 北邊에는 오직 나 한 사람뿐인데, 어찌 곳곳에서 왕을 칭할 수 있겠는가! 나는 먼저 안을 처리하고 그 후에 밖을 처리할 것이다."[168] (밑줄은 인용자)

위 인용문에 따르면 몽골 諸部가 부얀 때만 하더라도 대칸에게 공물을 바쳤으나 릭단이 즉위한 뒤로 납공을 중단하자, 릭단이 오랫동안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 『國榷』 天啓 7년(1627) 삼월 丙申條에서도 릭단이 하라친을 정벌한 이유를 歲貢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逋貢에 대한 릭단의 불만이 컸음을 알 수 있다.[169] 납공은 대칸에 대한 경제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臣屬을 상징하기도 하는 만큼, 공물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대칸으로서 릭단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70] 더구나 하라친과 그 예하의 朶顔 36家가 차하르와 명의 교역을 방해하고 명으로부터 얻는 재화를 약탈했다는 것은 릭단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몽골의 수령들이 대칸을 능멸하고 칸을 참칭하는 실태를 목도한 릭단은 몹시 분개하였다. 1627년 삼월경 하라친을 상대로 시작된 릭단의 정벌은 그 대상이 점차 투메드로도 확대되어 갔다. 칠월에 릭단은 威寧海子 부근에서 투메드의 제4대 順義王 보숙투와 투메드의 우루드 타이지, 하라친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171] 시월에는 릭단이 하라친을 격파하자 하라친의 몽골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명 변경으로 달아났다.[172]

---

168) 『崇禎長編』 卷11, 崇禎元年 七月 己巳, p. 617, "虎罕自祖父以來爲諸部長. 諸部盡皆納貢. 其祖父死, 虎年幼, 沉溺酒色. 諸部各自稱雄, 獻貢遂絶, 虎心銜之久矣. 薊門、遼東各有虎款賞, 其宣府、張家口乃虎貿易之地. 虎酋差夷往來張家口賣馬買貨, 哈喇愼家往往截奪其貨物而殺之. 赴喜峯口領賞貿易, 三十六家截劫亦如之. 虎使人講說, 各部傲然不理. 虎每云, 「南朝止一大明皇帝, 北邊止我一人, 何得處處稱王. 我當先處理, 後處外」."

169) 『國榷』 卷88, 天啓七年 三月 丙申, p. 5367.

170) 希都日古, 「林丹汗西征的後果及其敗亡」, p. 37.

171) 『國榷』 卷88, 天啓七年 十月 癸丑, p. 5394.

하라친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릭단은 여세를 몰아 順義王의 본거지까지 진격하여 십일월에는 마침내 후흐호트를 점령하였다.[173] 릭단은 오르도스로 달아난 보쇽투를 대신하여 투메드 내에서 그와 불화하던 세렝 타이지의 항복을 받았다.[174] 세렝은 릭단에게 투메드의 동·서 兩哨의 兵馬와 豐州灘의 大·小 바이싱을 모두 바쳤다.[175] 이듬해 督師 王象乾이 릭단의 공격으로 "보쇽투는 서쪽으로 달아나고, 하라친은 전부 포로로 잡혔으며, 부얀 타이지는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하라친部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을 뿐입니다"라고 崇禎帝에게 아뢰는 말은 릭단이 우익에 입힌 타격과 그로 인한 파급력이 상당히 컸음을 증언한다.[176]

후흐호트 점령 이후로도 우익 몽골에 대한 릭단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릭단은 合把氣 라마에게 후흐호트를 지키게 한 뒤,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향하여 투메드의 우신·바유드·밍간의 수령들을 굴복시켰다.[177] 이어서 릭단이 豐州灘을 침범하자 오르도스의 에린첸 지농은 다급히 명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178] 1628년 정월 릭단은 융시예부를 잠식하였으며,[179] 삼월에는 투메드의 우루드 타이지를 공격하여 살해하였다.[180] 우루드部는 보쇽투의 順義王 승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만큼 투메드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가운데 하나로 릭단이 그 수령을 살해했다는 것은 우익 정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181]

---

172) 『崇禎長編』 卷2, 天啓七年 十月 庚申, p. 82.
173) 『國榷』 卷88, 天啓七年 十一月 甲子, p. 5397.
174) 『國榷』 卷88, 天啓七年 十一月, p. 5404. 하기와라는 "揷漢虎墩兎憨與建虜習令色盟歸化城"에서 建虜를 建州女直으로 보고 릭단과 후금 사이에 밀약이 있었다고 간주하였으나, 이는 오류이다.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研究』, p. 331. 習令·色[令]은 보쇽투와 順義王 承襲 분쟁을 벌였던 투메드의 실력자 소놈(또는 옴부) 홍타이지의 아들 세렝 타이지를 가리킨다. 여기서 建虜는 誤記로 보아야 한다.
175) 『明史紀事本末補遺』 卷3, 「揷漢寇邊」, p. 1440. 바이싱(bayišing)은 16세기 중엽부터 알탄이 白蓮教徒를 비롯한 越境漢人을 동원하여 豐州灘, 즉 투메드 평원에 건설한 성곽 도시를 가리킨다. 漢籍에서는 板升으로 음역한다.
176) 『崇禎實錄』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7) 卷1, 崇禎元年 九月 辛未, pp. 34-35; 『崇禎長編』 卷13, 崇禎元年 九月 辛未, p. 738.
177) 『國榷』 卷88, 天啓七年 十一月, p. 5404.
178) 『國榷』 卷88, 天啓七年 十二月 辛酉, p. 5409.
179) 『崇禎長編』 卷5, 崇禎元年 正月 己巳, p. 202.
180) 『國榷』 卷89, 崇禎元年 三月, p. 5428.
181) 王雄, 「察哈爾西遷的有關問題」, p. 8. 이때 릭단이 살해했다고 하는 那木兒台吉

릭단의 파죽지세로 궁지에 몰린 하라친은 결국 후금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628년 이월 1일, 하라친 예하 朶顔 36家의 타부낭들이 連名하여 후금의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신에서 하라친 · 투메드 · 오르도스 · 융시예부 · 아수드 · 아바가 · 할하의 연합군이 게겐 칸의 '趙城'에 주둔하던 차하르의 4만 군대를 쫓아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 하라친의 10만 군대가 바얀 수베(張家口)에서 명에 '賞'을 요구하던 차하르의 3천 인을 모두 죽였다는 점도 강조하였다.[182]

그러나 이 서신이 전하는 내용의 신빙성은 일찍부터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와다는 게겐 칸의 '趙城'이 順義王의 본거지인 후흐호트(歸化城)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 서신의 내용 자체가 우익 연합군의 규모를 과장한 虛報라고 지적하였다.[183] 오윤빌릭은 이 전투가 일어난 뒤에 호르친의 오바가 후금의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신을 근거로 후흐호트에서 차하르군과 우익 연합군 간에 벌어졌다고 하는 이른바 '趙城之戰'의 진상을 규명하였다.[184] 오바가 다섯 오톡 할하 출신의 망명자에게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전투는 릭단의 포위를 뚫고 달아난 하라친의 칸이 이끄는 8백 명의 병력이 후흐호트에 留守하고 있던 세렝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에 불과하였다. 그마저도 곧 뒤쫓아 온 차하르군에게 격퇴되었고, 릭단은 이내 후흐호트를 탈환하였다.[185] 여기서 우익 몽골에 아바가와 할하까지 규합한 연합군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하라친의 타부낭들이 후금의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신은 사건의 진상을 왜곡한 허위 보고나 다름이 없다. 명 변경에 '賞'을 취하러 간 차

는 1613년경 이미 사망하고 그의 맏아들 敖卜言台吉이 우루드部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那木兒台吉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2)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23-24;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43-46.

183) 和田淸, 『東亞史硏究(蒙古篇)』, pp. 893-897. 게겐 칸은 알탄의 칸號이며 '趙'는 釋尊을 뜻하는 몽골어 ǰuu(<Tib. jo bo)의 음역에 해당한다. 알탄이 후흐호트에 석가모니佛을 모신 사원인 Yeke ǰuu(銀佛寺)를 창건한 이래로 많은 사원이 세워져 후흐호트는 '사원의 城'이라는 뜻의 ǰuu[-yin] qota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84) 烏雲畢力格, 『喀喇沁萬戶硏究』, pp. 72-75.

185)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143-146;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149-151.

하르인 3천 명을 상대로 하라친군이 거두었다고 하는 전과 역시 곤경에 처한 하라친이 후금과의 교섭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명 측 기록에는 1628년 사오월경 하라친 예하의 朶顏 36家가 차하르의 릭단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승리했다는 薊遼總督의 보고가 남아있다.[186] 그러나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薊遼 변외에 해당하는 大凌河 상류이며, 이 무렵 릭단이 이끄는 차하르군의 주력은 宣大 변외에 있었기 때문에 하라친이 격파하였다고 하는 차하르군은 사실상 山陽의 차하르군에 해당한다.[187] 하라친이 후금과의 원활한 사신 교류를 위해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던 차하르의 좌익 일부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188] 릭단의 압박에 시달리던 하라친은 결국 1628년 오월 27일, 명에서 賞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이나 차하르와 내통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후금과 화친을 맺었다.[189] 하라친과 후금의 화친 소식이 차하르에 전해지면서 차하르와 하라친의 관계는 한층 더 악화되었다.[190] 하지만 하라친 측의 기대와 달리 홍타이지는 릭단을 공격하기 위한 군대를 파병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후금이 릭단 공격을 보류한 채 사태를 관망하는 사이, 1628년 팔월 挨不哈[191]에서는 릭단이 이끄는 차하르군과 우익 몽골 연합군 간에 일대

---

186) 『崇禎長編』 卷8, 崇禎元年 四月 戊午, p. 445; 『國榷』 卷89, 崇禎元年 五月 己巳, pp. 5435-5436.

187) 王雄, 「察哈爾西遷的有關問題」, p. 8.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崇禎長編』은 旱落兀素(Qara usu), 『崇禎實錄』과 『國榷』은 敖木林(Aγuu müren)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으나, 두 곳 모두 大凌河 상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달리잡은 이 무렵 후금 측의 기록을 검토하여 敖木林에서 벌어진 전투는 후금군이 일부 山陽의 차하르를 상대로 거둔 승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차하르의 구테이 타부낭에 대한 후금군의 공격은 오월 21일에 이루어져 명 측의 기록(사월 27일 또는 오월 9일)에 비해 시기가 늦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達力扎布, 「有關察哈爾部西遷的若干問題」, pp. 50-51.

188) 1628년 이월에 차하르의 돌로드部가 후금에서 하라친에 파견한 사신을 두 차례나 가로막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홍타이지는 소규모 군대를 이끌고 오무렌에서 돌로드와 알락추드를 소탕하기도 하였다. 『舊滿洲檔』 6, 天聰二年 二月 八·十五日, pp. 2803-2805.

189)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32-34;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52-54.

190) 羅桑丹津, 『蒙古黃金史』, 色道爾吉 譯, 呼和浩特: 蒙古學出版社, 1993, p. 384.

會戰이 벌어졌다.[192] 『明朝檔案』에서는 당시 우익 연합군의 병력을 하라친 2~3만, 융시예부 5~6만, 투메드 7~8만 인으로 전하고 있는데,[193] 이 기록을 신뢰한다면 릭단의 우익 원정 중 규모가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차하르군에 맞서 총력전을 펼친 우익 연합군은 릭단에게 대패하였고 투메드와 융시예부는 延寧 塞外로 패주하였다.[194] 릭단은 보쇽투의 카툰과 順義王 金印을 빼앗고 서쪽으로 달아난 보쇽투를 추격하였다.[195] 『보석 염주』(1841)에서는 "보쇽투 칸이 사망한 뒤에 릭단 칸이 배후를 습격하여 진압하고 나서 그의 많은 사람들을 거두었다"라고 전하고 있어 보쇽투는 릭단에게 쫓기던 중에 최후를 맞이하고 릭단은 順義王 휘하의 투메드 세력을 복속시켰음을 알 수 있다.[196]

차하르군은 패주하는 우익 몽골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오르도스의 지농을 공격하여 그의 兵馬를 절반 가까이 살해하였다.[197] 마침내 릭단이 정예 기병을 보내 河套를 침범하기에 이르자 지농의 자손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였다.[198] 릭단은 항복한 오르도스의 몽골인을 차하르군에 편입시켰다.[199] 릭단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던 명에서는 릭단이 우익 몽골을 병탄해나가는 기세가 "마치 썩은 나무를 꺾는 듯하였다"라고 기술하였다.[200] 훗날 彭孫貽도 릭단이 우익을 정복한 뒤의 정세에 대

---

191) 오늘날 내몽골자치구 包頭市 다르한 모밍간聯合旗 차간하드솜 境內의 艾不蓋河. 王雄, 「察哈爾西遷的有關問題」, p. 9.

192) 『崇禎長編』 卷12, 崇禎元年 八月 壬人, p. 680.

193) 中國科學院 編, 『明淸史料』 丁編 第六本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08), 575上 [p. 561], "崇禎元年, 揷酋猖獗, 掩襲諸夷, 大戰於大同得勝邊外, 如哈喇愼幾二三萬人, 永邵卜幾五六萬人, 卜什兎之東西哨幾七八萬人, 俱爲揷酋所敗, 死亡相枕, 籍其生者, 鳥獸散去, 揷遂倂有諸部之賞."

194) 『國榷』 卷89, 崇禎元年 九月, p. 5457.

195) 『明史紀事本末補編』 卷3, p. 1569.

196) Galdan tusalaγči, *Erdeni-yin erike kemekü teüke bolai*, transcr. J. Gerelbadrakh, ed. Yo. Janchiv, Ulaanbaatar: Admon, 2007, fol. 95b [pp. 410-411].

197) 『國榷』 卷89, 崇禎元年 九月, p. 5457.

198) 『明史紀事本末補編』 卷3, p. 1569.

199) 오르도스 출신의 사강 세첸은 오르도스의 몽골인이 릭단에게 복속된 사실을 『蒙古源流』에 다음과 같이 미화하여 기록하였다. "그러한 복덕이 있는 조짐의 이유에 의하여, 릭단 후툭투 칸의 대오에 동시에 들어가, 하나의 부대에서 만나 함께 가게 되었다." 岡田英弘, 『蒙古源流』, p. 314.

하여 “동쪽으로는 遼西에서 서쪽으로는 洮河에 이르기까지 전부 차하르의 속박을 받으니 위세가 河套 以西까지 행해졌다”라고 평하였다.[201] 挨不哈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릭단은 우익 몽골을 제압하고 알탄 이래 투메드 만호로 기울었던 주도권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

挨不哈에서 릭단과 우익 연합군 간의 결전이 벌어지기에 앞서 사태가 급박하다고 판단한 하라친의 칸은 후금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 홍타이지에게서 맹약을 받아냈다.[202] 홍타이지는 1628년 구월 6일에야 비로소 차하르를 공격하기 위한 군대를 일으켰다. 홍타이지가 후금과 결맹한 몽골군을 소집하자 아오한 · 나이만 · 다섯 오톡 할하 · 하라친 등이 여기에 응하였으나, 호르친의 오바는 후금군에 합류하지 않고 되돌아 가버렸다.[203] 얼마 지나지 않아 시월 4일에 홍타이지도 철군함으로써 후금-몽골 연합군은 릭단의 본대와는 마주치지도 않은 채 차하르 일부 지역에 대한 고작 이틀간의 공격을 끝으로 원정을 중단하고 말았다. 이를 두고 홍타이지가 몽골 연맹과의 연합 출병 가능성과 맹주로서의 권한을 시험해 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04] 반면에 오윤빌릭은 하라친 측의 거짓 보고를 그대로 믿은 홍타이지가 “차하르의 칸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차하르의 정세를 잘못 판단한 나머지 경솔히 군대를 일으켰다가, 진상을 알아차리고는 도중에 회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205] 릭단과의

---

200) 『明朝檔案總匯』 6, 崇禎二年 二月 十九日, p. 75, “但揷酋聚結邊外, 勢甚猖獗, 自去秋與哈卜交兵得勝之後, 侵殺河套諸虜, 有如拉朽.”

201) 『明史紀事本末補編』 卷3, p. 1569, “東起遼西, 西盡洮河, 皆受揷要約, 威行河套以西矣.”

202)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47-49;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64-65.

203) 『舊滿洲檔』 6, 天聰二年 九月, pp. 2839-2842. 후금이 주도하는 차하르 원정에 호르친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성수는 차하르가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호르친이 다섯 오톡 할하의 지배권을 두고 후금과 경쟁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성수, 「17世紀初 滿蒙 關係와 內陸 아시아」, pp. 79-80.

204) 노기식, 「홍타이지의 反릭단 滿蒙聯盟 확대와 이용」, pp. 187-188.

205) 오윤빌릭은 1628년 이월 1일에 하라친 타부낭들이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신을 수록한 몽골문 檔案과 『舊滿洲檔』의 기록을 대조하여 후금 측에서 하라친의 서신과 홍타이지의 답신을 한 통의 문서로 위조함으로써 차하르의 정세에 대한 홍타이지의 오판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하라친 측에 전가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烏雲畢力格, 「史料的二分法及其意義: 以所謂的“趙城之戰”的相關史料爲例」, pp. 83-85.

대결에서 우익 몽골이 열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릭단을 상대로 한 후금-몽골 연합군의 첫 원정은 사실상 홍타이지의 중도 포기로 막을 내렸다.

挨不哈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릭단은 1629년 東투메드를 공격하였다. 東투메드의 수령 옴부 추쿠르는 '趙城之戰'에서 하라친 편에 가담하였다가 릭단에게 패배하여 白馬關 변외로 달아났으나, 릭단이 挨不哈에서 전투를 벌일 무렵 다시 龍門 변외로 귀환하였다.[206] 릭단은 자신에게 항복했던 보숙투 휘하의 빙투 타이지 등이 옴부 추쿠르에게로 달아난 것을 구실로 1629년 윤사월, 3백여 騎로 용문 변외의 瓦房溝에서 住牧하던 옴부 추쿠르의 동생 세첸 타이지를 습격하여 그의 아들을 비롯한 人畜을 노략하였다.[207] 릭단의 공격에 황급히 동쪽으로 몸을 피한 옴부 추쿠르는 후금의 홍타이지에게 자신이 차하르와 대적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원군을 보내 물리쳐 줄 것을 요청하였다.[208] 『明朝檔案』에 따르면 릭단은 유월에 2천여 騎로 滿套兒[209]를 거쳐 東투메드의 중심부로 진격하였다.[210] 계속되는 차하르의 위협에 옴부 추쿠르는 결국 구월 18일, 후금에 보낸 서신에서 릭단의 만행을 규탄하고 차하르와의 교전 때문에 親朝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홍타이지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211]

릭단은 우익 정복 과정에서 명조에 새로운 '賞'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212] 그러나 차하르의 3천 명이 張家口에 '賞'을 취하자고 들어갔으나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하라친 타부낭들의 말대로, 릭단이 우익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은 릭단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628

---

206) 烏雲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pp. 108-109.
207) 『明朝檔案總匯』 6, 崇禎二年 五月 初三日, pp. 191-195.
208)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89-92;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84-87.
209) 오늘날 河北省 承德市 豐寧滿族自治縣 동남쪽.
210)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編, 『明淸史料』 甲編 第八本 (北平: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31), 718上.
211)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58-61;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88-92.
212) 『國榷』 卷88, 天啓七年 十二月 辛酉, p. 5409.

년 오월에는 新平堡에 '賞'을 요구하러 온 릭단의 幸臣 구옝 키야를 명에서 살해하자, 릭단은 군대를 일으켜 大同을 공격하였다.[213] 명에서는 하라친을 이용하여 릭단을 견제하고자 하라친 예하 朶顔 36家의 수령 수부디에게 順義王과 연합하여 릭단에게 대항할 것을 종용하였다.[214] 하지만 명의 기대와 달리 하라친은 후금과 결맹하였고, 우익 연합군이 挨不哈에서 릭단에게 궤멸된 데다 후금-몽골 연합군의 원정도 릭단에게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중단되기에 이르자, 명도 릭단의 '新賞'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1629년 이월 宣大總督 王象乾과 차하르 간에 교섭이 시작되었다. 처음에 릭단은 40만 냥의 '新賞'을 요구하였으나 명 측이 거절하자 26만 7천 냥으로 액수를 줄여 제안하였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침내 8만 1천 냥으로 양측 간에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으로 릭단은 명조에 융시예부와 투메드의 보쇽투가 각각 명에서 받았던 '市賞'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215] 보쇽투와 융시예부를 비롯한 우익 몽골이 명으로부터 취하던 받던 '市賞'은 도합 40여만 냥에 달했는데, 방위비 부담보다는 적다고 판단한 명조에서는 이를 릭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216] 릭단 입장에서는 명에서 '撫賞銀'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하는 공물과 對明 교역의 이익은 오로지 대칸에게만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우익 원정의 성공으로 릭단은 명조에서 우익 몽골의 수령들에게 지급하던 '市賞'까지 독점함으로써 몽골 내에서 종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명으로부터도 몽골의 유력한 지배자로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릭단이 몽골 통일의 이념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주르의 몽골어 譯經을 완성한 과정을 살펴보겠다. 1627년 십일월 릭단은 후흐호트를 점령한 뒤 銀佛寺를 차지하였다.[217] 銀佛寺[218]는 제3대 달라이

---

213) 『崇禎長編』 卷10, 崇禎元年 六月 庚寅, p. 539; 六月 庚子, pp. 560-562.
214) 『國榷』 卷89, 崇禎元年 六月, p. 5443.
215) 『崇禎長編』 卷19, 崇禎二年 三月 甲申, p. 1184.
216) 『崇禎長編』 卷20, 崇禎二年 四月 辛亥, pp. 1253-1259.
217) 『國榷』 卷88, 天啓七年 十一月 甲子, p. 5397.
218) 『알탄 칸傳』에는 "석가모니佛의 사원"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吉田順

라마와의 회견 이후 알탄이 후흐호트에 창건한 사원으로, 1586년 후흐호트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가 銀佛의 開光 의식을 거행한 곳으로도 유명하다.[219] 挨不哈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對우익 원정에서 성공을 거둔 릭단은 1628년 십일월, 간주르의 몽골어 역경을 명하였다. 릭단에 의한 몽골문 간주르의 편찬은 후대까지도 인정받는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몽골문 연대기뿐 아니라 불교사를 기록한 티베트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220] 그 가운데 편찬 경위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황금 염주』(1817)에서 관련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또한 부처님 말씀의 化身인 간주르 法寶를 몽골어로 옮긴 큰 공덕이 있었다. 그 연유를 말하자면, 바로 이 후툭투 칸께서 一切衆生의 이익과 행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 법보를 해와 같이 몽골 땅에 퍼뜨리리라!"라며 몽골어로 옮기기를 발의하였다. 그 譯經하는 높은 학식을 지닌 譯師들이 113권에 결집하기에 푸른 녹주석과 같은 종이에 허공의 해와 달 같은 金銀 글자들을 써넣어, 인연 있는 중생의 蒙昧를 깨우쳐 저술한 바가 대단히 영묘하다. 역경한 높은 학식을 지닌 譯師들은, 후툭투 빤디따 文殊師利法王 뀐가 외세르, 如來法光 삼단 셍게, 다르한 라마 灌頂國師 이 둘이서 주관하여 매우 많은 譯師들이 번역하였다.[221] 그 기간은, 열한 번째 랍중의 두 번째 흙-

---

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 639 [fol. 42a]. 알탄의 청에 따라 1581년 萬曆帝는 이 사원에 弘慈寺라는 寺額을 주기도 하였다. 『萬曆武功錄』 卷8, 「俺答列傳」 下, p. 174.

219)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fol. 104a [p. 207]; 五世達賴喇嘛, 『三世達賴喇嘛傳』, p. 247.

220) 『青海史』에서 릭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던 숨빠캔뽀도 그의 또 다른 저서인 『如意寶樹史』(1748)에서 몽골문 간주르가 릭단 재위기에 완성되었다는 점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phags yul rgya nag chen po bod dang sog yul du dam pa'i chos byung tshul dpag bsam ljon bzang*, in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gyi gsung 'bum*, vol. 1,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1975, fol. 314a [p. 631]; 松巴堪布·益西班覺, 『松巴佛教史』, 蒲文成, 才讓 譯, 蘭州: 甘肅民族出版社, 2013, p. 539.

221) 『金輪千輻』과 『수정 염주』에서는 간주르의 몽골어 譯經을 주관한 인물로 뀐가 외세르와 시디투 아난다 두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으며, 역경에 참여한 譯師의 수를 『金輪千輻』에서는 33명, 『수정 염주』에서는 35명이라고 기록하였다. Dharma, *Altan kürdün mingyan gegesütü*, fol. Ⅲ, 24v [p. 49]; Rasipungsuɣ, *Bolor erike*, fol. 443a [p. 171]. 하이시히는 몽골문 간주르 刊記를 검토하여 역경에 참여한 譯師 33명의 이름을 밝히기도 하였다. Walther Heissig, *Die Pekinger lamaistischen Blockdrucke in mongolischer Sprache: Materialien zur*

용해(戊辰年, 1628)의 십일월 스무하루부터 시작하여, 이듬해의 여름 중간달(오월)의 보름날 마쳤다고 한다. 역경한 곳은, 제2의 釋尊의 사원, 시레투 노얀 초르지의 殊勝三界普樂園에서 완성되었다. 母本 법보는, 빙투 세첸 옴부가 가져온 간주르라고 한다. 이것은 릭단 후툭투 칸의 때에, 처음으로 몽골어로 번역되었다.[222] (밑줄은 인용자)

몽골 제국기에도 시도된 바 있었던 佛經의 몽골어 역경은 16세기 후반 몽골에 티베트 불교가 확산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알탄 칸傳』에 따르면 투메드의 나무타이 세첸 칸, 중겐 카툰, 옴부 홍타이지 세 사람의 후원하에 1602년부터 1607년까지 시레투 구시 초르지, 아유시 아난다 만주시리 구시가 주관하여 몽골문 간주르를 108권으로 엮었다고 한다.[223] 이처럼 오랜 시간과 많은 공력이 소요되는 간주르 역경을 릭단 재위기에 여섯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마쳤다는 점은 뭔가 석연치 않다. 하이시히는 릭단의 명으로 1629년 제작된 몽골문 간주르 刊記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이 17세기 초부터 알탄 가문의 시주에게서 후원을 받아 불경을 몽골어로 번역하던 譯師들과 동일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224] 그는 릭단이 투메드에서 후원해오던 간주르 역경 사업을 가로채 자신의 공적으로 삼았다고 보고 이를 몽골의 군주로서 걸맞지 않은 처사라고 혹평하였다.[225]

그러나 몽골에서의 역경 사업이 順義王家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일찍이 할하의 아바타이는 차하르에서 온 사신에게서 불경 번역을 위해 몽골 문자를 고안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차하르에 사람을 보내 이를 배우도록 하였으며,[226] 릭단의 조부인 부얀은 『八千頌般若經』의 몽골어 번역

---

mongolischen Literaturgeschicht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54, p. 41, n. 5.

222) Na ta, *Altan erike*, 喬吉 校注,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9, pp. 113-115.

223)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p. 202-203. 나무타이 세첸 칸, 중겐 카툰, 옴부 홍타이지에 대해서는 森川哲雄, 「十七世紀初頭の內蒙古における三人の佛教の高揚者について」, 『蒙古史研究』 1, 1985 참조.

224) Walther Heissig, *Beiträge zur Übersetzungsgeschichte des mongolischen buddhistischen Kano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pp. 19-42.

225) Heissig, *Lost Civilization*, pp. 126-128.

을 후원한 바 있다.[227] 더군다나 『알탄 칸傳』의 기록대로 몽골문 간주르가 1607년에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현전하는 몽골문 간주르 가운데 『一萬頌般若經』의 발문에는 나무타이 세첸 칸과 중겐 카툰이 간주르를 번역하게 한 이래 시작된 역경 사업이 나무타이 세첸 칸 사후에는 그의 손자인 보숙투 칸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하는 구절이 그대로 남아 있다.[228] 나무타이 세첸 칸, 즉 알탄의 장손인 추루케가 사망한 해는 1607년이므로 간주르 역경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던 것이다.[229]

릭단이 후흐호트를 점령하고 알탄이 세운 銀佛寺를 차지한 뒤인 1628년, 간주르의 몽골어 번역에 착수한 譯師들이 역경 과정에서 투메드에서 진행해 오던 작업을 인수하여 그 결과물을 참고했을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차하르에도 대칸이 역경을 후원하던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릭단이 順義王家의 역경 성과를 가로챘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1629년 릭단의 명으로 몽골문 간주르가 113권으로 집대성되었으며, 이것이 훗날 康熙 연간에 판각 과정에서 저본으로 활용되었다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몽골문 간주르의 편찬 작업이 진행된 곳에 대해서 하이시히는 白塔 근처에 릭단이 세운 사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230] 그러나 『황금 염주』에서 역경 장소로 기록된 "제2의 釋尊의 사원"은 알탄의 맏아들 셍게 두렝이 1585년 후흐호트에 세운 "제2의 구별 없는 釋尊 사원"[231]에 해당

---

226) dza ya paNDi ta blo bzang 'phrin las, *rje btsun dam pa blo bzang bstan pa'i rgyal mtshan dpal bzang po'i thun mong ba'i rnam thar bsdus pa*, in *Life and Works of Jibcundampa I*, New Delhi: Sharada Rani, 1982, p. 419; Agata Bareja-Starzyńska, *The Biography of the First Khalkha Jetsundampa Zanabazar by Zaya Pandita Luvsanprinlei*, Warsaw: Dom Wydawniczy Elipsa, 2015, p. 105.

227) Walther Heissig, "Zur geistigen Leistung der neubekehrten Mongolen des späten 16. und frühen 17. Jhdts.," *Ural-altaische Jahrbücher* 26, 1954, p. 111.

228) Касьяненко, *Кат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рукописного "Ганджура"*, no. 545, pp. 158-159.

229) 『알탄 칸傳』에서 가장 마지막 해로 언급되는 때가 붉은 양해(丁未年, 1607)인데다가 같은 해 나무타이 세첸 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가 발의한 역경 사업도 1607년 '완성'된 것처럼 서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230) Heissig, "Zur geistigen Leistung der neubekehrten Mongolen," p. 116.

231)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232] 릭단이 투메드를 정복한 뒤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후흐호트에서 몽골문 간주르의 역경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릭단의 '황금 간주르'는 일종의 전승 기념물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릭단이 1629년 완성한 황금 간주르의 원본은 일부만 현전하지만, 1892년 포즈네예프가 칼간(張家口)에서 입수한 몽골문 간주르의 필사본 113권 완질이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233] 이 가운데 『大手印明點』의 발문에는 릭단이 몽골문 간주르를 간행하도록 명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힘 있는 上天의 化身,
法輪을 가진 轉輪王과 동일한 규율을 갖춘,
심오한 지혜와 밝은 슬기를 지닌,
인간의 權勢者 릭단 후투투 大明 세첸 칸이 탄생하시고.

근본이 착오에 빠지지 않은 持金剛으로부터 이어진,
論議가 착오에 빠지지 않은 大瑜伽의 수행자,
種姓이 착오에 빠지지 않은 사꺄의 자손,
허공에 있는 해와 같은 샤르빠 후툭투와 서로 만나셔서.

至高無上한 가르침을 해와 같이 떠오르게 하고,
자신의 뭇 백성을 金剛乘의 길로 이끌며,
태평의 정치로 행복을 누리게 하고,
반항하는 적들을 위엄으로 제압하시는 그 까닭에,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Leiden; Boston: Brill, 2003, p. 212. 이 사원은 "시레투 주(širegetü ǰuu)"라고도 불리는데, 그 명칭은 제3대 달라이 라마가 圓寂한 이후 그를 대신하여 후흐호트의 法座(širege)에 앉아 제4대 달라이 라마의 양육과 佛經의 몽골어 번역을 주관하였던 시레투 구시 초르지에게서 유래한다.

232) M. 額爾敦巴特爾, 「蒙古林丹汗《蒙古文金字甘珠爾經》的若干問題」, 『몽골학』 28, 2010, p. 35.

233) 몽골문 간주르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는 Karénina Kollmar-Paulenz, "The Mongolian Kanjur: Some Remarks about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in *Монгол Ганжуур: Олон улсын судалгаа*, ed. С. Чулуун, Улаанбаатар: Admon, 2017, pp. 17-36 참조.

지고한 가르침을 아주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충만한 슬기로 자세히 궁구하고,
如來의 말씀 간주르 경전을,
그같이 생각하고 번역하라고 명하심에.[234]

몽골문 간주르의 刊記에서 릭단은 자신과 샤르빠 후툭투의 만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부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善政으로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는, 政·敎 '두 가지 규율'에 입각한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반항하는 적들"이란 표면상으로는 佛法을 퍼뜨리는 데 방해가 되는 外道를 지칭하는 것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대칸의 권위에 도전하는 안팎의 모든 세력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도라 할지라도 대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우익을 위력으로 제압한 사건은 릭단이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점을 잘 보여 준다. 요컨대 릭단은 후흐호트를 점령하고 일종의 전리품으로 획득한 順義王家의 몽골문 간주르를 자신의 이름으로 완성함으로써 몽골 통일이라는 위업을 달성하는 데 佛力을 빌리고자 했던 것이다. 릭단은 일찍이 자신의 근거지인 金剛白城에 사원을 지어 佛像을 안치하고 白塔 근처에 佛塔을 조성한 데 이어 佛經을 몽골어로 옮겨 집대성한 결과, 몽골 땅에 부처의 세 의지처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릭단은 우익을 압도하는 몽골의 세속 군주이자 알탄 가문을 능가하는 티베트 불교의 시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었다.

Ⅱ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릭단은 칭기스 칸으로부터 자신의 정통성을 표방하고 있었던 만큼,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칸을 정점으로 하는 옛 몽골 제국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릭단에게 몽골을 통일한다는 것은 곧 몽골의 봉건 영주들을 대칸의 지배 아래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를 위해 릭단은 무력을 동원하여 굴복시키는 방식을

234) Касьяненко, *Кат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рукописного "Ганджура"*, no. 11, pp. 27-28. 康熙帝의 명으로 1717~1720년 몽골문 간주르를 교정하여 108권으로 간행한 목판본에도 이 발문이 "릭단 후툭투 大明(dayiming) 세첸 칸"이 "릭단 후툭투 大元(tai yuvan) 세첸 칸"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실려 있다. Louis Ligeti, *Catalogue du Kanǰur Mongol Imprimé*, Budapest: Société Kőrösi Csoma, 1942, no. 11, pp. 4-5.

택하였다. 후대 몽골문 연대기에서는 릭단이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金輪千輻』을 비롯한 몇몇 몽골문 연대기는 릭단이 毒酒를 마신 뒤로 악마에 씌었다거나, 예전의 業 때문이라는 불교적 윤회관에 입각하여 해설하고 있다.[235] 그러나 『蒙古源流』에서는 "여섯 大울루스로 흩어져 살던 다얀 칸의 후손, 칸들의 일족과 노복들, 大울루스에서 도리에 어긋난 행위가 많아졌던 때, 太平의 정치로 복종시킬 수 없었다"라고 당시 혼란한 몽골의 정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236] 비록 사강 세첸이 릭단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한 것은 아니지만, 몽골 내부의 혼란이 '仁政'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원인이 릭단 개인이 아닌 다얀 일족과 그 속민들 모두에게 있었다고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237]

---

235) Dharma, *Altan kürdün mingγan gegesütü*, fol. Ⅲ, 25r [p. 49].

236) Haenisch, *Urga-Handschrift*, fol. 68r-68v. 『黃史』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보인다. Цендина, *Желтая история*, fol. 108-109 [pp. 336-337].

237) 『蒙古源流』의 이 구절과 관련하여 모스태르는 저자 사강 세첸이 릭단에게 비우호적인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사강 세첸이 만주의 몽골 지배에 직면하여 몽골의 마지막 대칸에게 모종의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Antoine Mostaert, *Erdeni-yin Tobči: Mongolian Chronicle*, ed. Francis Woodman Cleaves, pt. 1,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pp. 25-26.

Ⅳ. 릭단의 아루 원정과 그 결과

몽골 우익에 대한 우위를 점하는 데 성공한 릭단의 다음 상대는 칭기스 칸 諸弟의 후예가 지배하던 흥안령 이북의 아루 몽골이었다.[238] 1628년 이월 1일, 하라친의 타부낭들이 후금의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아바가와 할하는 홍타이지와 연합하여 차하르에 대항할 것을 하라친에 제안하였다고 한다.[239] 아루 몽골은 1629년 구월에 후금과 처음으로 사신 왕래를 시작하였다.[240] 이 가운데 두르벤 케우케드 · 옹니우드 · 아루 호르친의 수장들은 1630년 삼월 20일에 후금의 홍타이지와 화친을 맺고 차하르에 대항할 것을 맹약하였다.[241] 이러한 일련의 행보로부터 릭단의 우익 정복을 계기로 아루 내에서도 릭단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릭단의 흥안령 이북 출정은 아루 몽골이 차하르의 알락추드를 기습한 데 대한 응징에서 비롯되었다. 릭단이 우익을 상대로 원정을 떠났을 때, 아루의 지농 휘하의 3백 명이 알락추드를 습격하여 여자와 아이를 살육하고 게르와 가축을 불태운 뒤 카툰을 납치해 갔다.[242] 그 후 차하르의 보복을 두려워한 아루의 지농이 할하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릭단의 銳鋒은 할하까지 동시에 겨냥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차하르의 투바 지농이

---

238) 아루(aru)는 몽골어로 '뒤' 또는 '북쪽'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興安嶺의 山陰, 케룰렌 강 하류 일대에서 유목하며 칭기스 칸 諸弟의 후예에게 소속되어 있던 집단을 일컫는다. 참고로 청대에는 아루 호르친 · 두르벤 케우케드(四子部) · 우라드 · 모밍간 · 옹니우드 · 아바가 · 아바가나르 · 할하를 '아루의 몽골'이라고 총칭하였다. 楠木賢道,『淸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硏究』, p. 126.

239)『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23-24;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43-46.

240)『淸太宗實錄』(北京: 中華書局, 1985) 卷5, 天聰三年 九月 丙戌, p. 74.

241)『舊滿洲檔』7, 天聰四年 三月 二十日, pp. 3219-3221.

242)『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62-66;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115-118. 당시 아루에서 지농 칭호를 가진 인물은 옹니우드의 수령 순 두렝과 아바가의 수령 두스가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玉芝,『蒙元東道諸王及其後裔所屬部衆歷史硏究』,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19, p. 209.

휘하를 이끌고 할하로 달아난 사건도 릭단이 할하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243]

『明朝檔案』에서는 1630년 팔월경 릭단이 병사를 모으고 20여 일치의 양식을 마련하여 할하와 보로 호르친을 토벌하러 간다는 첩보를 전하고 있다.[244] 여기서 할하는 차하르와 후금에 의해 이미 와해된 다섯 오톡 할하가 아니라 漠北 할하, 그 중에서도 호르친과 인접한 할하 좌익을 지칭한다.[245] 또 보로 호르친은 본래 오바가 수장으로 있던 嫩 호르친을 의미하지만,[246] 전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루 호르친을 비롯한 아루 몽골을 포괄한다고 보더라도 무방하다. 1630년 팔월 28일 호르친의 오바가 후금의 홍타이지에게 알린 소식에 따르면, 릭단은 13세 이상 73세 이하의 장정을 징집하여 한 달 치 양식을 가지고 흥안령 이북으로 출병하였다.[247] 이때 릭단은 자신의 직속 부중뿐 아니라 오르도스와 투메드 등 우익 몽골군까지 동원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원정군을 조직하였다.[248]

릭단의 흥안령 이북 원정은 아루의 여러 세력이 흥안령 이남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릭단의 공격에 맞서 아바가와 할하만이 릭단과 교전하였고, 옹니우드 · 아루 호르친 · 두르벤 케우케드 등은 남쪽으로 달아나 눈 호르친과 후금에 귀부하였다.[249] 『淸太宗實錄』에는 1630년 십일월에 아루 몽골의 수장들이 후금의 홍타이지를 알현했다는 기사가 실

---

243)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121-124;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119-121. 투바 지농이 할하로 달아난 사건은 명 측에서도 기록하고 있다. 『明淸史料』 丁編 第四本, 369上 [p. 141]. 투바 지농은 결국 1634년 후금에 투항하였다.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天聰八年 六月 二十八日, pp. 186-187.

244) 『明淸史料』 丁編 第四本, 318上 [p. 39], "探問得, 在邊住牧夷人密說, 揷漢兒王子聚兵一處, 傳令各夷預備二十餘日盤纏, 要往西北征剿哈力哈、卜羅合兒氣等酋." 여기서 "往西北"이라고 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往東北"으로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245) 姑茹瑪, 「17世紀20～30年代喀爾喀蒙古與沙俄的關系」, p. 77.

246) 몽골어로 회갈색을 뜻하는 보로(boro)가 붙은 보로 호르친이 이들의 자칭이었으나, 嫩江 일대로 이주한 뒤로는 嫩 호르친이라고도 불렸다. 김성수, 「17世紀初 滿蒙 關係와 內陸 아시아」, pp. 74-75.

247)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121-124;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119-121.

248) 玉芝, 『蒙元東道諸王及其後裔所屬部衆歷史研究』, pp. 210-211.

249) 玉芝, 『蒙元東道諸王及其後裔所屬部衆歷史研究』, p. 211.

려 있으며, 후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을 기록한 『逃人檔』에도 이 무렵 후금에 투항한 아루 몽골인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250] 아루 몽골이 남하함에 따라 嫩江 유역에서 유목하던 눈 호르친도 눈강과 시라무렌 사이에 위치한 고지대로 牧營地를 옮겼다.[251] 앞서 눈 호르친의 오바는 후금의 홍타이지에게 릭단의 아루 원정 소식을 전하면서 차하르군의 위협을 우려하여 후금군의 원조를 요청한 바 있다.[252] 그러나 홍타이지는 원병을 보내지는 않고, 오바에게 눈 호르친의 여러 호쇼가 가까이에 모여서 아루의 아바가와 잇대어 유목할 것을 강권하였다.[253] 아루 諸집단의 남하와 뒤이은 호르친의 목지 이동은 릭단의 위협을 틈타 아루와 눈 호르친 몽골인에 대한 후금의 통제를 강화하고 릭단과의 충돌을 회피하려는 홍타이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릭단의 아루 원정이 반드시 아루 몽골인이 후금으로 이탈하는 결과만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후금 측에서는 후금으로 도망쳐 온 투항민의 경우에 한해서만 일방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明朝檔案』에서는 그와 반대로 후금에 귀부했던 몽골인들이 릭단에게로 투항해오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1631년 이월, 宣府ㆍ獨石口 변외에서 住牧하던 하라친의 부얀 타이지 휘하의 케우켄 호쇼치는 천여 명을 데리고 후금으로부터 달아나 릭단에게 투항하였다.[254] 같은 해 오월에는 후금에 귀부하였던 호르친의 천여 호가 돌연 릭단에게 귀부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255] 宣府巡撫가 수집한 첩보에 의거한 기록이라 상세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같이 몽골인이 대규모로 후금에서 도망쳐 차하르로 투항한 기록은 후금 측 문헌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256]

아루 몽골에 대한 릭단의 공세는 1631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먼저 사

---

250) 『淸太宗實錄』 卷7, 天聰四年 十一月 甲午ㆍ丙申ㆍ壬寅ㆍ癸卯, p. 107; 加藤直人, 『逃人檔』, 東京: 東北アジア文獻硏究會, 2007, 第164ㆍ166ㆍ170號, pp. 78-80.
251)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174-176.
252)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p. 121-124.
253) 『舊滿洲檔』 7, 天聰五年 閏十一月 十九日, pp. 3447-3448.
254) 『明朝檔案總匯』 9, 崇禎四年 二月 八日, pp. 100-101.
255) 『明朝檔案總匯』 10, 崇禎四年 五月 十七日, pp. 1-3.
256) 烏雲畢力格, 「明朝兵部檔案中有關林丹汗與察哈爾的史料」, p. 58.

월에 릭단은 백 명을 한 부대로 하는 30隊를 보내서 할하와 아바가를 정탐하였다.[257] 宣大總督 張宗衡은 릭단의 동향과 관련하여 할하와 세 아바가[258]를 정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첩보를 명조에 보고하기도 하였다.[259] 시월에 릭단은 호르친과 교전하고 돌아왔으며,[260] 십일월에는 시라무렌 北岸에 이르러 아루 호르친을 침입하여 크게 노략하였다.[261]

1630~1631년 릭단이 일으킨 아루 원정은 아루 몽골인 대다수가 후금이나 호르친·할하 등지로 달아남에 따라 이들을 완전히 복속시키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원정으로 말미암아 릭단에 관한 소식이 할하 우익을 통해 멀리 러시아까지 전해졌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상당했다. 17세기 초, 러시아는 시베리아 총독을 통해 몽골 고원의 서북단에 위치한 할하 우익의 일파인 호트고이드의 수장 숄로이 우바시 홍타이지와 사신 왕래를 시작하였다. 러시아 차르의 명으로 1620년 중단되었던 양측 간 왕래는 릭단의 아루 원정을 계기로 재개되었다.[262]

1631년 10월, 숄로이 우바시의 뒤를 이어 호트고이드를 통치하던 옴부에르데니는 톰스크 사령관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차기르 칸"의 사람들에 의해 원래 목지에서 밀려나 헴치크 강의 지류로 이동하였다는 급박한 소식을 알리며, 러시아 차르에게 보호를 요청하였다.[263] 여기서 말하는 '차기르 칸'은 '차하르 칸'의 와전으로 릭단을 가리킨다.[264] 그러나 이 무렵 릭단이 아루 諸部와 호르친 등을 공략하고 있었다는 『明朝檔案』의 기록을 감안할 때, 릭단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몽골 고원 서북부에 위치한

257) 『明朝檔案總匯』 9, 崇禎四年 四月 二十四日, pp. 360-362.
258) '세 叔父'를 뜻하는 몽골어 ɣurban abaɣ-a는 칭기스 칸의 동생 주치 카사르·카치운·벨구테이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아루 諸部를 지칭한다.
259) 『明朝檔案總匯』 11, 崇禎四年 十月 十日, pp. 180-181.
260) 『明朝檔案總匯』 12, 崇禎五年 三月 二十日, p. 376.
261) 『淸太宗實錄』 卷10, 天聰五年 十一月 庚寅, pp. 145-146.
262) 숄로이 우바시 홍타이지와 러시아 측의 사신 왕래에 대해서는 姑茹瑪, 「17世紀 20~30年代喀爾喀蒙古與沙俄的關系」, pp. 75-77 참조.
263) *Рус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1607-1636*, p. 163; М. И. 戈利曼, Г. И. 斯列薩爾丘克, 『俄蒙關係歷史檔案文獻集』 上, 馬曼麗, 胡尙哲 譯, 蘭州: 蘭州大學出版社, 2014, pp. 180-181.
264) John F. Baddeley, *Russia, Mongolia, China*, vol. 2, 1919; repr., Mansfield Centre, CT: Martino Publishing, 2006, p. 103, n. 3.

호트고이드까지 원정을 나섰을 리 만무하다.[265] 다만, 릭단의 아루 원정이 할하 좌익 뿐 아니라 우익에게까지 위협으로 다가섰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릭단의 아루 원정 이후 릭단에게 반감을 품은 아루 몽골인들이 후금 측에 가담하면서 反릭단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자 후금의 홍타이지는 차하르를 정벌하기 위해 몽골 세력에 대한 규합에 나섰다. 1631년 칠월 5일, 홍타이지는 호르친의 오바와 아루의 순 두렝에게 각각 명을 치러갈 군사를 동원하라는 글을 보내면서, 말미에 "이듬해 봄에 풀을 보기 전에 차하르로 출병할 것이다. 이 말을 많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언질을 주었다.[266] 마침내 1632년 사월 1일에 홍타이지가 군대를 일으켜 瀋陽 도성을 출발하면서 차하르를 상대로 한 후금-몽골 연합군의 대규모 원정이 시작되었다.[267] 사월 13일, 홍타이지가 집결지인 시라무렌과 遼河의 합류지점에 도착하자 후금 측에 가담한 몽골의 수령들이 속속 군사를 이끌고 모여들었다. 이번 원정에는 1628년 후금-몽골 연합군의 첫 번째 對차하르 원정에 불참하였던 호르친의 오바도 합류하였을 뿐 아니라, 릭단의 아루 원정 이후 새롭게 후금의 영향권에 들어간 옹니우드의 순 두렝을 비롯한 아루의 몽골군도 가세하였다. 후금 측에서는 이때 모여든 군사의 수를 "정확히 10만 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뒤이어 "후대의 사람들이 혹시 거짓말이라고 할까 걱정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자아낸다.[268]

---

265) 러시아 측에서는 릭단 사후 1635년 1월경 '두친 차르' 즉 릭단이, '알틴 짜르' 즉 옴부 에르데니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파악하였다. *Рус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1607-1636*, p. 211;『俄蒙關係歷史檔案文獻集』上, p. 252. '두친 차르'는 '40만 몽골의 군주'를 뜻하는 몽골어 döčin tümen mongγol-un eǰen의 약칭으로 몽골의 대칸을 지칭한다.

266)『舊滿洲檔』7, 天聰五年 七月 五日, pp. 3437-3439.

267)『舊滿洲檔』8, 天聰六年 四月 一日, p. 3742.

268)『舊滿洲檔』8, 天聰六年 四月 十三日, pp. 3751-3754. 彭孫貽는 이때 후금이 이끄는 몽골군의 규모를 5~6만으로 기록하였다.『明史紀事本末補編』卷3,「西人封貢」, p. 1570. 구스노키도 瀋陽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인원을 감안할 때, 원정에 동원된 실제 병력은 10만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호르친을 비롯한 몽골의 병사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楠木賢道,『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p. 131.

후금 측 기록에 의거하여 1632년 후금-몽골 연합군의 두 번째 對차하르 원정 과정을 시간 순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월 18일, 후금-몽골 연합군이 차하르를 공격하러 향하던 도중에 진중의 몽골인 두 명이 말 여섯 마리를 훔쳐 차하르로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진다.[269] 사월 23일, 이들로부터 홍타이지가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한 릭단은 바이싱에서 소를 두 마리 이상 가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쿠케 데레수[270]라는 곳으로 달아난다.[271] 사월 24일, 릭단이 응전하지 않고 달아나자 홍타이지는 오랜 행군으로 말이 지치고 군량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격을 망설인다.[272] 오월 11일, 홍타이지가 대신들과의 의논 끝에 릭단이 떠난 후흐호트를 노략한 뒤 명 변경을 침입하기로 작전을 변경함에 따라 릭단을 상대로 한 후금-몽골 연합군의 원정은 릭단의 주력군과 한 차례의 교전도 없이 불과 40일 만에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273]

이상 후금 측 기록에 따르면 릭단은 영락없이 홍타이지의 親征에 압도되어 "一戰도 치르지 않고 앞서 멀리 달아난" 것에 불과하다.[274] 그러나 하기와라는 후금-몽골 연합군과 차하르군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감안했을 때, 양측 간에 투항자들이 오고가기에는 후금 측 기록의 날짜 간격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에 착안하여 후금 측 기록을 僞作으로 간주하였다.[275] 후금 측의 기록을 전부 부정할 수만은 없겠으나, 적어도 차하르군의 이동을 일방적인 '敗走'로 날조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후 릭단이 사망하는 1634년까지 후금 측 기록에는 차하르에서 이탈하여 후금으로 투항해 온 몽골인에 관한 정보만 있을 뿐 릭단의 행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632~1634년 릭단의 행적은 명 측 기록에 의거하여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明朝檔案』에 따르면 릭단은 1632년 이월 16일 大·小白陽堡를 침범

269) 『舊滿洲檔』 8, 天聰六年 四月 十八日, p. 3760.
270) Mong. Köke Deresün; Ch. 庫黑得勒酥.
271) 『舊滿洲檔』 8, 天聰六年 四月 二十三日, p. 3762.
272) 『舊滿洲檔』 8, 天聰六年 四月 二十四日, p. 3763.
273) 『舊滿洲檔』 8, 天聰六年 五月 十一日, pp. 3771-3772.
274) 和田淸, 『東亞史硏究(蒙古篇)』, p. 555.
275)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硏究』, pp. 365-368.

하여 명조의 軍官을 살해하고 人畜을 노략하였다.[276] 이월 21일 릭단은 張家口 변외에서 십여 리 떨어진 곳에 庫房을 새로 지었다.[277] 이월 23일과 24일 릭단은 명으로부터 얻은 은과 쌀 등을 예하의 몽골인에게 나누어 주었다.[278] 명에서는 이 무렵 릭단이 호르친에서 온 투항자로부터 호르친과 세 아바가가 후금과 연합하여 차하르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우려하였다고 전하고 있다.[279] 홍타이지가 릭단을 공격하기 위해 심양에서 출병한 것이 사월 1일이므로 릭단은 한 달여 전부터 후금-몽골 연합군의 전투태세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릭단이 1632년 사월 23일 쿠케 데레수라는 곳으로 달아나 종적을 감춘 것처럼 기록한 후금 측과는 달리 명 측에서는 그 뒤로도 릭단의 행적을 탐문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1633년 이월 29일 명조의 邊臣 岳守備가 릭단이 사절로 파견한 바이후 자이상에게 후금의 홍타이지가 왔을 때는 어디로 달아났느냐고 묻자, 바이후 자이상은 그 때 차하르의 兵馬는 북쪽을 향해 撒喇漢家로 갔다고 대답하였다.[280] 여기서 撒喇漢은 '사란 칸'의 음역으로 撒喇漢家는 사란 칸이 지배하는 모밍간을 가리킨다.[281] 아루 몽골 가운데 모밍간은 1630년 두르벤 케우케드 · 옹니우드 · 아루 호르친의 수장들이 후금의 홍타이지와 화친하고 反차하르 맹약을 맺을 때 동참하지 않았었다.[282] 릭단은 후금군이 출정할 무렵, 후금에 귀

---

276) 『明淸史料』 甲編 第八本, 728上.

277) 『明淸史料』 丁編 第四本, 324上 [p. 51], "今有揷酋王子帶領部落到於邊外地名新修庫房駐下, 離邊十餘里."

278) 『明朝檔案總匯』 12, 崇禎五年 三月 二十日, p. 377.

279) 『明朝檔案總匯』 12, 崇禎五年 三月 二十日, pp. 376-377, "今又聞說, 好兒趁下夷人三四名來投揷漢王子, 報說, 好兒趁、古兒半啞不哈家要往東與奴酋合兵一處, 剿殺揷酋."

280) 烏雲畢力格, 「明朝兵部檔案中有關林丹汗與察哈爾的史料」, p. 70, "岳守備回說, 「先日奴酋前來, 你們逃往何處去, 此時爲何不來要賞」. 擺忽宰省回稱, 「奴酋來時我們兵馬往北去撒喇漢家, 如今就叫奴酋來, 我們正要與他廝殺」."

281) 羅布桑丹畢堅贊, 『大蒙古國根本黃金史』, 格日樂 譯注,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14, pp. 61, 182-183. 모밍간은 아루 몽골 가운데 훌룬 부이르 북쪽에서 유목하던 집단이며, 17세기 초까지 그 통치자는 카사르의 후예 중에서 유일하게 '칸'號를 가지고 있었다. 姑茹瑪, 「ハルハ · セツェン · ハーン部に服屬した漠南モンゴル諸部」, p. 89.

282) 『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p. 64; Di Cosmo and Bao, *Manchu-Mongol Relations*, pp. 116-117.

부하지 않은 채 '칸'을 칭하며 세력을 유지하던 모밍간을 상대로 원정을 떠나고 있었던 것이다.

1632년 구월 5일 차하르에서 獨石口로 투항해 온 세 사람은 같은 해 칠월 7일 차하르와 보로 호르친 · 아바가 간에 교전이 있었으며 자신들이 차하르 영내에서 도망친 팔월 3일 릭단은 克列路에 머물렀다고 한다.[283] 릭단이 아루 몽골과 교전 중이었으며 獨石口까지 한 달 남짓 이동해야 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克列路는 케룰렌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84] 『舊滿洲檔』의 다른 기사에 의하면 후금 측에서도 추격 끝에 차하르군이 케룰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흥미롭게도 이 기록은 후대에 편수된 『滿文老檔』이나 『淸太宗實錄』에는 빠져있다.[285] 결국 1632년 사월에서 팔월 사이에 릭단은 아루 몽골을 상대로 원정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1632년 사월 23일 차하르에서 도망쳐 온 몽골인이 후금 측에 릭단의 행선지로 전한, "달 호수에서 가면 월말에 도달한다"는 쿠케데레수라는 곳도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달 호수[286]에서 북쪽으로 일주일가량 떨어진 홍안령 이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릭단이 바이싱, 즉 후흐호트와 그 주변 정주 취락지에서 소를 두 마리 이상 가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간 것 역시 후금군을 두려워하여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아루 원정을 위해 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32년 삼월경, 호르친 및 세 아바가와 후금의 연합 가능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릭단이 후금에 가담하지 않은 모밍간 등 아루 몽골인을 자신의 세력으로 삼기 위해 출정하였고, 후금-몽골 연합군은 그보다 늦은 사월에서야 차하르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한 것이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후금 측 기록에 따르면 1633년 이월 1일 아루 호르친의 수장들이 후

---

283) 『明淸史料』 乙編 第一本, 94上-94下.

284) 寶音初古拉, 『察哈爾萬戶硏究』, p. 339.

285) 『舊滿洲檔』 8, p. 4009, "天聰 한의 여섯째 해(1632) 여름 첫 달(사월)의 초하루. 아이신(金)의 대군이 차하르를 정벌하러 갈 때, 차하르 칸이 듣고서 거한 곳 유목한 故地를 버리고서 케르 아자르간(Ker Ajargan), 케룰렌(Kerulen)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 갔다. 아이신의 군대가 40일 뒤쫓았는데도 따라잡지 못했다."

286) Mong. Dal Nayur; Ch. 大兒湖. 오늘날 내몽골자치구 赤峰市 케식텐旗 達里諾爾.

금에 귀부하였다.[287] 여기서 아루 호르친의 수장으로 언급된 체겐 칸, 구무 홍바투르, 다르마 다이군은 모두 모밍간의 수장층에 해당한다.[288] 1630년 두르벤 케우케드 · 옹니우드 · 아루 호르친 등이 차하르군의 공격을 받고 후금에 귀부하였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모밍간 수장층이 후금의 홍타이지를 朝見한 것도 1632년 릭단의 원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모밍간 수장층이 후금에 입조함에 따라 릭단은 이들을 정복하지 못한 채 원정에서 돌아왔다.

大同太監 劉文忠이 1633년 삼월 8일 殺胡堡에 교역하러 온 몽골인으로부터 얻은 첩보에 따르면 릭단은 歸化城에 며칠을 머물다가 大靑山 뒤편으로 옮겨갔다고 한다.[289]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1633년 이월 29일 릭단은 명 변경에 바이후 자이상을 사절로 파견하여 명에서 릭단에 대한 은 8만 1천 냥을 비롯한 '賞' 지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하여 교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릭단이 아루 원정을 떠난 사이 후흐호트를 점령한 후금-몽골 연합군이 人畜을 노략하고 민가와 식량을 불태웠기 때문에 릭단이 귀환했을 때 후흐호트는 황폐화되어 있었다.[290] 더군다나 홍타이지는 후흐호트를 떠난 뒤로 殺胡堡 · 得勝堡 · 張家口 등 명 변경의 관원들을 위협하여 차하르에 줄 재물을 거두어 갔다.[291] 명조에서는 기대와 달리 릭단이 후금의 공격을 막아줄 '外藩'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 수십

---

287) 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東京: 東洋文庫, 2003), 天聰七年 二月 一日, p. 15.

288) 메르겐 게겐의 『黃金史』 중 모밍간의 계보에 따르면 이들의 명칭은 각각 와치르투 칭산 칸과 그의 숙부인 구무 투루이, 다르마 두르킴에 해당한다. 羅布桑丹畢堅贊, 『大蒙古國根本黃金史』, pp. 61, 183.

289) 烏雲畢力格, 「明朝兵部檔案中有關林丹汗與察哈爾的史料」, p. 70, "密問各夷說稱, 我的王子先在歸化城住了幾日, 今移住大靑山後屹漢啞波地方, 離邊騎馬行走有四五日路程."

290) 1632년 오월 27일 후흐호트를 점령한 홍타이지는 같은 해 유월 8일 후흐호트를 떠날 때까지 방화와 살육 · 약탈을 자행하였다. "성벽을 허물었다. 민가와 관아에 불 놓았다. 식량을 못 쓰게 만들었다"(『舊滿洲檔』 8, p. 4043), "人畜을 도합 10만 남짓 노획하였다. 11,380인을 죽였다"(『舊滿洲檔』 8, p. 4054)라는 후금군의 잔혹행위와 관련된 『舊滿洲檔』의 구절은 후대에 『淸太宗實錄』을 개수할 때는 모두 삭제되었다. 齊木德道爾吉, 「天聰六年愛新國大軍征略庫庫和屯史實解讀(二)」, pp. 7, 16.

291) 『舊滿洲檔』 8, 天聰六年 六月 八日, p. 3788; 六月 十三日, p. 3794; 六月 二十二日, pp. 3798-3799.

만에 달하는 金絹을 요구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였다.[292] 후금-몽골 연합군의 약탈과 방화로 근거지가 파괴되고 명 변경에서 얻던 공물마저 후금군이 가로챈 상황에서 명조와의 교섭도 여의치 않자, 릭단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릭단은 黃河를 건너 오르도스와 함께 河西 일대를 공격하였다. 1633년 오월 11일 릭단은 오르도스와 5만여 騎로 寧夏를 노략하기 시작하였다.[293] 이듬해 삼월부터 오월까지 릭단은 寧夏와 甘肅 일대를 연달아 침범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294] 오르도스의 군대를 이끌고 명의 서북 변경을 공략하던 릭단은 1634년 시라탈라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다.

릭단의 사망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1634년 오월 하순 릭단이 張家口 변외에서 주둔하고 있다는 撫夷總兵 王世忠의 첩보를 신뢰한다면 그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295] 릭단의 사망 소식은 각지에 전해졌는데, 후금 측에서 가장 먼저 이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淸太宗實錄』 天聰 8년(1634) 윤팔월 7일조에 따르면 후금 측에서는 장정 6천 명과 戶를 전부 이끌고 홍타이지에게 투항해 온 차하르의 四大 자이상으로부터 릭단이 시라탈라에서 천연두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296] 당시 청해 일대에서의 천연두 창궐에 관한 정황은 "차하르 칸의 군대에 漢地에서 감염된 천연두가 청해에서 발병하여, 몽골 좌익 방면에서부터 짱 방면으로 번졌다"라는 『제5대 달라이 라마 자서전』의 1636년경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97] 명 측에서는 1634년 십일월 9일에서야 차하르에서 투항해온 세 명의 몽골인으로부터 릭단의 사망 소식을 접

---

292) 『明朝檔案總匯』 14, 崇禎六年 四月 十七日, pp. 270-271, "國家之邊患, 莫大於 揷、奴. 揷歲費金絹數十萬, 冀其爲我外藩, 與奴爲難. 乃奴來則去, 奴去又來, 稍不隨其要求, 輒搶掠迎恩堡以洩忿."

293) 『國榷』 卷92, 崇禎六年 五月 壬寅, p. 5610.

294) 『國榷』 卷93, 崇禎七年 三月 丙午, p. 5634; 四月 己卯, p. 5637; 五月 癸巳, p. 5639.

295) 烏雲畢力格, 「明朝兵部檔案中有關林丹汗與察哈爾的史料」, pp. 73-75.

296) 『淸太宗實錄』 卷20, 天聰八年 閏八月 庚寅, p. 261.

297)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rgyal dbang lnga pa'i rang rnam*, vol. 1, fol. 80b [p. 160]; 五世達賴喇嘛, 『五世達賴喇嘛傳』 上, p. 104.

하였는데, 여기서도 그 사인을 천연두라고 전하고 있다.[298] 1634년 12월경에는 러시아 측에서도 할하 우익의 옴부 에르데니를 통해서 차하르의 "두친 차르", 즉 릭단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299]

하기와라는 『國榷』 崇禎 7년(1634) 사월 辛酉條[300]를 근거로 릭단의 사망 시점을 그보다 이른 1634년 이월이나 삼월경으로 추정하였다.[301]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홍타이지가 같은 해 오월 후금에 투항한 차하르 부중으로부터 릭단의 죽음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윤팔월까지 발표를 늦추었다고 주장하였다.[302] 그러나 릭단의 사망을 기록한 『國榷』 崇禎 7년 사월 辛酉條는 릭단이 寧夏를 침범했다는 『國榷』 崇禎 7년 오월 癸巳條[303]와도 모순될 뿐 아니라, 홍타이지가 릭단의 사망 소식을 고의로 은폐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릭단 사망 이후의 전개 과정을 보더라도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마자 재빨리 행동에 나서는 것이 차하르와 관련된 이권 선점에 유리했을 것이다. 따라서 『淸太宗實錄』 天聰 8년 윤팔월 7일조에 근거하여 차하르의 四大 자이상이 릭단 사후 후금에 투항해 오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릭단의 사망 시기는 1634년 팔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04]

그렇다면 릭단은 왜 이 무렵 청해 이북의 시라탈라에 있었을까. 릭단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차하르 진영이 와해됨에 따라 그가 애초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할하의 촉투 홍타이지가 청해에 오고 나서 릭단에게 보냈다고 전해지는 『몽골佛敎史』(1819)의 기록은 릭단의 행선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 우리의 이 나라(몽골)에 예전부터 사꺄파의 가르침이 퍼졌는데, 오늘날 겔룩파가 퍼지고 있으므로 그것(겔룩파)을 퇴치하면 좋을 것입니다.[305]

---

298) 『明朝檔案總匯』 18, 崇禎七年 十一月 十六日, p. 104.
299) *Рус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1607-1636*, p. 208; 『俄蒙關係歷史檔案文獻集』 上, p. 248.
300) 『國榷』 卷93, 崇禎七年 四月 辛酉, p. 5635, "初虎墩兎憨患宣大者數年, 至是卒."
301)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硏究』, pp. 345-348.
302)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硏究』, pp. 369-370.
303) 『國榷』 卷93, 崇禎七年 五月 癸巳, p. 5639, "揷漢虎墩兎憨犯寧夏."
304) 烏雲畢力格, 「明朝兵部檔案中有關林丹汗與察哈爾的史料」, p. 81.

이에 따르면 촉투는 릭단에게 티베트 불교의 신흥 종파인 겔룩파 박멸을 명분으로 내세워 동맹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까르마파로 대표되는 紅帽派와 겔룩파의 별칭인 黃帽派 간의 대립과 반목에 주목하여 촉투와 릭단의 동맹을 이른바 '反겔룩파' 결탁으로 인식해 온 경향이 있다.[306] 그러나 위 인용문은 후대에 까르마파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겔룩파 측에서 남긴 佛教史의 기록인 만큼 독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블라디미르초프가 지적했듯이 촉투가 릭단에게 동맹을 제의한 동기를 문면 그대로 신앙심의 발로라는 종교적 측면에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307]

촉투는 청해로 오기 전에 할하에서 1601년부터 1617년까지 17년에 걸쳐 여섯 개의 티베트 불교 사원을 건립했을 정도로 열성적인 불교도였다. 오카다는 촉투가 사원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석비의 비문을 새긴 인물의 이름에 붙어 있는 "까르마"라는 칭호로부터 그가 일찍부터 까르마파의 신봉자였다고 주장하였다.[308] 그러나 정작 이 비문을 티베트문으로 지은 인물은 제3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하여 할하에 불교를 전파하였던 겔룩파의 시레투 구시 초르지였다.[309] 따라서 촉투가 할하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겔룩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10]

---

305) gu shrī dka′ bcu tshe ′phel, *History of Buddhism in Mongolia*, ed. Louis Ligeti, New Delhi: Sharada Rani, 1981, fol. 20b [p. 14]; 固始格噶居巴·洛桑澤培, 『蒙古佛教史』, 陳慶英, 烏力吉 譯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0, p. 20.

306) 紅帽派와 黃帽派 간 '종교 전쟁'의 맥락에서 촉투와 릭단의 동맹을 파악한 연구로는 Georg Huth와 К. Ф. Голстунский의 논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研究』, pp. 350-351 참조.

307) Владимирцов, "Надписи на скалах халхаского Цокту-тай джи 2," pp. 233-234.

308) 岡田英弘, 「Čoγtu Qong Tayiǰi について」,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1, 1968, p. 122. 이 비문의 탁본은 W. Radloff, *Atlas der Alterthümer der Mongolei*, St. Petersburg: Buchdruckerei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892, p. LX에 실려있다.

309) Владимирцов, "Надписи на скалах халхаского Цокту-тай джи 2," p. 217.

310) 촉투 홍타이지는 1635년에야 까르마파와 결탁하여 본격적으로 겔룩파와 그 추

촉투가 릭단에게 동맹을 제의한 동기를 종교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할하에서 청해로 오기까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얀 칸의 아들 게레센제의 셋째·넷째 아들의 후손들이 주축을 이루는 할하 좌익의 노얀들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수차례 회합하여 법령을 제정하였다.[311] 이 가운데 1614년 구월 1일에 아바타이의 손자인 굼부 투시예투 칸을 비롯하여 할하 좌익의 노얀 24명이 連名하여 제정한 법전에서 촉투 홍타이지는 다섯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312] 비록 할하 좌익 네 호쇼의 長은 아니었으나, 촉투는 아바타이의 조카로 톨 강 유역에 차간 바이싱이라 불리는 성채를 건설하고 세를 과시하였다.[313]

오이라드로부터 몽골 제국의 옛 수도인 카라코룸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아바타이가 1585년 에르데니 조 사원을 건립하고 이듬해 제3대 달라이 라마에게서 칸 칭호를 받은 이래로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는 할하를 몽골의 중심으로 여기며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촉투가 1624년 歸敬偈와 六字眞言을 새긴 磨崖碑文을 보면 그는 주류 지배층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문에는 刻石 연도가 "몽골의 후툭투 칸의 때에, 칭기스 칸께서 탄생하신 물-말해(壬午年, 1162) 이래로 464년 되는 때"라고 적혀 있다.[314] 후

종 세력 타도에 나섰으며, 이때의 동기 역시 종교적 측면보다는 티베트 종파와 얽혀 있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金成修,『明淸之際藏傳佛敎在蒙古地區的傳播』,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pp. 54-57.

311) 1970년 몽골-소련 공동 고고학 조사대가 몽골 볼간아이막 다신칠렌솜 하르보흐 유적의 한 불탑 안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몽골문과 티베트문으로 기록된 문서 수십 점을 발견하였다. 이 가운데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할하에서 편찬된 법률 문서, 이른바 '白樺法典'에 대해서는 二木博史,「白樺法典につい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硏究』21, 1981 참조.

312) Х. Пэрлээ, "Халхын шинэ олдсон цааз-эрхэмжийн дурсгалт бичиг," in *Монгол ба төв Азийн орнуудын соёл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хоёр хо вор сурвалж бичиг*, ed. Х. Пэрлээ and Ш. Бира, Улаанбаатар: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йн хэвлел, 1974, pp. 42, 92.

313) 촉투 홍타이지의 家系와 그가 건설한 차간 바이싱에 대해서는 岡田英弘,「Čoγtu Qong Tayiǰi について」, pp. 113-116 참조.

314) Če. Damdinsürüng, *Mongγol uran ǰokiyal-un degeǰi ǰaγun bilig orusibai*, Ulaγanbaγatur: Bügüde nayiramdaqu mongγol arad ulus-un sinǰileküi uqaγan ba degedü bolbasural-un küriyeleng-ün keblel, 1959, p. 278.

툭투 칸은 릭단의 칸號로, 연도를 할하 좌익의 수장인 투시예투 칸이 아니라 릭단의 재위기로 표기하였다는 것은 곧 촉투가 일찍부터 릭단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315]

1627년 릭단이 對우익 원정에 나선 이래로 몽골인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전란은 할하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동을 초래했다. 그 정황에 대해서 제5대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예전에 몽골 여섯 大部에는 朝廷과 맹약이 있었다. 차하르 칸이 [조정과 맹약을] 깨뜨렸을 때 전란 때문에 일부 피란민들이 할하 무리로 왔다. [할하의] 수령들 내에서 서로 분쟁이 벌어진 까닭으로 할하의 촉투가 고국에서 쫓겨나 青海로 왔다.[316]

戰禍를 피해 차하르에서 이탈하거나 릭단의 공세에 밀려난 몽골의 유민들이 대거 할하로 망명해 오면서 이들을 둘러싸고 할하에서도 내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차하르와 아바가에서 온 유민을 흡수하여 자기 세력으로 삼은 할하 좌익의 숄로이 세첸 홍타이지는 칸으로 추대되어 '마하사마디 세첸 칸'이라 칭하며 위세를 떨쳤다.[317] 반면에 릭단의 종주권을 인정해오던 촉투는 할하 좌익 내에서 벌어진 세력 경쟁에서 밀려나 결국 할하에서 추방을 당하였다.

촉투가 청해에 다다랐을 무렵, 청해 일대는 돌론 투메드의 홀로치 노얀이 지배하고 있었다. 홀로치는 『青海史』에서 그가 "청해에 오래 머무는 동안 黃帽 겔룩파의 가르침이 티베트와 암도·캄, 몽골에 널리 퍼졌

---

315) Владимирцов, "Надписи на скалах халхаского Цокту-тай джи 2," pp. 232-233.

316)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gangs can yul gyi sa la spyod pa'i mtho ris kyi rgyal blon gtso bor brjod pa'i deb ther rdzogs ldan gzhon nu'i dga' ston dpyid kyi rgyal mo'i glu dbyangs*, in *The Collected Works (Gsung-'bum) of Vth Dalai Lama, Ngag-dbang Blo-bzang Rgya-mtsho*, vol. 19, Gangtok, Sikkim: Sikkim Research Institute of Tibetology, 1993, fol. 108b [p. 218]; 五世達賴喇嘛, 『西藏王臣記』, 劉立千 譯注, 北京: 民族出版社, 2000, p. 127.

317) 姑茹瑪, 「ハルハ·セツェン·ハーン部に服屬した漠南モンゴル諸部」, pp. 101-102.

다"라고 칭송될 정도로 열성적인 겔룩파의 후원자였다.[318] 또한 제5대 달라이 라마의 저술에 따르면 홀로치는 제4대 달라이 라마와 施主-應供僧 관계를 맺었던 겔룩파의 一大 시주이기도 하였다.[319] 1632년 촉투는 청해 일대의 투메드를 격파하고 홀로치를 쫓아낸 뒤 청해를 자신의 근거지로 삼았다.[320]

촉투가 할하에서 밀려난 뒤 청해로 와서 겔룩파를 후원해 오던 투메드를 패퇴시킨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와 정치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상대로는 할하 및 투메드와 대립하던 릭단이 가장 적합했을 것이다. 촉투는 릭단에게 사꺄파를 부흥시키기 위해 겔룩파를 타도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양자 간 동맹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사꺄파와 겔룩파라는 종파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사꺄파는 몽골 제국 시기의 질서 회복을 상징하는 반면, 겔룩파는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상징한다는 데 있다. 바로 이 점이 릭단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의명분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릭단 역시 단순히 겔룩파를 탄압하기 위해 촉투와 결탁했다기보다는,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촉투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릭단이 청해 방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수정 거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끝내 [릭단이] 黃敎를 멸하려는 의도를 일으키고 있을 때, 티베트 나라의 짱땅의 한 왕[321]이 黃敎에 신앙이 없어 시나브로 해악을 끼치고 있었다. 그와

---

318) sum pa mkhan po, *mtsho sngon gyi lo rgyus*, fol. 3a [p. 977]; Yang, *Annals of Kokonor*, pp. 11, 29-30.

319)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mchod yon nyi zla zung gi khrims yig*, [s.l.]: [s.n.], [n.d.], fol. 4b. 여기에서 제3~5대 달라이 라마와 供施 관계를 맺은 몽골 및 오이라드의 세속 통치자로 알탄 칸, 홀로치 노얀, 구시 칸이 차례로 언급되고 있다.

320) dkon mchog bstan pa rab rgyas, *yul mdo smad kyi ljongs su thub bstan rin po che ji ltar dar ba'i tshul gsal bar brjod pa deb ther rgya mtsho*, vol. 1, New Delhi: Sharada Rani, 1977, fol. 38a [p. 75]; 智觀巴 · 貢卻乎丹巴繞吉, 『安多政敎史』, 吳均, 毛繼祖, 馬世林 譯, 蘭州: 甘肅民族出版社, 1989, p. 39.

321) 1621년 이후로 데시 짱빠(sde srid gtsang pa)의 자리는 까르마 땐꽁 왕뽀(karma bstan skyong dbang po, 1606~1642)가 맡고 있었다.

함께 릭단 칸이 마음이 맞아 글로 상의하고 있는 동안, 만주의 세첸 칸(홍타이지)의 대군이 차하르를 정복하러 오자, 자기 고장과 속민을 버리고 달아났다. 서쪽 땅으로 떠나 黃敎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카툰들, 자식들과 더불어 군대를 데리고서 가는 길에 맨 끝의 투메드와 오르도스의 호쇼, 오르도스의 지농 에린첸의 카툰을 강탈하고 지농의 칭호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나서 칭기스의 遺骸의 오르두의 앞에서 릭단 바투르라고 하는 칭호를 선포하고 칭기스의 유해를 이동시켜 모시고 위쪽으로(서쪽으로) 떠났다. 그 때에 릭단 칸의 몸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비롯한 흉조가 됨에 유해를 되돌려 모셔두러 와서 몇천 개의 銀器를 봉헌하고 祭를 지내 참배하고 나서 위쪽으로 서쪽 땅으로 떠났다.[322] (밑줄은 인용자)

문면 그대로 보면 릭단은 黃敎, 즉 겔룩파를 타도하기 위해 까르마파를 신봉하는 티베트 짱의 영주와 결탁하였다가 후금군의 진격 소식을 듣고 서쪽으로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만주-겔룩파의 지배 서사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릭단의 경로를 살펴보면 그가 도중에 오르도스의 八白室에 들렀다는 점이 눈에 띈다. Ⅰ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칸은 여섯 만호를 소집하여 칭기스 칸의 영묘에 제를 올리고 즉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투멘 이후로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릭단의 오르도스行에는 대칸이 八白室 앞에서 즉위식을 거행해 온 전통을 되살리려는 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즉 릭단이 오르도스의 지농 칭호를 박탈하고 칭기스 칸의 영묘 앞에서 릭단 바투르라고 하는 칭호를 선포한 행위는 우익의 지농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에 대한 대칸의 우위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릭단은 八白室에 모셔진 칭기스 칸의 유해를 가져갔다가 흉조가 나타나자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고 한다. 칭기스 칸의 유해에 함부로 손을 댔기 때문에 릭단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하는 인과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蒙古源流』에 1634년 무렵 차하르의 자이상이 칭기스 칸의 白室을 모시고 오르도스로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릭단이 오르도스에 있던 칭기스 칸의 영묘를 가지고 이동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323] 이와 비

322) ǰimbadorǰi, *Bolur toli*, MS. Mong. 350, fol. 68r-68v.

슷한 사례는 1538년 보디가 좌·우익을 소집하여 우량한에 대한 원정을 떠날 때, 우익 진영에서 칭기스 칸의 白室을 가지고 왔다는『알탄 칸傳』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24] 결국 릭단이 칭기스 칸의 유해를 가지고 이동했다는 일화는 릭단이 후금군에 쫓겨 패주하는 와중에도 칭기스 칸의 권위에 집착한 나머지 不敬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칭기스 칸의 영묘를 앞세우고 오르도스의 몽골군을 동원하여 서쪽으로 출정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630년부터 1632년까지 이루어진 릭단의 아루 원정은 흥안령 이북의 몽골인을 복속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릭단 휘하의 몽골인마저 후금과 할하 등지로 이탈하면서 릭단의 세력 기반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릭단이 아루 원정을 떠난 사이 후금-몽골 연합군이 후흐호트를 점령하고 명 변경에서 재물을 거두어 감에 따라 명으로부터 얻는 '賞'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릭단은 대칸으로서의 권위를 재확립하고 세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즉 1634년 릭단의 西行은 후금 측 기록에 남아 있는 것처럼 후금군을 두려워하여 달아난 무분별한 패주가 아니라, 칭기스 칸의 권위를 빌려 대칸으로서의 통솔권을 공고히 하고 촉투를 비롯한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전략적 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323) 岡田英弘,『蒙古源流』, p. 315.
324) 吉田順一 他,『『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p. 123.

Ⅴ. 릭단의 유산을 둘러싼 경쟁

1634년 릭단이 시라탈라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몽골 통일을 갈구하던 릭단의 야망은 좌절되고 말았다. 천연두가 진중에서 창궐하는 와중에 릭단이라는 구심점을 상실한 휘하의 몽골인들이 사분오열하면서 차하르 진영은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회를 틈타 후금 측에서는 재빠르게 차하르 유민에 대한 포섭에 나섰다.

1635년 이월 26일, 홍타이지는 도르곤을 파견하여 릭단의 후계자인 에제이 홍고르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하였다.[325] 오월 27일, 도르곤은 시라줄게에서 릭단의 첫째 카툰 낭낭 태후와 소놈 타이지가 이끄는 천오백 戶의 항복을 받았고, 黃河를 건너 오르도스의 톨리투[326]에서 릭단의 셋째 카툰 수타이 태후와 에제이를 만났다.[327] 후금 측에 있던 여허 출신의 난추가 누이인 수타이 태후에게 후금에 투항할 것을 권유하자 마침내 에제이는 도르곤을 만나 후금에 귀순할 것을 하늘과 땅에 맹세하였다.[328] 릭단의 妻子가 후금에 來降하자 홍타이지는 에제이를 자신의 둘째 딸 마카타와 혼인시켜 부마로 삼고, 낭낭 태후는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다.[329]

---

325) 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 『舊滿洲檔: 天聰九年』 1 (東京: 東洋文庫, 1972), 天聰九年 二月 二十六日, p. 83.

326) 오늘날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市 우신旗 술데솜 톨리가차 부근.

327) 『舊滿洲檔: 天聰九年』 1, 天聰九年 五月 二十七日, pp. 150-151.

328) 『舊滿洲檔: 天聰九年』 1, 天聰九年 五月 二十七日, pp. 151-152.

329) 릭단에게는 여덟 명의 카툰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낭낭 태후와 竇土門福金(Man. deo tumen i fujin)은 홍타이지가 후궁으로 삼았고, 수타이 태후는 홍타이지의 사촌동생 지르갈랑이, 베키 태후는 홍타이지의 맏아들 호오거가, 울제이투 태후는 홍타이지의 형 아바타이가 각각 아내로 맞았다. 홍타이지는 본래 낭낭 태후를 자신의 형인 다이샨에게 아내로 맞게 하였으나, 다이샨은 낭낭 태후에게 재물과 가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수타이 태후와의 혼인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지르갈랑이 사별한 전 부인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수타이 태후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자, 다이샨은 결국 릭단의 누이동생 타이순 공주와 혼인하였다. 릭단의 카툰들과 통혼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후금의 지배층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과 그로부터 촉발된 다이샨의 실각 과정에 대해서는 松村潤, 「天聰九年のチャハル征

릭단의 카툰과 아들을 비롯한 차하르의 유민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한 후금 측에서는 몽골 대칸의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에 신속히 착수하였다. 후금군은 수타이 태후와 에제이의 항복을 받으면서 차하르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른바 '傳國玉璽'를 입수하였다. 『舊滿洲檔』은 이때 후금에 넘겨진 옥새의 내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호쇼이 머르건 다이칭 버일러, 요토 버일러, 사할리얀 버일러, 호오거 버일러가 차하르국을 정벌하고서 획득하여 가져온 玉璽는 옛 역대 帝王들이 사용해 온 것을 몽골의 大元國이 얻어서 토곤 테무르 칸에 이르렀다. 그 뒤, 한인의 大明國의 太祖 洪武帝에게 정권을 빼앗김에 大都城을 버리고서 달아나 사막으로 갈 때, 그 옥새를 가지고 갔다. 토곤 테무르 칸이 應昌府城에서 崩御한 뒤로 그 옥새는 분실된 지 이백여 년이 되었다. 境外의 몽골인 한 사람이 산등성이 아래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을 때, 산양 한 마리가 사흘 동안 풀을 먹지 않고 땅을 파는 것을 알아채고서, 그 사람이 산양이 판 곳을 파보자 옥새를 얻었다. 그로부터 그 옥새는 몽골의 대원국의 후예 보쇽투 칸에게 있었다. 보쇽투의 나라를 같은 대원국의 후예인 차하르국의 릭단 칸이 습격하여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옥새를 얻었다. [옥새가] 차하르 칸의 妻 수타이 태후 푸진(夫人)에게 있다고 머르건 다이칭, 요토, 사할리얀, 호오거 네 버일러가 듣고서, "가져오라"하고 수타이 태후에게서 취하여 보니, '制誥之寶'라는 네 글자의 한문이 적혀 있었다. 두 마리 용이 똬리를 틀어 紐를 만들었으니 과연 진정한 보배의 옥새임이 틀림없었다. 다 함께 크게 기뻐하며 "우리 한에게 복이 있어서 이 옥새를 하늘이 주셨으리라"하고 거두어 취하였다.[330]

본래 전국새는 秦代에 李斯가 "受命於天 旣壽永昌" 여덟 자를 새겨 始皇帝에게 바친 이래로 역대 중원 왕조의 帝王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통치권의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위 인용문에 나오는 옥새는 '制誥之寶'로 전국새는 아니었다.[3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금에서는 차하르로부터 건

討をめぐる諸問題」, pp. 56-61 참조.

330) 東洋文庫淸代史硏究室 譯註, 『舊滿洲檔: 天聰九年』 2 (東京: 東洋文庫, 1975), 天聰九年 八月 二十六日, pp. 250-251.

331) 何啓龍은 홍타이지가 손에 넣은 制誥之寶에 사용된 서체가 원대 御寶에 쓰인 九疊篆이 아니라 명대 御寶의 서체에 더 가깝다는 점을 근거로, 이것을 北元에서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何啓龍, 「蒙元和滿淸的「傳國玉璽」神話: 兼論佛敎「二敎之門」的虛構歷史」, 『新史學』 19-1, 2008, pp. 22-27.

네받은 이 옥새를 '전국새'라고 주장하며 天命이 홍타이지에게 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활용하였다.[332]

'전국새'가 후금 측에 넘어오게 되자 甲喇章京 鮑承先은 홍타이지의 덕을 칭송하며 이를 보관할 寶函의 제작과 더불어 대신들을 이끌고 나가 "하늘이 주신 보배"를 맞이하고 詔書에 이를 날인하여 여진인·漢人·몽골인들에게 널리 알릴 것을 청하였다.[333] 이에 따라 홍타이지는 대신들을 이끌고 성 밖에 나가 차하르에서 항복해 온 릭단의 카툰과 아들을 맞이하고 '전국새' 상속 의식을 치름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하였다.[334] 朝鮮에서 사신이 오자 홍타이지는 "차하르 칸의 옥새"를 꺼내 보이며 천명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과시하기도 하였다.[335] 이어서 홍타이지는 조선 국왕에게 서신을 보내 "40만 몽골의 군주" 차하르 칸의 부중이 모두 후금에 투항한 사실을 알렸다.[336] 앞서 누르하치가 부정한 바 있던 '40만 몽골의 군주'라는 릭단의 자칭을 홍타이지가 거론한 것은 릭단 사후 자신이 칭기스 칸에 비견될 만한 몽골 전체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었다.[337]

그림 1 '傳國璽'(1637년, 印文은 '制誥之寶',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淸太宗詔諭』(한貴古朝51-다23)의 세 번째 문서)

---

332) 1294년 쿠빌라이 사후 칸으로 즉위한 成宗 테무르가 자신의 칸위 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한 상징물로 傳國璽를 활용한 선례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Herbert Franke, *From Tribal Chieftain to Universal Emperor and God: The Legitimation of the Yüan Dynasty*, München: Verlag der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978, pp. 42-45 참조.

333) 『舊滿洲檔: 天聰九年』2, 天聰九年 八月 六日, pp. 235-236. 崇德 연간 청조에서는 이 '制誥之寶'의 역사적 권위와 정치적 상징성을 너무나도 중시하고 강조한 나머지 원래 誥命으로 용도가 제한되었어야 할 '制誥之寶'를 황제 명의의 모든 문서에 날인하였다. 구범진, 「崇德年間 淸朝의 朝鮮 王室 冊封과 冊封文書」, 『明淸史硏究』52, 2019, pp. 96-97.

334) 『舊滿洲檔: 天聰九年』2, 天聰九年 九月 六日, pp. 263-264.

335) 『舊滿洲檔: 天聰九年』2, 天聰九年 十月 十五日, pp. 320-321. 홍타이지는 옥새를 종이에 찍어 조선 국왕에게도 보여주게 하였다. 『仁祖實錄』卷31, 仁祖十三年 十一月 戊午, 67下.

336) 『舊滿洲檔: 天聰九年』2, 天聰九年 十二月 二十日, pp. 353-354.

337) 梅山直也, 「淸初におけるホンタイジの對チャハル政策」, p. 33.

릭단의 아들 에제이가 후금에 투항하여 홍타이지에게 '전국새'를 바친 사건을 계기로 후금 내에서는 홍타이지에게 존호를 바치려는 논의가 일었다.[338] 1636년 이월 2일, 후금에 복속한 몽골의 노얀들은 조선 국왕에게 서신을 보내 홍타이지에게 존호를 바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339] 몽골 "열여섯 나라의 마흔아홉 버일러"의 명의로 보낸 이 글에서 에제이 홍고르가 "40만 몽골국의 太子"로 맨 앞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340] 뒤늦게 후금에 투항한 에제이가 다른 몽골의 수령들 사이에서 首位를 차지한 이유는 그의 부친인 릭단이 후금의 지배층과 다른 몽골인 수령들로부터 대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1636년 사월 11일, 홍타이지는 寬溫仁聖皇帝[341]라는 존호를 받는 '受尊號禮'를 거행하였다. 홍타이지는 그 명분으로 조선 정복, 몽골 통일, 옥새 획득이라는 세 가지 위업을 선포하였다.[342]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후금은 조선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있었을 뿐 아니라, 漠北에는 할하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타이지가 내세운 세 가지 명분 가운데 그나마 실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은 制誥之寶의 획득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후금 내에서만 홍타이지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표상으로 작용했을 뿐, 후금의 통제 바깥에 있었던 漠北의 몽골인과 中原의 한인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343]

홍타이지는 종교적 측면에서도 몽골 대칸의 권위를 모방하기 위해 노

---

338) 『舊滿洲檔: 天聰九年』 2, 天聰九年 十二月 二十八日, pp. 369-370.

339) 「後金天聰十年二月初二日金國外藩各蒙古貝勒奉朝鮮國王書」, 『中國國家博物館館藏文物研究叢書: 明淸檔案卷 淸代』, 中國國家博物館 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pp. 6-9. 조선 조정에서는 몽골 버일러가 조선 국왕에게 보낸 글이 격에 맞지 않는다며 접수를 거부하였다. 『仁祖實錄』 卷32, 仁祖十四年 二月 己亥, 10上-10下.

340) 구범진은 한문으로 작성된 이 서신에 찍힌 인장이 "dorolon i jurgan i doron", 즉 "禮部之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서신을 당시 후금에서 禮部 업무를 관장하던 사할리얀의 작품으로 간주하였다. 구범진, 「1636년 <金國外藩各蒙古貝勒奉朝鮮國王書>의 서식과 인장」, 『東亞文化』 58, 2020, pp. 196-200.

341) Man. gosin onco hūwaliyasun enduringge han; Mong. aɣuda örüšiyegči nayiramdaqu boɣda qaɣan.

342) 『淸太宗實錄』 卷28, 天聰十年 四月 十一日, pp. 360-362.

343) 鍾焓, 「1635年皇太極獲取"制誥之寶"的政治意義試析: 以傳國玉璽與成吉思汗哈斯寶的性質比較爲中心」, 『淸史研究』, 2021-1, pp. 22-26.

력하였다. 1635년 차하르의 메르겐 라마[344]가 차하르에서 보관하던 마하칼라像을 가지고 자신에게 귀부해 오자, 홍타이지는 이를 天運이 릭단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겼다.[345] 홍타이지는 조선 국왕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면서 마하칼라像을 모셔두기 위한 절을 짓는 데 사용되는 안료를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346]

1636년 정월에는 홍타이지가 마하칼라像에 각종 예물을 공양하고 아홉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叩頭한 뒤, 샤르빠 후툭투의 유해를 도금한 銀塔 안에 봉안하였다.[347] 티베트에서 마하칼라像을 가져와 릭단과 施主-應供僧 관계를 맺었던 샤르빠 후툭투의 유해를 후금의 수도 근교에 위치한 탑에 모신 것은 홍타이지가 사꺄파 고승의 종교적 권위를 의식하고 이를 계승하려는 목적에서 꾸민 일이었다.

1638년 팔월 12일, 홍타이지는 수도인 묵던(盛京) 교외에 實勝寺를 창건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동쪽에는 만주문과 한문, 서쪽에는 몽골문과 티베트문으로 새긴 석비를 세웠다.[348] 여기에는 마하칼라像이 쿠빌라이와 릭단을 거쳐 홍타이지에게 전해진 내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大元國의 世祖 쿠빌라이 세첸 칸의 때에, 팍빠 라마가 천 냥의 금으로 구르 마하칼라像을 주조해서 五臺山에서 제사지냈다. 그 뒤에 사꺄 땅으로 가져가서 제사지냈다. 후에 大元國의 칸들의 후예 차하르의 릭단 칸이 샤르빠 후툭투를 초청할 때, 마하칼라像을 가지고 와서 제사지냈다. 大淸國의 寬溫仁聖

---

344) 그루퍼는 1635년 마하칼라像을 가지고 후금에 귀순한 메르겐 라마를 1628~1629년 몽골문 간주르 역경을 주관한 뀐가 외세르와 동일 인물로 보았다. Samuel Martin Grupper, "The Manchu Imperial Cult of The Early Ch'ing Dynasty: Texts and Studies on the Tantric Sanctuary of Mahākāla at Mukden," PhD diss., Indiana University, 1980, pp. 91, 124, n. 53. 뀐가 외세르의 명칭은『金輪千輻』에 "뀐가 외세르 메르겐이라고 하는 만주시리 빤디따 구시"라고 기록되어 있다. Dharma, *Altan kürdün mingγan gegesütü*, fol. Ⅲ, 24v [p. 49].

345)『內國史院檔: 天聰八年』, 天聰八年 十二月 十五日, p. 390.

346)『舊滿洲檔: 天聰九年』2, 天聰九年 七月 二十五日, pp. 216-217.

347)『舊滿洲檔』10, 天聰十年 正月 六日, pp. 4605-4606.

348) 河內良弘 譯註,『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 崇德二·三年分』(京都: 松香堂書店, 2010), 崇德三年 八月 十二日, pp. 530-531. 實勝寺의 정식 명칭은 蓮華淨土實勝寺이며, 일명 黃寺라고도 한다.

皇帝가 차하르국을 정벌하고 복종시킬 때, 메르겐 라마가 마하칼라像을 가지고 항복해 온 것을 성스러운 한이 알고서 라마들로 하여금 예로써 맞이하게 하고 묵던城의 서쪽에 있게 하고서, “인도자 부처와 가르침의 수호자 마하칼라를 함께 세워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땅의 좋음을 살펴보고서 묵던城의 서쪽 3俱盧舍[349] 땅의 가장자리에 “佛座와 三身의 의지처를 세워라”라고 工部의 관리들에게 명하였다. …… 사원의 동·서편에 두 건물을 짓고, 동쪽 건물에는 석가모니의 108 본생담과 말의 의지처인 경전들을, 서쪽 건물에는 구르 마하칼라를, 남쪽 건물에는 四天王을 세우고 그 앞에 大門과 라마승들이 거처하는 방과 식당, 자바라·종 등 악기와 모든 공양물을 완전히 갖추었다. 崇德 원년 붉은 쥐해(丙子年, 1636) 가을의 첫 달에 착공해서, 崇德 3년 노란 범해(丙寅年, 1638)에 준공하였다.[350]

碑文의 말미에는 실승사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실승사를 건립할 때 佛菩薩像의 배치 일체를 지도한 자로 빌릭투 낭소라는 인물이 명기되어 있다. 빌릭투 낭소는 앞서 차하르에서 메르겐 라마가 마하칼라像을 가지고 후금으로 투항할 때 그를 맞이하였던 승려로, 『제5대 달라이 라마 자서전』에서는 그가 “오르派 샤르빠의 還俗僧”이라고 전하고 있어 샤르빠 후툭투와 마찬가지로 사꺄파 계열의 승려임을 알 수 있다.[351] 홍타이지에게 샤르빠 후툭투의 유해를 탑에 안치하고 실승사의 서쪽 건물에 마하칼라像을 안치할 것을 조언한 인물은 다름 아닌 빌릭투 낭소였을 것이다.

---

349) Skt. krośa; Tib. rgyang grags. 佛經에 나오는 거리 단위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최대 거리를 의미한다. 한문과 만문에서는 里(Man. ba)로 해석하였다. 나카무라는 도성의 서쪽 3리에 건설된 勅建 티베트 불교 사원이라는 점에서 實勝寺가 1270년 쿠빌라이가 팍빠를 위해 大都의 서쪽 3리에 건립한 大護國仁王寺의 사례와 부합한다고 보았다. 中村淳, 「チベットとモンゴルの邂逅: 遙かなる後世へのめばえ」, 『岩波講座世界歷史 11: 中央ユーラシアの統合: 9-16世紀』, 樺山紘一 他 編, 東京: 岩波書店, 1997, p. 141.

350) 인용문은 몽골문을 저본으로 삼아서 번역하였다. 實勝寺 四體碑文의 전사 및 역주는 石濱裕美子, 「淸初勅建チベット佛敎寺院の總合的硏究」, 『滿族史硏究』 6, 2007, pp. 2-14 참조. 실승사비 탁본은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351)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rgyal dbang lnga pa'i rang rnam*, vol. 1, fol. 198b [p. 396]; 五世達賴喇嘛, 『五世達賴喇嘛傳』 上, p. 242. 빌릭투 낭소에 대해서는 李勤璞, 「畢力兎朗蘇: 淸初藏傳佛敎的顯揚者」, 『瀋陽古宮博物院院刊』 1, 2005 참조.

그림 2 마하칼라像 (1908년, 內藤湖南編, 『(增補)滿洲寫眞帖』, 東京: 小林寫眞製版所出版部, 1935, no. 76)

한편, 실승사의 마하칼라樓 연기 설화에 따르면 天聰 9년(1635) 릭단의 모친이 흰 낙타에 마하칼라像과 金字喇嘛經, 전국새를 싣고 가다가 낙타가 엎드려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마하칼라樓를 세웠다고 한다.[352] 여기서 金字喇嘛經은 릭단의 명으로 1629년 완성된 황금 간주르를 가리키므로, 실승사의 동쪽 건물에 안치한 경전 중에는 차하르로부터 입수한 황금 간주르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02년과 1905년에 실승사를 답사한 나이토가 東佛殿에서 릭단의 재위기에 간행된 金字蒙文藏經을 발견함으로써 마하칼라像 뿐 아니라 릭단의 황금 간주르도 실승사에 안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353] 이처럼 홍타이지는 1636년 '황제 즉위식'에 이어 1638년 실승사 낙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함으로써 '전국새'와 마하칼라像으로 각각 표상되는 몽골의 政·敎를 계승하였음을 선언하였다.[354]

릭단의 죽음은 후금에 복속하지 않았던 몽골의 수장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릭단의 우익 정복으로 차하르에 병합된 이래로 릭단이 주도하는 아루 원정과 河西 공략에 동원되었던 오르도스의 몽골인은 차하르

352) 王河 等 修, 『欽定盛京通志』(臺北: 文海出版社, 1965) 卷26, 「祠祀」, '實勝寺', p. 1259, "又有嗎哈噶喇樓, 天聰九年, 元裔察哈兒林丹汗之母, 以白駝載嗎哈噶喇佛金像, 並金字喇嘛經、傳國璽至此, 駝臥不起, 遂建此樓, 有碑文足據." 이 이야기는 메르겐 라마가 마하칼라像을 가지고 후금에 항복해 왔다는 實勝寺 碑文과는 모순된다. 그러나 그 話素는 後漢 明帝 때 迦葉摩騰과 竺法蘭이 白馬에 佛經과 佛像을 싣고 洛陽에 온 사건을 계기로 낙양성 西陽門 밖 3리에 白馬寺를 창건했다는 설화나, 송쩬감뽀의 청혼으로 文成公主가 라싸로 향할 때 석가모니 불상을 실은 마차의 바퀴가 모래에 빠져 움직이지 않자 그 자리에 라모체 사원을 창건했다는 설화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353) 實勝寺에 보관된 金字蒙文藏經의 유래에 대해서는 內藤湖南, 「燒失せる滿蒙文藏經」, 『內藤湖南全集』 7, 東京: 筑摩書房, 1970, pp. 427-438 참조. 나이토가 일본으로 반출한 뒤로 東京帝國大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金字蒙文藏經은 1923년 關東대지진 때 소실되었다.

354) 石濱裕美子, 「淸初勅建チベット佛敎寺院の總合的硏究」, pp. 23-24.

만호가 동요하는 틈을 타 사강 세첸을 필두로 하여 차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355] 릭단이 가져갔던 칭기스 칸의 八白室을 되찾아 자신의 목지로 돌아오는 데 성공한 오르도스의 에린첸 지농은 마침내 1634년 八白室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그 앞에서 칸으로 즉위하였다.[356] 이듬해에는 릭단의 아들 에제이 홍고르가 이끄는 차하르의 유민이 후흐호트로 향하는 도중에 오르도스 지방을 통과하자, 에린첸은 에제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그와 동맹을 맺기도 하였다.[357] 이처럼 오르도스의 지농은 릭단 사후 차하르의 지배에서 벗어난 데 이어 릭단의 아들과 그 유민들에 대한 통치까지 시도함으로써 몽골의 칸으로 군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에린첸 지농의 야심은 차하르 유민에 대한 지배권을 독차지하려는 후금 측의 위협에 직면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1631년 '차하르 칸'의 공세에 밀려 러시아 차르에게 보호를 요청하였던 할하 우익 호트고이드의 수장 옴부 에르데니는 1635년 러시아의 차르에게 재차 서신을 보냈다. 여기서 "황금 法輪을 굴리는 자, 에르데니 칸"을 자칭한 옴부 에르데니는 러시아 측에 릭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친족을 대신 보내 차르에게 충성을 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358] 사실상 릭단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지자 자신이 직접 차르에 대한 臣服을 맹세하기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릭단의 아루 원정을 계기로 재개되었던 할하 우익과 러시아의 관계는 릭단 사후 옴부 에르데니가 태도를 바꾸어 차르에 대한 臣屬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그 뒤로 십여 년간 단절되었다.[359]

릭단이 1632년 서쪽으로 이동하기 전부터 차하르에서 이탈한 유민들을 받아들여 세력을 키워나간 할하 좌익의 수장들은 릭단 사후 몽골인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할하 좌익의 세첸 칸 숄로이는 릭

355) 岡田英弘, 『蒙古源流』, p. 314.
356) 岡田英弘, 『蒙古源流』, p. 315.
357) 『舊滿洲檔: 天聰九年』 1, 天聰九年 五月 二十七日, pp. 154-155.
358) *Рус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1607-1636*, p. 242, no. 110; Henry Serruys, "Three Mongol Documents from 1635 in the Russian Archives," *Central Asiatic Journal* 7, no. 1, 1962, pp. 19-23.
359) 姑茹瑪, 「17世紀20～30年代喀爾喀蒙古與沙俄的關系」, pp. 78-79.

단의 妻子와 그 예하에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 자신에게로 來附할 것을 종용하였다.

> 옴! 安康 성취하기를.
> 뭇사람에게 추대된 마하사마디 세첸 칸의 聖旨.
> 태후, 에르케 皇子, 젤메 다르한 노얀을 비롯한 몇몇 자이상들에게 글 준다. 이전부터 홍 노얀을 잡아서 보내고, 각자의 말을 서로 공경하여 각자의 사업을 서로 이룩해 왔다. 이후로도 罪過 없었으나, 나라의 혼란에 이리로 저리로 서로 왕래하지 못하였다. 우리 각자에게 過失 없고 원한 없었다. 칸이 승천하고, 너희 전부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듣고, 가을 이래로 哨探으로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칸에게 宗親이고, 속민들 너희에게는 主君이다. 주저 없이 와야 마땅하다. 저고리와 두루마기라고 하듯이 태후는 내 카툰에게 여동생이다.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고 한다면, 政體로도, 태어난 것으로도, 가까운 자는 나인 것이다. 거듭 마음속으로 돌이켜 생각하여 결정하라.
> 나의 사신의 이름은 가르마 첸부이 반디다, 붕숙 [에르케] 키야 둘이다. 예물은 말 한 마리이다. 吉祥![360]

릭단의 부중이 자신에게로 귀부해야 하는 이유로 세첸 칸 숄로이는 자신이 릭단과 혈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릭단과 숄로이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얀 칸이라는 공통 조상에서 만나게 되므로 양자가 동족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더해 숄로이는 릭단의 태후에게 자신과 인척이라는 점을 내세워 할하로의 귀부를 주장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숄로이의 카툰은 아하이 카툰에 해당하며, 릭단의 태후는 그의 첫째 카툰인 낭낭 태후를 가리킨다. 아하이 카툰과 낭낭 태후는 모두 아바가의 수령 도르지의 딸로 친자매 사이였다.[361] 후금 측에서도 여허 출신의 난추를 보내서 그의 누이인 수타이 태후를 회유하였듯이, 숄로이도 同氣之親을 이용하여 릭단의 카툰에게 귀순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릭단의 카툰과 에제이를 회유하려는 숄로이의 시도는 1635년 오월 27

---

360) 『舊滿洲檔: 天聰九年』 1, 天聰九年 五月 二十七日, p. 160. 이 서신에 대한 문헌간 대조 및 譯註는 齊木德道爾吉, 「外喀爾喀車臣汗碩壘的兩封信及其流傳」, pp. 8-13 참조.

361) 姑茹瑪, 『喀爾喀車臣汗部研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16, pp. 130-131.

일, 에제이가 후금에 투항함으로써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때 후금 측에 보내는 다른 한 통의 서신에서도 할하의 수장들은 몽골인에 대한 자신들의 종주권을 주장하였다.

> 옴 스와스티 신담! 安康 있을지어다!
> 마하사마디 세첸 칸, 투시예투 칸, 세첸 지농을 비롯한 大小 노얀.
> 물가의 63姓의 主君되는 세첸 칸(후금의 홍타이지)에게 글 올려 바치오.
> 글 바치는 연유. 칸 된 자에게 玉[의] 大政과 모두에게 들리는 훌륭한 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政·敎를 흥성하게 하는 명예를 함께 구합시다. 우리 여섯 만호의 군주가 영도하지 못했소. 그가 [영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칸 宗親에 우리 외에 [다른 사람] 없기 때문에 玉[의] 大政을 보존하고 있소, 우리가. 이 大政을 생각하면 이리로 저리로 각자의 사신을 부단히 [보내서] 문안하기를 행합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가 고귀한 사람의 生 얻어 권력을 지닌 칸 되어 태어난 공덕이지 않겠소 라고 고하오.
> 사자의 이름은 가르마 초이발 세첸 반디다이오.[362]

이 서신에는 발신인으로 세첸 칸 숄로이 외에도 그와 더불어 할하 좌익의 양대 칸에 해당하는 투시예투 칸 굼부를 비롯하여 세첸 지농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첸 지농은 보디의 손자로 본래 차하르를 구성하던 우줌친을 관할하였으나, 릭단이 한창 정복전을 벌일 무렵 部衆을 이끌고 할하 좌익의 숄로이에게 몸을 의탁하였다.[363] 할하 좌익의 실력자였던 세 사람은 한편으로는 후금의 홍타이지에게 사신 왕래를 통해 和好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야말로 "여섯 만호의 군주" 즉 릭단과 일족으로서 몽골인에 대한 "玉의 大政"을 지킬 자격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숄로이는 1636년 후금에 정식으로 사절을 파견하였을 때도 홍타이지에게 전달한 서신의 冒頭에서 자신이 "칭기스 칸의 황금 씨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364] 칭기스 혈통을 유지하고 있

---

362) 『舊滿洲檔: 天聰九年』 1, 天聰九年 五月 二十七日, pp. 159-160. 이 서신에 대한 문헌 간 대조 및 譯註는 齊木德道爾吉, 「外喀爾喀車臣汗碩壘的兩封信及其流傳」, pp. 3-8 참조.

363) 姑茹瑪, 「ハルハ・セツェン・ハーン部に服屬した漠南モンゴル諸部」, pp. 99-100.

는 할하 지배층 입장에서 몽골 여섯 만호의 종주권이 여진 출신의 홍타이지의 수중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語不成說이었다.

릭단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대칸의 정통성 계승을 둘러싼 후금과 할하의 대결은 후금(청)이 할하에 대한 우위를 확립하기까지 한동안 계속되었다.[365] 대칸의 정통성 계승의 명분으로 후금 측에서는 릭단의 아들 에제이의 투항과 '전국새' 및 마하칼라像의 획득을, 할하에서는 그 수장층이 릭단과 일족이라는 점을 각각 내세웠다. 바꿔 말하면 홍타이지는 受降에 따른 성취 지위를 앞세워 몽골의 '정권 인수'를 선언한 반면, 할하의 수장들은 혈통에 근거한 귀속 지위를 강조하여 몽골의 '大位 세습'을 주장하였다. 양측 모두 단순히 '차하르 칸'의 자리가 아니라 全몽골에 대한 대칸의 종주권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후금과 할하의 대결은 몽골 통일을 추구하였던 릭단이 남긴 유산을 상속하기 위한 경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64) 『舊滿洲檔: 天聰九年』 2, 天聰九年 十二月 七日, pp. 345-346.

365) 할하와 청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세첸 칸 숄로이의 책동으로 1646년 수니드의 수령 텡기스가 속민을 이끌고 청에서 할하 좌익으로 달아난 이른바 '텡기스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1640년 이후 할하와 청 사이에 불거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齊木德道爾吉, 「1640年以後的淸朝與喀爾喀的關係」,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8-4 참조.

맺 음 말

17세기 초 릭단이 칸으로 즉위할 무렵 몽골은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사실상 독자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다. 오이라드와 우이구드 등을 상대로 정복전을 전개하며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우익 몽골과 달리 대칸이 통솔하던 차하르 몽골은 시라무렌 방면으로 밀려난 뒤로는 요서 일대의 명 변경에서 약탈전을 벌였을 뿐이었다. 다얀 칸 때와 달리 대칸이 주도하는 대규모 정복전이 중단되고 영역 팽창이 한계에 도달한 데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분봉이 거듭됨에 따라 대칸의 권위와 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분권화의 경향은 심화되었다. 16세기 말 이래로 몽골 각 만호의 수장들이 티베트 불교의 권위에 기대어 경쟁적으로 '칸'을 칭하고, 17세기에 들어서는 후금이 요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면서 몽골 내에서의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격동기에 릭단이 대칸을 정점으로 하는 질서를 확립하고 몽골을 통일하기 위해 단행했던 조치들을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Ⅰ장과 Ⅱ장에서는 우선 다얀 사후 격화된 몽골 좌·우익 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칸으로 등극한 릭단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보해 가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다얀 칸 이래로 칭기스 일족인 황금 씨족에 의한 몽골 통치는 회복되었으나, 그의 사후 알탄에 의해 전개된 활발한 정복 전쟁의 결과 우익은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측면에서 좌익을 압도하는 우위를 차지하였다. 계승 분쟁 끝에 어린 나이에 칸위에 오른 릭단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세력을 축출하고 차하르 만호를 대칸의 직속 집단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내부 통치를 안정시켰다. 대외적으로는 요동 일대의 명 변경을 습격하여 명으로부터 '市賞'의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좌익 몽골의 일부 수령들이 후금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데 이어 호르친의 경우에는 릭단을

상대로 후금과 동맹을 체결하기에 이르자 릭단은 무력을 동원하여 좌익 몽골을 병합하였다. 우익을 중심으로 한 몽골 각 만호의 수장들 사이에서는 달라이 라마를 위시한 겔룩파가 성행함에 따라 티베트 불교의 권위에 의지하여 '칸'을 칭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칸들'이 난립하는 세태 속에서 릭단은 칭기스 칸의 직계 후손인 자신이야말로 유일한 대칸임을 천명하고, 몽골 제국 시기에 帝師를 배출해오던 사꺄파의 고승 샤르빠 후툭투를 초청함으로써 우익에 비해 정통성 면에서 완전하게 쿠빌라이와 팍빠의 施主-應供僧 관계를 재현하였다.

Ⅲ장에서는 릭단이 우익 몽골을 상대로 일으킨 정복 전쟁을 분석함으로써 몽골을 통일하고 대칸의 종주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릭단의 의도를 확인하였다. 1627년 하라친 공격으로 시작된 릭단의 통일 전쟁은 같은 해 십일월 투메드의 근거지인 후흐호트까지 점령하고 이듬해에는 挨不哈에서 우익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릭단은 우익에서 명을 상대로 취하던 '賞'까지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게다가 릭단은 후흐호트를 점령하고 銀佛寺를 차지한 뒤 간주르의 몽골어 譯經까지 완성함으로써 알탄 이래 우익으로 기울었던 정치적 · 경제적 · 종교적 주도권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

Ⅳ장에서는 릭단의 아루 원정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릭단이 청해 방면으로 이동한 동기를 할하의 촉투 홍타이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릭단은 우익 정복전에서 자신의 휘하로 편입시킨 우익 군대를 동원하여 흥안령 이북까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아루 몽골인들이 후금과 호르친, 할하 등지로 달아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릭단이 아루 원정을 떠난 사이 후금군이 후흐호트를 약탈하고 명 변경에서 릭단에게 줄 공물을 거두어 감에 따라 릭단의 경제적 기반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후 오르도스 군대를 동원하여 河西 일대의 명 변경을 공략하던 릭단은 1634년 팔월경 시라탈라에서 사망하였다. 릭단의 청해行은 후금 측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릭단이 후금군에 쫓겨 달아났다거나 겔룩파 측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겔룩파를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릭단이 추진한 몽골 통일 전쟁의 여파로

할하에서 쫓겨나 청해에 정착한 촉투 홍타이지를 비롯한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장에서는 릭단 사후 후금과 할하 간에 벌어진 대칸의 정통성 계승을 둘러싼 대결 양상을 살펴보았다. 릭단이 천연두에 걸려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그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한 경쟁이 후금과 할하 양측으로부터 전개되었다. 홍타이지는 릭단의 妻子를 항복시키고 그들에게서 입수한 옥새를 몽골 제국 시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국새'로 규정지어 몽골 대칸의 군주권을 자신이 인수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홍타이지는 차하르 측에서 인수한 몽골 제국 시기의 마하칼라像과 릭단이 완성한 황금 간주르, 샤르빠 후툭투의 유해를 묵던(盛京) 교외에 세운 사원과 탑에 안치함으로써 몽골 대칸과 사꺄파 라마 간의 施主-應供僧 관계까지 모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칭기스 혈통을 유지하고 있던 할하의 지배층은 홍타이지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칸의 정통성이 릭단과 일족인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릭단이 생전에 끊임없이 추구해 온 대칸의 종주권이 그의 사후에야 그와 적대하던 세력들 사이에서 쟁취의 대상이 된 것이다.

본고는 몽골의 마지막 대칸인 릭단에게 초점을 맞추어 17세기 초 몽골의 역사상을 살펴보았다. 릭단 사후 동부유라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만주인과 겔룩파에 의해서 릭단은 포악무도한 인물이자 망국의 군주로 매도되어 왔다. 그러나 후금 측에서 남긴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릭단과 후금 간의 군사적 충돌은 사실상 거의 없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릭단의 일방적인 패주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겔룩파 측 문헌에서 릭단과 촉투의 연합을 '反겔룩파' 동맹으로 기술한 것은 릭단 사후에 벌어진 촉투와 구시 칸 간의 대결 구도를 릭단 생전까지 소급 적용한 결과이며, 실제로는 릭단이 정치적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해로 진출한 것이라는 점을 간취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만주-겔룩파의 지배 서사에서 탈피하여 릭단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의 의도를 분석하고자 시도한 끝에 릭단이 분열된 몽골을 통일하여 대칸을 정점으로 하는 몽골 제국기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치적 야

망을 가진 군주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몽골 각 만호의 수장들이 '칸'을 칭하며 정권의 독립성을 표방하는 와중에 오로지 대칸인 릭단만이 몽골 통일의 의지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비록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릭단의 위업은 미완에 그치고 말았으나, 그 뒤로 全몽골에 대한 종주권을 둘러싼 대결이 후금(청)과 할하 사이에서 벌어졌을 정도로 릭단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 다만 청에 복속된 몽골인들 사이에서 릭단이 어떻게 기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향후 보충할 과제로 남겨 두겠다.

참 고 문 헌

1. 사료*

(1) 한문 사료

『國榷』(談遷, 北京 : 中華書局, 1988 [1958]).

『萬曆武功錄: 中三邊 東三邊 西三邊』(瞿九思 撰 (全2冊), 臺北: 廣文書局, 1972).

『明經世文編』(陳子龍 等 選輯, 北京: 中華書局, 1962).

『明史紀事本末』(谷應泰 撰, 北京: 中華書局, 1977).

『明史紀事本末補編』(彭孫貽 撰,『明史紀事本末』 第4冊, 北京: 中華書局, 1977).

『明實錄』(國立北平圖書館紅格鈔本微捲影印,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2).

『明淸史料: 甲編』(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編, 北平: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30-1931).

『明淸史料: 乙編』(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編, 上海: 商務印書館, 1936).

『明淸史料: 丁編』(中國科學院 編,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08).

『三朝遼事實錄』(王在晉,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崇禎實錄』(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7).

『崇禎長編』(汪楫 撰,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7).

『仁祖實錄』(太白山史庫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中國國家博物館館藏文物研究叢書: 明淸檔案卷 淸代』(中國國家博物館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中國明朝檔案總匯』(中國第一歷史檔案館, 遼寧省檔案館 編 (全101冊),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1).

---

* 해당 사료의 번역본은 그 아래에 나란히 배열하였다. 몽골문 · 티베트문 사료는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成書 연도를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太宗文皇帝實錄』(『淸實錄』 第2冊, 北京: 中華書局, 1985).
『平定察哈爾方略』(勒德洪 撰, 江寧 點校, 「《平定察哈爾方略》」, 『淸史研究通訊』, 1986-3: 46-53).
『皇淸開國方略』(阿桂 等 修, 『淸朝開國方略』, 臺北: 文海出版社, 1967).
『欽定盛京通志』(王河 等 修, 臺北: 文海出版社, 1965).

(2) 만주문 사료
『舊滿洲檔』(國立故宮博物院 編 (全10冊),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舊滿洲檔: 天聰九年』(東洋文庫淸代史研究室 譯註 (全2冊), 東京: 東洋文庫, 1972-1975).
『內國史院檔: 天聰七年』(東洋文庫淸代史研究室 譯註, 東京: 東洋文庫, 2003).
『內國史院檔: 天聰八年 本文』(淸朝滿洲語檔案史料の總合的研究チーム, 東京: 東洋文庫, 2009).
『逃人檔』(加藤直人, 東京: 東北アジア文獻研究會, 2007).
『滿文老檔』(滿文老檔研究會 譯註 (全7冊), 東京: 東洋文庫, 1955-1963).
『滿洲實錄: 滿和蒙和對譯』(今西春秋 譯, 東京: 刀水書房, 1992).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 崇德二·三年分』(河內良弘 譯註, 京都: 松香堂書店, 2010).

(3) 몽골문 사료
『17세기 몽골문 檔案』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李保文 編. *Arban doluduɣar ǰaɣun-u emün-e qaɣ as-tu qolboɣdaqu mongɣol üsüg-ün bičig debter*『十七世紀蒙古文文書檔案: 1600-1650』. 通遼: 內蒙古少年兒童出版社, 1997.
Di Cosmo, Nicola, and Dalizhabu Bao.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A Documentary History*. Leiden; Boston: Brill, 2003.

『金輪千輻』(1739)

Siregetü Guosi Dharma. *Altan kürdün mingγan gegesütü bičig: eine mongolische Chronik*. Edited by Walther Heissig. Kopenhagen: Ejnar Munksgaard, 1958.

『蒙古源流』(1662)

Haenisch, Erich, ed. *Eine Urga-Handschrift des mongolischen Geschichtswerks von Secen Sagang (alias Sanang Secen)*. Berlin: Akademie-Verlag, 1955.

———, ed. *Der Kienlung-Druck des mongolischen Geschichtswerkes Erdeni yin Tobci von Saġang Secen*.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1959.

Saγang Secĕn. *Erdeni-yin Tobči: Mongolian Chronicle*. Edited by Francis Woodman Cleaves, with a critical introduction by Antoine Mostaert. 4 vo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Sanang Sečen. *Qad-un ündüsün-ü Erdeni-yin tobči*.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62.

烏蘭.『《蒙古源流》研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0.

岡田英弘 譯注.『蒙古源流』. 東京: 刀水書房, 2004.

『白樺法典』

Пэрлээ, Х. “Халхын шинэ олдсон цааз-эрхэмжий н дурсгалт би чиг.” In *Монгол ба төв Азий н орнуудын соёл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хоёр ховор сурвалж бичиг*, edited by Х. Пэрлээ and Ш. Бира, 3-139, Улаанбаатар: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 ий н хэвлел, 1974.

『보석 염주』(갈단 著, 1841)

Galdan tusalaɣči. *Erdeni-yin erike kemekü teüke bolai*. Transcribed by J. Gerelbadrakh. Edited by Yo. Janchiv. Ulaanbaatar: Admon, 2007.

『보석 염주』(이시발단 著, 1835)

Isibaldan. *Erdeni-yin erike: mongolische Chronik der lamaistischen Klosterbauten der Mongolei*. Edited by Walther Heissig. Kopenhagen: Ejnar Munksgaard, 1961.

『수정 거울』(1834~1837)

ǰimbadorǰi. *Bolur toli: Spiegel aus Bergkristal*. Edited by Walther Heissig. Kopenhagen: Ejnar Munksgaard, 1962.

『수정 염주』(1774~1775)

Rasipungsuɣ. *Bolor erike: Mongolian Chronicle*. Edited by Francis Woodman Cleaves, with a critical introduction by Antoine Mostaert. 5 vo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아사락치史』(1677)

烏雲畢力格.『《阿薩喇克其史》研究』.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9.

『알탄 칸傳』

珠榮嘎 譯注.『阿勒坦汗傳』.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0.

吉田順一　他　共譯注.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東京: 風間書房, 1998.

Elverskog, Johan.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Leiden; Boston: Brill, 2003.

『恒河之流』(1725)

Гомбоджаб. *Ганга-й ин урусхал*. Edited by Л. С. Пучковский .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60.

鳳曉.「《恒河之流》研究」. 內蒙古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黃金史』(롭상단진 著)

Lubsangdanǰin. *Erten-ü qad-un ündüsülegsen törü yosun-u ǰokiyal-i tobčilan quriyaɣsan Altan tobči kemekü orusibai*. Ulaɣanbaɣatur: Ulus-un keblel-ün ɣaǰar, 1990.

羅桑丹津.『蒙古黃金史』. 色道爾吉 譯. 呼和浩特: 蒙古學出版社, 1993.

『黃金史』(메르겐 게겐著, 1765)

羅布桑丹畢堅贊.『大蒙古國根本黃金史』. 格日樂 譯注.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14.

『黃金史』(저자 미상)

Чой маа, Ш. *Хаадын үндсэн хураангуй Алтан товч*. Edited by М. Баярсай хан.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 н үсэг, 2011.

저자 미상.『역주 몽골 황금사』. 김장구 역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4.

『황금 염주』(1817)

Na ta (納塔). *Altan erike*『金鬘』. 喬吉 校注.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9.

『黃史』

Цендина, А. Д. *Желтая история (Шара туджи)*. Москва: Наука-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2017.

(4) 티베트문 사료

『供施日月法典』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mchod yon nyi zla zung gi khrims yig*. [s.l.]: [s.n.], [n.d.]

『몽골佛教史』(1819)

gu shrī dka' bcu tshe 'phel. *History of Buddhism in Mongolia*. Edited by Louis Ligeti. New Delhi: Sharada Rani, 1981.

固始格噶居巴 · 洛桑澤培.『蒙古佛教史』. 陳慶英, 烏力吉 譯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0.

『암도佛教史』(1865)

dkon mchog bstan pa rab rgyas. *yul mdo smad kyi ljongs su thub bstan rin po che ji ltar dar ba'i tshul gsal bar brjod pa deb ther rgya mtsho*. 3 vols. New Delhi: Sharada Rani, 1975-1977.

智觀巴 · 貢卻乎丹巴繞吉.『安多政教史』. 吳均, 毛繼祖, 馬世林 譯. 蘭州: 甘肅民族出版社, 1989.

『如意寶樹史』(1748)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phags yul rgya nag chen po bod dang sog yul du dam pa'i chos byung tshul dpag bsam ljon bzang*. In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gyi gsung 'bum*. Vol. *ka* (1).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1975.

松巴堪布·益西班覺.『松巴佛教史』. 蒲文成, 才讓 譯. 蘭州: 甘肅民族出版社, 2013.

『제1대 젭준담바傳』(1698~1702)

dza ya paNDi ta blo bzang 'phrin las. *rje btsun dam pa blo bzang*

bstan pa'i rgyal mtshan dpal bzang po'i thun mong ba'i rnam thar bsdus pa. In *Life and Works of Jibcundampa I*, 411-549. New Delhi: Sharada Rani, 1982.

Bareja-Starzyńska, Agata. *The Biography of the First Khalkha Jetsundampa Zanabazar by Zaya Pandita Luvsanprinlei*, Warsaw: Dom Wydawniczy Elipsa, 2015.

『제3대 달라이 라마傳』(1646)·『제4대 달라이 라마傳』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rje btsun thams cad mkhyen pa bsod nams rgya mtsho'i rnam thar dngos grub rgya mtsho'i shing rta*, and, *'jig rten dbang phyug thams cad mkhyen pa yon tan rgya mtsho dpal bzang po'i rnam par thar pa nor bu'i 'phreng ba*. Dolanji H.P.: Tashi Dorje, 1982.

五世達賴喇嘛阿旺洛桑嘉措. 『一世-四世達賴喇嘛傳』. 陳慶英, 馬連龍 譯.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6.

『제5대 달라이 라마 자서전』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rgyal dbang lnga pa'i rang rnam du kU la'i gos bzang*. 3 vols. Kawring, H. P.: Tobdan Tsering, 1979-1983.

五世達賴喇嘛阿旺洛桑嘉措. 『五世達賴喇嘛傳』(上下冊). 陳慶英, 馬連龍, 馬林 譯.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6.

『彰所知論』(1278)

blo gros rgyal mtshan. *shes bya rab gsal*. In *sa skya bka' 'bum*. Vol. *pa* (13), *chos rgyal 'phags pa'i bka' 'bum*, 1-69. Dehra Dun: Sakya Center, 1993.

———. *Prince Jiṅ-Gim's Textbook of Tibetan Buddhism: The Śes-bya rab-gsal (Jñeya-prakāśa)*. Translated and annotated by

Constance Hoog. Leiden: E. J. Brill, 1983.

『青海史』(1786)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mtsho sngon gyi lo rgyus sogs bkod pa'i tshangs glu gsar snyan*. In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gyi gsung 'bum*. Vol. *kha* (2), 973-1009.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1975.

———. *The Annals of Kokonor*. Translated by Ho-Chin Yang. 1969. Reprint, Richmond: Curzon, 1997.

『티베트王臣記』(1643)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gangs can yul gyi sa la spyod pa'i mtho ris kyi rgyal blon gtso bor brjod pa'i deb ther rdzogs ldan gzhon nu'i dga' ston dpyid kyi rgyal mo'i glu dbyangs*. In *The Collected Works (Gsung-'bum) of Vth Dalai Lama, Ngag-dbang Blo-bzang Rgya-mtsho*. Vol. 19, 3-227. Gangtok, Sikkim: Sikkim Research Institute of Tibetology, 1993.

五世達賴喇嘛.『西藏王臣記』. 劉立千 譯注. 北京: 民族出版社, 2000.

『漢地佛教史』(1736)

mgon po skyabs (貢布嘉). *rgya nag chos 'byung*『漢區佛教源流記』. 羅桑旦增 譯.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5.

『漢地-티베트 문서 집성』(1434)

g.yas ru stag tshang pa dpal 'byor bzang po.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2 vols. Thimphu: Kunsang Topgyel and Mani Dorji, 1979.

達倉宗巴 · 班覺桑布.『漢藏史集: 賢者喜樂贍部洲明鑑』. 陳慶英 譯.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86.

(5) 러시아문 사료

Гатауллина, Л. М., М. И. Гольман, Г. И. Слесарчук, eds. *Рус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1607-1636: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9.

M. И. 戈利曼, Г. И. 斯列薩爾丘克. 『俄蒙關係歷史檔案文獻集』(上冊 1607-1636). 馬曼麗, 胡尙哲 譯. 蘭州: 蘭州大學出版社, 2014.

2. 연구서

토마스 바필드. 『위태로운 변경: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윤영인 옮김.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피터 C. 퍼듀. 『중국의 서진: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공원국 옮김. 서울: 길, 2012.

Владимирцов, Б. Я. 『몽골 사회 제도사』. 주채혁 역.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3.

姑茹瑪. 『喀爾喀車臣汗部研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16.

喬吉. 『蒙古佛教史: 北元時期(1368-1634)』.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8.

金成修. 『明淸之際藏傳佛教在蒙古地區的傳播』.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達力扎布. 『明代漠南蒙古歷史研究』. 海拉爾爾: 內蒙古文化出版社, 1997.

寶音初古拉. 『察哈爾萬戶研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19.

烏雲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5.

———. 『十七世紀蒙古史論考』.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9.

玉芝. 『蒙元東道諸王及其後裔所屬部衆歷史研究』.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19.

楠木賢道.『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9.
萩原淳平.『明代蒙古史研究』. 京都: 同明舎, 1980.
和田清.『東亞史研究(蒙古篇)』. 東京: 東洋文庫, 1959.

Baddeley, John F. *Russia, Mongolia, China: Being Some Record of the Relations Between Them from the Beginning of the XVIIth century to the Death of the Tsar Alexei Mikhailovich, A.D. 1602-1676* [⋯]. 2 vols. 1919. Reprint, Mansfield Centre, CT: Martino Publishing, 2006.

Bira, Sh. *Mongolian Historical Literature of the XVII-XIX Centuries Written in Tibetan*. Edited by Ts. Damdinsüren. Translated by Stanley N. Frye. Bloomington, Ind.: The Mongolia Society; The Tibet Society, 1970.

Damdinsürüng, Če. *Mongγol uran ǰokiyal-un degeǰi ǰaγun bilig orusibai*. Ulaγanbaγatur: Bügüde nayiramdaqu mongγol arad ulus-un sinǰileküi uqaγan ba degedü bolbasural-un küriyeleng-ün keblel, 1959.

Franke, Herbert. *From Tribal Chieftain to Universal Emperor and God: The Legitimation of the Yüan Dynasty*. München: Verlag der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978.

Grønbech, Kaare, and John R. Krueger.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Literary) Mongolian: Introduction, Grammar, Reader, Glossary*.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55.

Heissig, Walther. *Die Pekinger lamaistischen Blockdrucke in mongolischer Sprache: Materialien zur mongolischen Literaturgeschicht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54.

———. *Die Familien- und Kirchengeschichtsschreibung der Mongolen*. Vol. 1.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59.

———. *Beiträge zur Übersetzungsgeschichte des mongolischen buddhistischen Kano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 *A Lost Civilization: The Mongols Rediscovered*. Translated by D. J. S. Thoms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66.

———. *Die Zeit des letzten mongolischen Großkhans Ligdan (1604 - 1634)*.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79.

Heissig, Walther, and Charles Bawden, eds. *Catalogue of Mongol Books, Manuscripts and Xylographs*. Copenhagen: The Royal Library, 1971.

Ligeti, Louis. *Catalogue du Kanǰur Mongol Imprimé*. Budapest: Société Kőrösi Csoma, 1942.

Radloff, W. *Atlas der Alterthümer der Mongolei*. St. Petersburg: Buchdruckerei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892.

Serruys, Henry.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 (1368-1398)*.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80. First published 1959.

Tucci, Giuseppe. *Tibetan Painted Scrolls*. Vol. 1. Roma: Libreria dello Stato, 1949.

Касьяненко, З. К. *Кат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рукописного "Ганджура"*. Москва: Наука, 1993.

Позднеев, А. *Монголия и монголы: Результаты поездки в Монголию, исполненной в 1892-1893 гг.* Vol. 2. С.-Петербург: Типография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1898.

3. 연구 논문

구범진. 「崇德年間 淸朝의 朝鮮 王室 冊封과 冊封文書」. 『明淸史硏究』 52, 2019: 71-106.

———. 「1636년 <金國外藩各蒙古貝勒奉朝鮮國王書>의 서식과 인장: 실물 문서로 드러나는 병자호란 전야 후금 · 조선 관계의 이면」. 『東亞文化』 58, 2020: 179-206.

김석환. 「13~14세기 몽골제국 勅令制度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성수. 「17세기 '할하(Qalq-a) 중심론'의 형성과 티벳불교」. 『中央아시아硏究』 7, 2002: 27-57.

———. 「17~18세기 몽골의 동아시아 인식과 대외정책」. 『중국 없는 중화』,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49-84. 인천: 인하대학교출판부, 2009.

———. 「17世紀初 滿蒙 關係와 內陸 아시아: 만주-호르친·몽골 관계를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82, 2013: 61-92.

———. 「몽골 제국 붕괴 이후 쿠빌라이계의 활동과 그 한계」. 『몽골학』 39, 2014: 29-63.

김호동. 「라시드 앗 딘(Rashīd al-Dīn, 1247-1318)의 『中國史』 속에 나타난 '中國' 認識」. 『東洋史學硏究』 115, 2011: 1-53.

노기식. 「後金時期 만주와 몽골의 聯盟 관계」. 『明淸史硏究』 11, 1999: 1-35.

———. 「홍타이지의 反릭단 滿蒙聯盟 확대와 이용」. 『中國學論叢』 13, 2000: 167-198.

———. 「만주의 몽골 차하르부 병합과 그 의미」. 『中國學論叢』 14, 2001: 63-90.

이선애. 「滿文史料를 통해 본 後金시기 滿 · 蒙 관계」. 『明淸史硏究』 49, 2018: 171-222.

조병학. 「後金의 察哈爾 복속 과정 연구」. 『몽골학』 12, 2002: 127-160.

姑茹瑪.「17世紀20～30年代喀爾喀蒙古與沙俄的關系: 以林丹汗西遷爲中心」.『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2019-4: 75-79.
達力扎布.「有關察哈爾部西遷的若干問題」.『淸史硏究』, 1997-4: 45-53.
———.「察哈爾林丹汗病逝之“大草灘”考」.『民族硏究』, 2018-5: 99-108.
戴鴻義.「論林丹汗的敗亡」.『社會科學輯刊』, 1992-5: 92-97.
薄音湖.「俺答汗征兀良哈史實」.『紀念校慶二十五周年學術論文集: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專利』, 1982: 93-105.
———.「關於察哈爾史的若干問題」.『蒙古史硏究』5, 1997: 198-218.
樊志强.「林丹汗敗亡原因探析: 以林丹汗個人及蒙古內部因素爲中心」. 內蒙古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寶音德力根.「15世紀前後蒙古政局、部落諸問題硏究」. 內蒙古大學 博士學位論文, 1997.
楊强.「論林丹汗的敗亡」.『大連民族學院學報』, 2010-2: 103-106.
烏雲畢力格.「史料的二分法及其意義: 以所謂的“趙城之戰”的相關史料爲例」.『淸史硏究』, 2002-1: 79-85.
王雄. 「察哈爾西遷的有關問題」.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9-1: 1-11.
李勤璞.「盛京嘛哈噶喇考證: 滿洲喇嘛敎硏究之一」.『藏學硏究論叢』 7, 《藏學硏究論叢》編委會 編, 95-120.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95.
———.「畢力兎朗蘇: 淸初藏傳佛敎的顯揚者」.『瀋陽古宮博物院院刊』 1, 2005: 46-75.
鍾焓.「1635年皇太極獲取“制誥之寶”的政治意義試析: 以傳國玉璽與成吉思汗哈斯寶的性質比較爲中心」.『淸史硏究』, 2021-1: 1-27.
齊木德道爾吉.「外喀爾喀車臣汗碩壘的兩封信及其流傳」.『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4-4: 1-16.
———.「1640年以後的淸朝與喀爾喀的關係」.『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8-4: 12-20.
———.「天聰六年愛新國大軍征略庫庫和屯史實解讀(一): 以《滿文原檔》

爲中心」.『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4: 5-13.
———. 「天聰六年愛新國大軍征略庫庫和屯史實解讀(二): 以《滿文原檔》爲中心」.『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5: 5-17.
包金同.「科爾沁部與後金第一次盟誓地考」.『內蒙古民族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4: 14-16.
何啓龍.「蒙元和滿淸的「傳國玉璽」神話: 兼論佛敎「二敎之門」的虛構歷史」.『新史學』19-1, 2008: 1-50.
希都日古.「試論林丹汗西征的後果及其敗亡」.『內蒙古社會科學』, 1999-2: 36-39.
M. 額爾敦巴特爾.「蒙古林丹汗《蒙古文金字甘珠爾經》的若干問題」.『몽골학』28, 2010: 31-44.

岡田英弘.「Čoγtu Qong Tayiǰi につい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1, 1968: 111-125.
———.「ダヤン・ハーンの六萬戶の起源」.『東洋史論叢: 榎博士還曆記念』, 榎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編纂委員會 編, 127-137. 東京: 山川出版社, 1975.
姑茹瑪.「1620～30年代にハルハ・セツェン・ハーン部に服屬した漠南モンゴル諸部」.『日本とモンゴル』51-1, 2016: 88-105.
內藤湖南.「燒失せる滿蒙文藏經」.『內藤湖南全集』7, 427-447. 東京: 筑摩書房, 1970.
梅山直也.「淸初におけるホンタイジの對チャハル政策」.『內陸アジア史研究』34, 2019: 27-48.
森川哲雄.「中期モンゴルのトゥメンについて: 特にウルスとの關係を通じて」.『史學雜誌』81, 1972: 32-54.
———.「チャハル・八オトクとその分封について」.『東洋學報』58, 1976: 127-162.
———.「十七世紀初頭の內蒙古における三人の佛敎の高揚者について」.『蒙古史研究』1, 1985: 161-173.

———.「大元の記憶」.『比較社會文化』14, 2008: 65-81.
石濱裕美子.「清初勅建チベット佛教寺院の總合的研究」.『滿族史研究』 6, 2007: 1-39.
———. 「リンデン=ハーン碑文に見るチャハルのチベット佛教」.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79, 2010: 121-143.
松村潤.「天聰九年のチャハル征討をめぐる諸問題」.『清朝と東アジア: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編纂委員會編, 49-69. 東京: 山川出版社, 1992.
若松寛.「明末内蒙古土默特人の青海進出: ホロチ-ノヤンの事跡」.『京都府立大學學術報告: 人文』37, 1985: 87-96.
永井匠.「アルタン・ハーンのハーン号について」.『早稲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別冊: 哲學・史學編』18, 1991: 125-136.
二木博史. 「白樺法典について」.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21, 1981: 49-73.
中村淳.「チベットとモンゴルの邂逅: 遙かなる後世へのめばえ」.『岩波講座世界歴史 11: 中央ユーラシアの統合: 9-16世紀』, 樺山紘一 他 編, 121-146. 東京: 岩波書店, 1997.

Di Cosmo, Nicola. “Military Aspects of the Manchu Wars against the Čaqars.” In *Warfare in Inner Asian History (500-1800)*, edited by Nicola Di Cosmo, 337-367. Leiden; Boston: Brill, 2002.
———. “Competing strategies of Great Khan Legitimacy in the Context of the Chaqar-Manchu Wars (c. 1620-1634).” In *Imperial Statecraft: Political Forms and Techniques of Governance in Inner Asia, Sixth-Twentieth Centuries*, edited by David Sneath, 243-261. Bellingham, WA: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for Mongolia and Inner Asia Studies Unit, University of Cambridge, 2006.
Grupper, Samuel Martin. “The Manchu Imperial Cult of The Early

Ch'ing Dynasty: Texts and Studies on the Tantric Sanctuary of Mahākāla at Mukden." PhD diss., Indiana University, 1980.

Hagiwara Junpei. "The Political Ideas of Lindan Khan." In *Proceedings of the Third East Asian Altaistic Conference, August 17-24, 1969, Taipei, China*, edited by Ch'en Chieh-hsien and Sechin Jagchid, 97-107. 臺北: 國立臺灣大學, 1969.

Hangin, Gombojab. "The Mongolian Titles ǰinong and Sigeǰi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0, no. 3, 1980: 255-266.

Heissig, Walther. "Zur geistigen Leistung der neubekehrten Mongolen des späten 16. und frühen 17. Jhdts." *Ural-altaische Jahrbücher* 26, 1954: 101-116.

Kim, Hanung. "Renaissance Man From Amdo: The Life and Scholarship of the Eighteenth-Century Amdo Scholar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1704-1788)." PhD diss., Harvard University, 2018.

Kollmar-Paulenz, Karénina. "The Mongolian Kanjur: Some Remarks about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In *Монгол Ганжуур: Ол он улсын судалгаа*, edited by С. Чулуун, 17-36. Улаанбаатар: Admon, 2017.

Okada, Hidehiro. "The Ordos Jinong in Erdeni-yin Tobči."『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27, 1984: 155-162.

———. "Dayan Khan in the Battle of Dalan Terigün." In *Gedanke und Wirkung: Festschrift zum 90. Geburtstag von Nikolaus Poppe*, edited by Walther Heissig and Klaus Sagaster, 262-270.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9.

———. "Origin of the Čaqar Mongols." *Mongolian Studies* 14, 1991: 155-179.

———. "The Chakhar Shrine of Eshi Khatun." In *Aspects of Altaic*

Civilization III: Proceedings of the Thirtieth Meeting of the Permanent International Altaistic Conference,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diana, June 19-25, 1987, edited by Denis Sinor, 176-186. 1990. Reprint, Richmond: Curzon, 1997.

Serruys, Henry. "Three Mongol Documents from 1635 in the Russian Archives." *Central Asiatic Journal* 7, no. 1, 1962: 1-41.

Van der Kuijp, Leonard W. J. "The Dalai Lamas and the Origins of Reincarnate Lamas." In *The Dalai Lamas: A Visual History*, edited by Martin Brauen, 15-31. Chicago: Serindia Publication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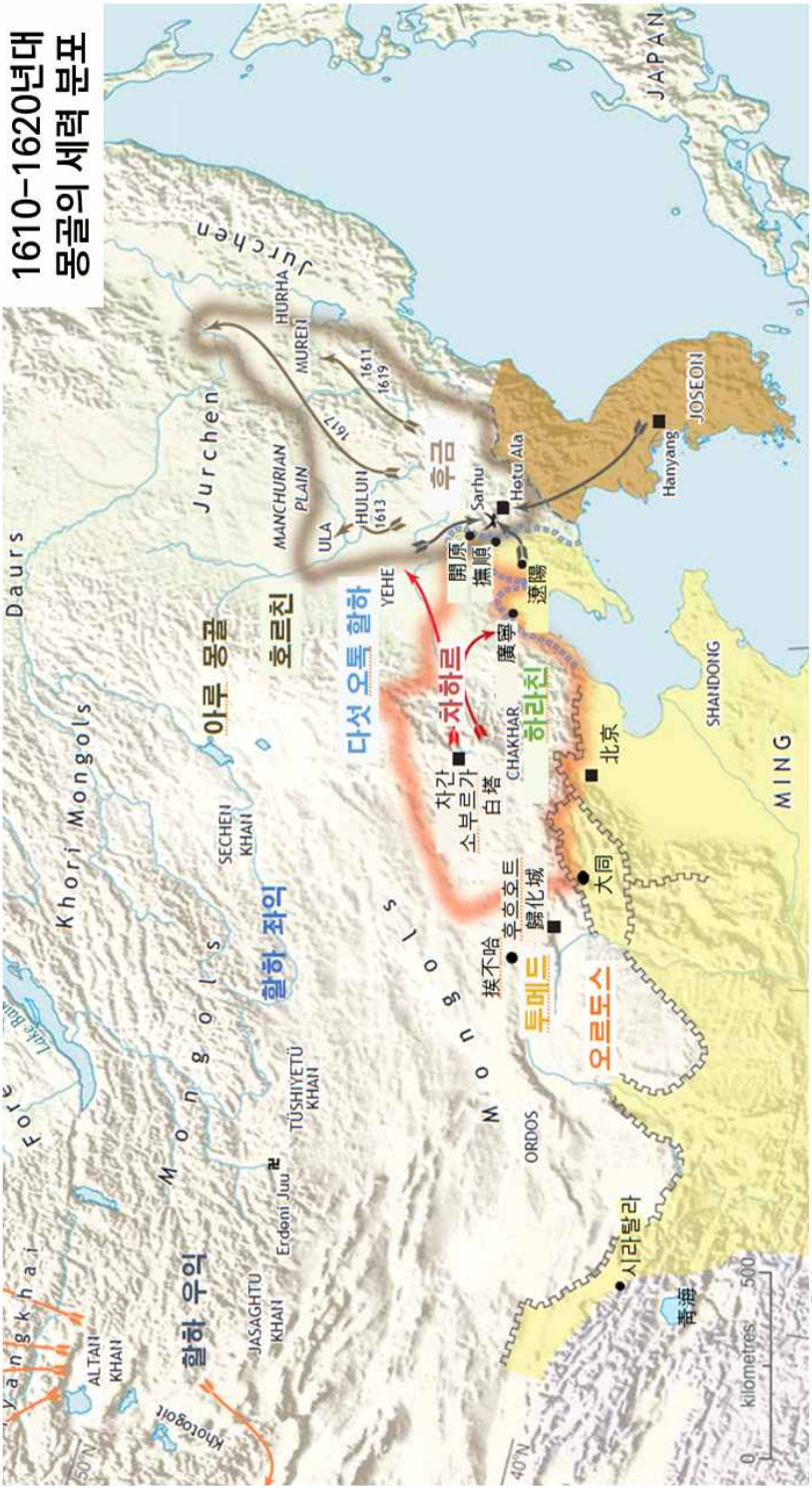
Weiers, Michael. "Das Verhältnis des Ligdan Khan zu seinen Völkerschaften." In *Serta Tibeto-Mongolica: Festschrift für Walther Heissig zum 60. Geburtstag am 5.12.1973*, edited by Rudolf Kaschewsky, Klaus Sagaster, and Michael Weiers, 365-376.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3.

Владимирцов, Б. Я. "Надписи на скалах халхаского Цокту-тай джи. Статья первая." *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6 серия* 20, no. 13-14, 1926: 1253-1280.

———. "Надписи на скалах халхаского Цокту-тай джи. Статья вторая." *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6 серия* 21, no. 2, 1927: 215-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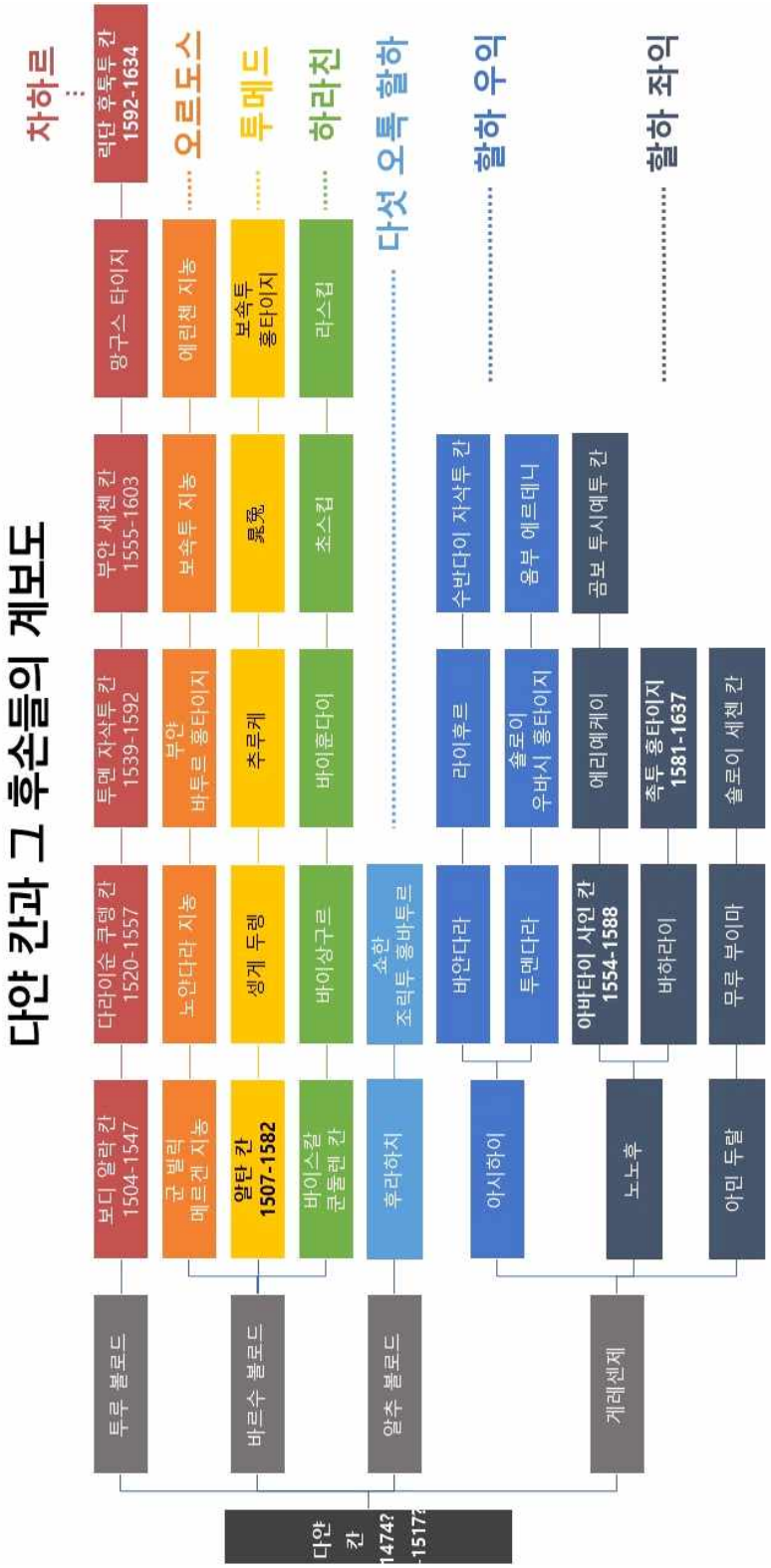
부 록

부록 1



출처: Li Narangoa and Robert Cribb, *Historical Atlas of Northeast Asia, 1590–201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p. 33.

부록 2



* 고마츠 히사오 외,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이평래 옮김, 서울: 소나무, 2005, p. 533을 참조하여 재구성

Abstract

The Last Great Khan Ligdan's Vision of Unified Mongolia and Its Legacy

Choi, Jubong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igdan was the seventh-generation descendant of Dayan Khan, a renowned patriarch of the Mongols, and the last Great Khan who strove for the unification of Mongolia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Although his aspirations to restore era of the Mongol Empire when a Great Khan sat at the top was unfulfilled, the suzerainty Ligdan sought over the whole of Mongolia survived on as a great legacy for both Manchurian and Mongolian ruling classes. So far, most of previous studies on Ligdan have predicated that he was either a tyrant defeated in the confrontation with Later Jin from the Manchus or a villain who attempted to persecute the Geluk Sect from the Geluk's perspective. Even though a few studies evaluated Ligdan as an ambitious person, they focused mainly on the relations with

Ming or Later Jin and overlooked the interrelations between Ligdan and the multiple powers in Mongolia. Therefore, through critical examination of the Manchus and Geluk Sect's records, this article will ananlyze Ligdan's attempt to unify Mongolia from the Great Khan's point of view and will investigate its effect after his death.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Dayan Khan reorganized the Mongols into Six Tümens (myriarchy) and established Chinggisid rule. Dayan Khan enfeoffed his sons to form 'The Six Tümens System' but it began to collapse after his death. The status of Great Khan as the suzerain of Six Tümens was undermined because the chiefs of each Tümen claimed 'Khan' leaning upon the authority of Tibetan Buddhism. The centrifugal tendency gained more momentum as Later Jin became the rising power of the Liaodong region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After enthroned as the Great Khan in 1604, Ligdan subdued the rebellion against his succession and established the ruling system in the Chakhar Tümen with retainers under his direct control. Raiding Ming frontiers in the Liaodong region, he obtained the right to trade and tributes from the Ming Dynasty. When the Khorchin and the Five Otog Khalkha established relations with Later Jin and got out of his grasp, Ligdan annexed some of them to centralize his rule. Ligdan proclaimed that he was descended from Chinggis Khan and recreated the patron-priest relationship between Khubilai and Phagpa by inviting Sharpa Khutugtu, a high priest of Sakya Sect from which Imperial Preceptors originated in the Mongol Empire era.

Ligdan initiated the conquest against Western Tümens and seized Kökekhota, the capital of the Altan Khanids in 1627. After defeating allied troops of Western Tümens at *Aibuha* (挨不哈) in 1628, Ligdan succeeded in reclaiming hegemony which was leaning towards the

Western Tümens since Altan's reign, by subjugating the Tümed and the Ordos. Ligdan monopolized the tributes which used to be for each group of Western Tümens as well as new tributes from Ming Dynasty. After occupying *Yeke Juu* (銀佛寺) in Kökekhota, Ligdan completed the Mongolian Golden Kanjur in 113 volumes under his name in 1629, thus winning the position of the patron of Tibetan Buddhism which previously belonged to the Altan Khanids.

From 1630 to 1632, Ligdan attacked the Aru Mongols by making several expeditions beyond Khingan Mountains. Yet Ligdan could not subjugate the Aru Mongols because they surrendered to Later Jin, Khorchin, and Khalkha. In 1632, together with the Mongol troops who took sides with Later Jin, Hong Taiji plundered Kökekhota and collected tributes for Ligdan to himself by threatening Ming frontiers. After invading *Hexi* (河西) regions with Ordos troops, Ligdan died of smallpox at Shira Tala in 1634 on the way to Kökenuur (青海) in order to rally his supporters such as Chogtu.

After Ligdan's death, the Mongols under Ligdan's command scattered, rapidly collapsing Chakhar power. Taking advantage of the surrender of Ligdan's son Ejei and the acquisition of the Mahākāla statue and the Imperial Seal (傳國璽), Hong Taiji declared his lordship over the regime of the Mongols. On the other hand, the chiefs of Khalkha claimed succession to the legitimacy of Great Khan on the basis of their descent from Chinggis Khan. The conflict between Later Jin and Khalkha was the competition to inherit the legacy of Ligdan who attempted to unify Mongolia, since both sides eventually aimed for the sovereignty over the whole of Mongolia.

keywords : Ligdan, Hong Taiji, Chogtu, Sharpa Khutugtu, patron-priest relationship, Mongolian Kanjur,

Mahākāla, Imperial Seal

Student Number : 2017-27242